

성경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

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

조동호 번역과 편집



Harvey C. Bream, Jr.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

Spoken by Harvey Cleveland Bream, Jr.

Edited by/Translated by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22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Gyeryongsi Choongnam,

Republic of Korea 32815

Tel(042)841-9697

머리말

이 자료는 신시내티 기독교대학교 및 성경대학원(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 and Cincinnati Bible Seminary)의 총장을 역임했던 하비 C.



브림 2세(Harvey Cleveland Bream, Jr.) 목사가 1989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싸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인)의 교회(Southeast Christian Church in Orlando Florida)에서 행한 강연, ‘성경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를 녹음한 4개의 오디오테이프들에 담긴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역자는 이들 오디오테이프들을

오디오 파일들로 변환하였고, 이것들을 다시, 불완전하고 오류가 다소 있겠지만, 아무튼 문자화하였다. 그리고 이 오디오테이프들을 손에 넣은 지 2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다. 오디오 파일(mp3)들과 영한(英韓) 텍스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http://kccs.info>) <그리스도의 교회>란 게시판 46-54, 81-89번에서 듣고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with_home > history 1 페이지 \(kccs.info\)](http://kccs.info)

하비 C. 브림 목사는 95세를 일기(一期)로 2018년 12월 1일 소천하였다. 하비 브림은 영감을 주는 교사, 설교자, 전도자, 찬양리더, 저자, 편집자, 학장, 총장, 이사였다. 그는 76주 이상 산상집회(Christian Service Camp)와 452주 이상 부흥집회를 인도하였고, 세 개의 교회들을 설립하였으며, 일곱 개의 교회들의 설립을 후원하였다. 그밖에도 그

는 수많은 컨벤션들, 모금을 위한 집회들(faith-promise rallies), 세미나들, 부흥회들, 청소년 집회들, 남성 집회들, 리더십 집회들에서 강연하였다. 신시내티 기독교대학교에서는 22년간 개인전도학을 강의하였고, 67년간 ‘그리스도인 환원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독립 그리스도의 교회들 곧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후원을 위한 단체)의 이사로 섬겼다.

강연내용은 총 6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 개론(INTRODUCTION): 신약성경교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The New Testament Church: How It All Began).

제2부 배도(100-1517) [THE APOSTASY(100-1517)]: 무엇이 교회에 잘못되었는가?(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

제3부 그리스도교(개신교) 개혁(1517-1800) [THE PROTESTANT REFORMATION(1517-1800)]: 돌아가는 길(The Road Back).

제4부 환원운동(1793-1900)(출범과 성장) [THE RESTORATION MOVEMENT(1793-1900) (Beginnings and Growth)]: 하나의 새로운 시작(The Restoration Movement: A New Beginning).

제5부 환원운동(1900-1969) (배도) [THE RESTORATION MOVEMENT(1900-1969) (Apostasy)]: 제20세기 배도, 또 다른 잘못된 회전(The 20th Century Apostasy: Another Wrong Turn).

제6부 환원운동(1923-1974) (부활) [THE RESTORATION MOVEMENT(1923-1974) (Resurgence)].

2022년 8월 1일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목차

머리말	3
강사 소개	10
 제1부 개론: 신약성경교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11	
I. 환원이란 말은 무언가가 손실되었음을 암시한다. 본래의 것들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14
II. 무엇이 회복되어야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하는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16
 신약성경교회	28
I.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6:18) - 미래의 사건	28
II. 회복된 교회의 특징들	34
A. 교회의 신조. 참조: 마태복음 16:16, 사도행전 8:37, 디모데전서 6:12-13, 로마서 10:9-10	34
B. 입회(가입) 조건 - 회심 - 사도행전 2,8,9,10,16장 등	38
C. 사용된 이름들	40
D. 지켜진 의식들	44
E. 정치(조직 및 관리)	52
F. 권징 또는 규약(헌장)	64
G. 그것의 통일성	68

결론	74
----------	----

제2부 배도(100-1517): 무엇이 교회에 잘못되었는가?/78

서론: 신약성경 규범으로부터의 이탈	80
---------------------------	----

I. 교리와 도덕적 배도	84
---------------------	----

A. 사제 계급의 등장(사제 계급 제도 - 통치자 집단 - 서열의 등장, 교회 통치 체계)	84
---	----

B. 성경적 - 장로들, 목사들, 감독들(동의어 - 동일한 직분을 가리킴)	84
--	----

C. 비성경적 도입들	88
-------------------	----

결론	122
----------	-----

제3부 그리스도교(개신교) 개혁(1517-1800): 돌아가는 길/124

서론	124
----------	-----

I. 존 위클리프(14세기 후반)	126
--------------------------	-----

II. 틴들(순교자의 죽음-1536):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	128
--	-----

III. 루터	128
---------------	-----

IV. 다른 개혁자들	142
-------------------	-----

A. 스위스-츠빙글리(1484-1531)	142
------------------------------	-----

B. 1536년 칼뱅이 제네바로	146
-------------------------	-----

C. 헨리 8세	152
----------------	-----

D. 스코틀랜드 - 존 녹스 - 노회에 대한 강조	156
-----------------------------------	-----

E. 존 웨슬리 - 1729	158
-----------------------	-----

V. 종교개혁 직전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 1492년	162
--------------------------------------	-----

결론	168
----------	-----

제4부 환원운동(1793-1900)(출범과 성장):

하나의 새로운 시작/172

서론	172
I. 독립적인 운동들: 스코틀랜드 - 1778년; 웨일즈 - 1795년; 아일랜드 - 1807년	174
II. 미국에서의 운동	174
A. 제임스 오켈리, 라이스 해거드 - 감독 통치에 대한 반항 176	
B. 아브너 존스 - 침례교 - 버몬트 주(1800-1803)	178
C. 발톤 스톤 - 장로교 - 켄터키(1801)	180
D. 토마스 캠벨 - 옛빛, 안티버거, 스코틀랜드 분리와 장로교회 - 1807년 미국으로 이주	188
E. 알렉산더 캠벨(아들) - 1809년 아버지의 견해에 동의	198
F. 월터 스코트 - 장로교 - 1822년에 캠벨과 만남	208
G. 성장	212
결론	218

제5부 환원운동(1900-1969) (배도): 제20세기 배도,

또 다른 잘못된 회전/228

서론	228
I. 정의 - 이탈, 원칙들이나 믿음의 포기	228
II. 성경적 경고 - 사도행전 20:28-31; 로마서 16:17, 18	230
III. 배경	232

A. 선교회들의 결성	232
B. 악기사용 문제 - 1850	232
C. 캠벨학회(Campbell Institute)의 결성 - 1896. "신(新)학습 또는 지식" - 합리주의(모더니즘)	234
D. 미국종교인구조사국에 별개로 등록 - 1906년	238
E. 100주년 기념대회,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 1909년 240	
F.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의 결성	242
IV. 환원운동의 고유(固有)의 원리들	244
I. 합리주의의 침투(불신앙)	248
II. 교회들의 방침결정	262
III. 재구성 - "60년대 - 결정의 10년"	274
결론	276

제6부 환원운동(1923-1974) (부활)/280

서론	280
I. 클라크 기금의 설립(1923)	284
II. 2개의 새로운 학교들의 설립	286
III. 클라크 기금의 성장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로부터 분리 - 1925	292
IV. 그리스도인봉사캠프운동(1927): 그리스도인환원협회가 마련한 12개 주들에 12개 캠프들	292
V. 직접후원선교의 계기	296
VI. 65년간의 믿음으로 공동노력	304
결론	308

영어 오디오 파일

<http://kccs.info/rm1-harveybream.mp3>

<http://kccs.info/rm2-harveybream.mp3>

<http://kccs.info/rm3-harveybream.mp3>

<http://kccs.info/rm4-harveybream.mp3>



강사 소개

우리는 여러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연속해서 말씀들을 전해주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은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포레스트 대일 그리스도의 교회(Forest Dale Church of Christ in Cincinnati Ohio)의 목사입니다. 그분은 신시내티 성경 대학의 학장과 동기관원의 총장(chancellor)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는 이전에 300회 정도, 부흥회들, 주간 집회들, 산상집회들(camps) 및 그 같은 수백회의 집회들에서 설교하셨던 전반적으로 부흥전도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그의 가족은 근본적으로 설교자들의 집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 세 명의 동서들, 두 명의 아들들, 한 명의 삼촌, 두 명의 조카들, 한 명의 사위가 설교자이고, 세 명의 손자들이 장래의 설교자들입니다. 그간 그를 우리 교회에 모실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는 이번에 하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소재한 '그리스도인환원협회'(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in Cincinnati Ohio)를 위해 전 미주(美洲)들을 순회한 전도자로 섬겼고, 3개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포레스트 대일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1989년 신시내티 성경 대학의 총장직에서 은퇴하신 후 설교 목사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림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실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분을 환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실 때 그분을 열렬히 맞이합니다.

**INTRODUCTION to Harvey C. Bream, Jr. spoken
by the minister of Southeast Christian Church in
Orlando Florida on September 10, 1989**

We invited for you. There, in this series of messages Harvey C. Bream is a minister of Forest Dale Church of Christ in Cincinnati Ohio. He is formerly a president of Cincinnati Bible College, chancellor of that same institution. He is formerly an evangelist at large he has preached some 300 and some revival meetings, weeks and camps and hundreds of those. And he is a father of four children. He is a family, a primary family of preachers. I had to get this out to remember and get straight his father, his brother, three brothers in law, two sons and an uncle, two nephews, son in law and three grandsons potential preachers and he didn't have had a chance. We're delighted to have Harvey to come to share with us. He has formerly served an evangelist at large for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in Cincinnati Ohio and has helped establishing three congregations, one of which was Forest Dale Church which he has returned as a preaching minister after his retirement as a chancellor of Cincinnati Bible College in 1989. And we're delighted to welcome brother Bream as he comes to share with us. Let's give him a fine floating welcome as he comes to teach the Word of God.

환원운동사(RESTORATION HISTORY) 신약성경교회로의 환원(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제1부 개론(INTRODUCTION): 신약성경교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The New Testament Church, How It All Began).



예배 출석 인원이 매주 2만 3천명이 넘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큰(fourth-largest church)
켄터키주 싸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인)의 교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과 신약성경들을 가져오셨기를 바랍니다. 또 배포된 강연요약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료들을 빠르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은 그 자료들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일부를 느슨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공부가 여러분을 독초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을 전혀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암시성이 있는 성구들과 본문들에 흥미를 끌어낼 뿐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4일 밤 동안 함께 나눌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성구사전들을 참고하여 좀 더 확실히 공부하고 싶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눌 이 일련의 강의의 전체적 주제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 곧 신약성경교회의 회복’(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 Restoring New Testament Church)입니다.

저의 기본 명제(제안)는 이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환원 원리는 20세기와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RESTORATION HISTORY

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PART 1 INTRODUCTION: The New Testament Church, How It All Began

I hope you brought your Bible and New Testaments with you and you look at the outlines that have been distributed. Perhaps you want to turn those references in advance because we're going to pass them rapidly. We won't read all of them. We will make loosen some of them. By the way this series of study I hope it doesn't exhaust you; it is not really exhaust you at all. We're just exciting the suggestive scriptures and texts and hope you want to go to your concordances and you're more definitive study all these matters we're going to be sharing together from night to night.

The overall theme of this series of lectures which we're going to be sharing is entitled, "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 Restoring New Testament Church."

My basic proposition is this. The restoration principle that is a return to scripture is still valid in the 20th and 21st century which we're entering.

환원 원리는 오늘날에도 실용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강연에서 자주 사용할 몇 개의 용어들의 정의를 위해서 웹스터의 대학생용 사전(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을 활용하였습니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원하다'(Restore)란 용어를 주목해주시요. 그것은 '다시 세우다'(to reestablish), '원래 장소에 되돌리다'(to put back into existence or use), '되돌려놓다'(to put back), '이전 혹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다'(to bring back to or put back into the former or original state), '수선하다'(to repair)란 뜻입니다. 또 다른 용어, '환원'(Restoration)도 여러 번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손상되지 않았거나 훨씬 개선된 상태로 되돌림'(a putting back into an unimpaired or much-improved condition) 곧 '원래 형태의 표시'(a representation of original form)를 의미합니다.

제 아내와 제가 방문하고 싶어 하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 중 하나는 버지니아 주에 소재한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그 역사적 장소를 이미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매혹적인 이유는 위대한 식민지 도시인 윌리엄스버그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장소에 복원하려고 시도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원래 세워졌던 그대로, 원래 주거지였던 그대로의 모든 모습은 그 당대의 식민지 생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우리는 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말은 단순히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말합니다. 이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무엇이 되는지 봅시다. '환원역사'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기도하셨던 일치의 수단과 응답으로써 원래 상태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것으로 되돌리는 것에 관한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입니다.

I. 환원이란 말은 무언가가 손실되었음을 암시한다. 본래의 것들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The term, restoration, implies that something has been lost; the original has been impaired.).

Restoration principle has practicality and validity for today. I went to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for definition some of terms we will be using frequently throughout this series. And you might follow with me. Notice that the term is "Restore." It means "to reestablish; to put back into existence or use; to put back; to bring back to or put back into the former or original state; to repair." Another term will be using many times, "Restoration: a putting back into an unimpaired or much-improved condition; a representation of original form."

One of the favorite spots my wife and I like to visit is Williamsburg Virginia. Perhaps some of you had enough to visit that historical spot. The reason that is so fascinating is because it has been endeavored to restore that great colonial city of Williamsburg. And they had done a master job trying to put back into exact place. All that is original dwelling as they were originally constructed gives an insight into the colonial lives of that then and age. So that's we'll talk about, we'll talk about Restoration. Now the term history is simply "a systematic account of events." Now let's make a composite and see what's come up with. Restoration History is the systematic account of events relating to the bringing back into its original state, the church of Christ and this, as the means to unity and the answer that Jesus prayed in John 17:21.

I. The term, restoration, implies that something has been lost; the original has been impaired.

그런데 환원이란 말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저는 몇몇 우리의 초창기 설교자들이 가족의 입맛을 자극한 최애(最愛) 조리법을 가진 한 여성에 대해 사용하곤 했던 오래된 예화를 들었던 소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특정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어져서 조리법을 찾았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이전에 사용했던 모든 재료에 대한 기억과 그 재료의 양, 그리고 어떻게 혼합했었는지를 생각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녀가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후로도 여러 번 시도해보았지만, 그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그녀는 집안을 청소했고 캐비닛을 옮겼습니다. 벽에 맞대어 세워진 그녀의 작업 캐비닛 뒤에는 먼지가 묻어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조리법을 적은 쪽지는 캐비닛 뒤 곧 캐비닛과 벽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조리법을 적은 쪽지를 찾은 그녀는 당연히 기뻐했고, 그것을 꺼내서 먼지를 모두 털어낸 다음, 그녀 앞에 펼쳐놓고, 조리법에 적힌 대로 동일한 재료들과 동일한 양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녀는 예전처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화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원 문제의 성격을 짚어줍니다.

II. 무엇이 회복되어야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하는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How are we to recognize that which is to be restored? Where is it to be found?)

물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합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미국 그리스도교 연감>(American Yearbook of Christian Church)이라는 제목의 연례 간행물이 오늘날 미국에는 주요 교단들이 300개가 넘는다고 밝힌 사실

Now the very term, restoration, implies something that's been lost. I remember the boy hearing an old illustration some of our pioneer preachers used to use about a lady who had a favorite recipe that just tickled palate for her family. So she wanted to set about a task preparing for particular dinner and she looked for the recipe but couldn't find it anywhere. So she tried to recall her memory of ingredients she all used and the amount of those ingredients and how she could combine them. But lo and behold, it wasn't just turned out the way that she had before. And every succeeding effort ended in similar failure. Until after some time has passed she cleaned the house and moved cabinet, her work cabinet back from the wall dusted behind it. And lo and behold this recipe was slipped behind the cabinet, between cabinet and the wall. She was delighted of course and she took it out and dusted it all and laid it down before her and she followed instruction using the same ingredients and same amount and same way and lo and behold had same result as in the beginning. And that's what we talk about here in the matter of restoration.

II. How are we to recognize that which is to be restored? Where is it to be found?

Of course, the basic question which we can find is this. How are we to recognize that which is to be restored? Where is it to be found? And this question is really essentially by the fact that the annual publication, entitled, the American Yearbook of Christian Church, revealed there are in America today over 300 major denominations.

에 기인합니다. 이것은 더 작은 교단들과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많은 주의주장들(causes and isms)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지적으로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할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모든 가르침들과 모든 관행들과 모든 다양한 교단들이 그가 해야 할 연구 과제들로 닥칠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연구를 양심적으로 진행한다면, 그는 아마도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것들의 연구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가 끝날 때쯤이 되면 그는 아마도 그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욱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의 명제는 공정하고 지적으로 정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또 다른 옛 예화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은행에 들어와서는 점객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행장을 접견할 약속을 잡지 못하자, 그는 점객원에게 5달러짜리 지폐를 건네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 평범한 지폐로 모든 위폐를 어떻게 구별해낼지를 가르쳐드릴 수 있다고 은행장에게 말해 주십시오.” 점객원은 그 명함을 들고 가서 호사스런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은행장에게 건네며 그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은행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였습니다. “음, 정말 평범한 지폐로군. 이런 5달러짜리 지폐가 이 은행에 수천달러는 족히 있을 텐데.” 그래서 그는 젊은이를 들어오게 해서 책상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행장은 그 젊은이가 서류가방에서 온갖 종류의 위폐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구별할지를 자신에게 가르쳐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젊은이는 그냥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낸 후 은행장의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은행장님, 저한테 이 진짜 돈의 특징(귀표)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은행장님은 단순히 대조해 보시는 것만으로 모든 위폐를 자동으로 구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소(plea)는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마도 처음보다 더 심한 혼란에 빠뜨릴 이들 다양한 종교 단체 모두를 연구하는 대신에, 저의 명제(제안)는 모두가 진짜를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함께 신약성경의 페이지들을

This is not included in many less denominations and many causes and isms that continually are springing up. Now a man will be intellectually honest in searching for truth. It will be coming upon him to study all of the teachings and practices and all of various denominations. It probably will take most of the lifetime if he is conscientious in pursue of such a study. And at the conclusion of such a study he perhaps will be more confused when he began.

Our proposition I believe is fair and intellectually honest. I think, first of all, it has seen in another old illustration. A young businessman walked into a bank and handed his business card to a receptionist. And after he can't have an appointment to see the bank president, he said, "Tell your president that from modesty of five dollar I will teach him how to recognize all counterfeits." The receptionist took the card and handed it in to his president who was sitting behind a bright shiny and mahogany desk. He listened to it. He thought, "Well, that certainly is modesty. Five dollars, perhaps I can see to myself and my bank thousands of dollars." So he had to usher a young man in who said, "Come close to desk" before him." And he expected this young man would open his briefcase and spread out on desk before him all his various counterfeit bills to teach him how to recognize them. And to, to a surprise, young man who simply reached and pulled in a bill for out of pocket withdrew a dollar bill for that bill for laid it on the desk before the bank president and said, "Sir, if I can teach you how to recognize earmarks of all that is genuine automatically by contrast, you will recognize all that is counterfeit."

And so our plea is this. Instead of studying all of these various religious groups which will take enormous amount of time and perhaps end up more confusion than the outset, my proposition is to take that would all accept as the genuine. And we open up the pages of

펼치고 신약성경 말씀들에 계시된 대로 교회의 특징들을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신약성경교회가 가르친 것들과 신약성경교회가 실천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실천한 방법을 연구해보면, 우리는 모든 진짜들의 특징들을 대조하고 조사함으로써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짜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명제의 놀라운 실용성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메릴랜드 주에서 가장 큰 도시들 가운데 한 곳에서 개최된 부흥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회에 다니는 한 여성이 이 집회들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세련되고 교양 있는 한 여성이 집회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녀가 우리를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초청하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들어가 보는 특권을 누렸던 가장 아름다운 집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자 그 부인은 말하기를, "저는 당신네 저녁 집회들에 즐겁게 참석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밤에 몇 사람이 (예배당 안의 침례당에서)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녀는 말하기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침례를 베풀 때, 당신네가 침수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란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저는 약식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신네가 침례를 베푸는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집에 들어섰을 때 제가 안 첫 번 것들 가운데 하나 때문에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일종의 문헌과 다른 것들 주변의 것들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에 잘 띄는 커피 테이블 위에 성경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분명히 오래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기를, "그럼,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성경이 있군요. 당신의 성경을 펼쳐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말해야만 했고, 그녀의 성경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물론이죠, 저는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이 마지막 말씀들은 틀림없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

New Testament together and study the earmarks of the church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Studying the things New Testament church taught and the New Testament church practiced and the way that they practiced them, we can examine to recognize the earmarks of all that is genuine automatically by contrast, we will recognize all that is counterfeit. And this is an amazing, the practicality of that proposition.

Several years ago, I was in the revival meeting in one of largest cities in Maryland. An Episcopal lady has been attending our services. A very refined cultural woman has been seemingly enjoying the services and we were asked to visit her home. A very lovely home, one of the loveliest home in which I have ever been privileged to walk into. And this lady as we began our conversation said, "I've been enjoyed your services from night to night." But she said, "I noticed," because the previous night there were several baptisms, she said, "I noticed when you baptized you immersed people." She said, "I was sprinkled." She said, "Can you explain that to me?" And I noticed because one of the first things I knew when I was going to her home. I observed the things around a kind of literature and other things. And I saw laying on the coffee table very conspicuous place the Bible. And it was obviously a worn Bible. And I said, "Well to answer that question." I said, "I see your Bible, Let's see your Bible." I had to say. I picked it up. And I said, "I assumed you believe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She said, "Well, I always believed that." I said, "Let's see what Jesus talked in his last words on earth. It must have been very important in these last words.

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16절을 펼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그녀의 성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구절에 이미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시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녀는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돌아가 그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기였을 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어라고 말씀 하셨나요?” 그녀는 다시 그것을 읽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를 봅시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때의 이야기가 실린 사도행전 2장을 펼쳤습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마치자 군중이 그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지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책을 그녀에게 넘겨주며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녀는 명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읽기를 다 마치기 전에 멈추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큰 소리로 읽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세례받기 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기였을 뿐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회심들이 그와 똑같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를 원했을 뿐이지,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고, 단지 그녀에게 성경 말씀들을 읽게만 했습니다. 성경말씀들이 답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공부를 마쳤을 때, 이것이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약식세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녀가 모든 진짜들의 특징들을 인식하자

And turn over Mark 16 chapter and 15 to 16 verses. And I handed her over her own Bible and by the way I observed those two verses have already been underlined by pen. I said, "You read what Jesus said?" She read it aloud. "And Jesus said unto his disciples, 'Go ye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whole creation. He that believeth and is baptized.'" She stopped there. She backed up and read it again. "He that believeth and is baptized." She looked up and she said, "I didn't believe when I was baptized. I was just a baby." I said, "What did Jesus say?" She read it again, "He that believeth and is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that believeth not shall be condemned." I said, "Now let's see Jesus' apostle to whom was given a command to obey Jesus. So I turned over the second chapter of the Book of Acts when the church was established and the gospel was preached for the first time. Now Peter had just finished a sermon and the crowd asked what to do. Let's what Peter told them to do. And I handed it to her and read Acts 2:38. She read it, "Peter said unto them, Repent ye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She was a sharp lady. She stopped before she finished reading and backed up and ready to read it again out aloud. "Repent ye therefore, and be baptized." She said, "I didn't repent before I was baptized." She said, "I was just a baby." I wanted all of conversions in the Book of Acts was just like that. I'd never told a thing. I just let her read the scriptures. Let the scriptures answer. When we've got through that study, here was the first question. I hadn't even said a word about it. She said, "Where did sprinkling come from?" By her recognizing the earmarks all that is genuine automatically

마자 그녀는 모든 가짜들을 자동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말씀으로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교회사를 약 30분가량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려면 총 4회에 걸친 강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 그녀의 집에서 그녀에게 30분만 교회사를 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인디애나 주 미시간시티(Michigan City) 어느 교회의 집회에 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톨릭신자 부인과 감리교인 남편이 이웃들 가운데 한 분의 초청으로 우리의 집회들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기간 목요일 밤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대부분의 청중이 떠날 때까지 기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브림 씨, 남편과 저는 당신들의 이 저녁집회에 참석하여 당신이 행한 설교들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교 때 인용한 모든 성구들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양육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전투적으로 양육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몇 분만 시간을 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로비에서 나와 옆방(주일학교 분반을 위해 마련된 방들)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부부가 함께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는 평생 동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다시 그들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들에게 완벽히 솔직하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로마 가톨릭 교리는 성경과 동등하거나 동등하게 권위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유일한 신앙의 권위

she recognizes all that is counterfeit. I said to her, "I can't not answer you that question from the scriptures. I can answer that question from the study of church history." And I launched about half an hour discourse covering church history. It takes me four lectures to give this whole things to you. I gave it to her to learn half an hour in her home that day. And that evening she was baptized into the Lord Jesus Christ.

I had the same experience somewhere in Michigan City Indiana in a meeting. A Roman Catholic lady and a Methodist husband had been attending our services upon invitation of one of neighbors. On the first Thursday night of revival she and her husband kindly held back until most audiences departed. She came up to me. She said, "Mr. Bream, my husband and I have been enjoyed what we've been hearing you these nights that we've been attending here meetings. She said, "We especially appreciated all the scriptures you used in your preaching." She said, "We have been thinking about becoming members of the Christian Church." She said, "But it's a hard decision." She said, "I have been reared all my life." She said, "I was reared in a combat." I said, "You have a few minutes of time." They said, "Yes, we do." So we stepped out the church foyer and entered in a side room. I said then, "Do you believe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They both said, "Why, we believe that all our lives." I said, "Do you believe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Again they both in firm said. "We always believed that." I said, "Now I want to be perfectly candid and honest with you." I said, "Roman Catholic Church tradition, Roman Catholic dogma, is accepted on a par or equally authoritative with scripture." I said, "I accept the Bible alone as my only authority in religion."

로 성경만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주장을 기꺼이 수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의 유일한 신앙의 권위로 기꺼이 수용하시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요청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둘 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요청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고자했습니다. 저는 동일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에게 성경을 건네고 마가복음 16장 15-16절을 그 부인이 큰 소리로 단지 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절차대로 그녀는 읽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런, 저는 세례를 받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아무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기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인 오순절로 방향을 틀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앞서 언급한 다른 여성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회심자들에게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들은 모두 주저함 없이 “예,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기꺼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녀는 물려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생 동안 정말 로마 가톨릭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갈등(전투)중이며 이것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예, 당신은 성경을 당신의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서

I said, "You're willing to adapt that position if you believe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You're willing to accept what you admit to be God's Word as your only authority in religion? Husband and wife with one another they said, "We are." I said, "You're willing to do whatever you find Jesus asked you to do?" They both said, "We are." The work was done. They had accepted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They accepted Jesus as God's Son. They're willing to accept the Bible as only authority. They're willing to do whatever they find Jesus had to say. I followed the same procedure. I turned Jesus' last word on earth. I handed the Bible to them there and in Mark 16:15-16, just let the lady read it aloud. And in the same procedure, She read, "He that believeth and is baptized shall be saved." She stopped. And she said, "Why, I didn't believe when I was baptized. No one told me when I was baptized. I was a baby." I said, "What did Jesus say?" She read it again; I wanted the Day of Pentecost when the church was established. Peter was in the same procedure. She came to the same conclusion with the other lady whom I alluded. We went to the conversions. And finally I said to them, "Is this what the Bible teaches?" They both without any hesitation said, "Yes." That's what the Bible teaches." I said, "Is this what now you're willing to do?" She began to back up. She said, "Well you know, I told you that I have been really a Roman Catholic all my life. We're in combat and this is a hard decision." I said, "Yes, you said that you accepted the Bible as your only authority.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하라고 한 것을 발견하는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저는 기쁘게 그 방을 나왔습니다. 대략 15분이 지나자 교회로비 쪽으로 방문이 열렸고, 마침내 그들이 걸어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밤 10시 30분쯤에 우리는 그들 부부와 함께 걸어서 침례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제(제안)입니다. 본래 것들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와 가톨릭 모두의 모든 교파주의를 넘어서서 신약성경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 대로 그것의 교리들과 그것의 의식들(침례와 주의 만찬)과 그것의 삶과 열매들에서 힘써 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무엇이 회복되어야하는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한 이들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신약성경교회를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교회(THE NEW TESTAMENT CHURCH)

I.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6:18). - 미래의 사건 <Jesus spoke of the church (Matthew 16:18) - a future event>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북쪽 지방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억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

You accepted what Jesus said. You're willing to do what you find what he asked to do." They said, "Will you excuse us for a few minutes." I was happy so I left the room. About fifteen minutes passed, the door opened toward the church foyer and at last they stepped out and said, "We're ready to be baptized into Christ." About 10:30 o'clock at night we walked into baptistery with that couple and so motivated the gospel

That is our proposition: Going back to the original. Going back beyond all denominationalism both Protestant and Catholic and endeavored to restore the church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in its doctrines and in its ordinances and in its lives or fruits. And so the New Testament affords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for we recognize that which is to be restored and where it is to be found. So now let's begin with looking at how it all began the New Testament church.

THE NEW TESTAMENT CHURCH

I. Jesus spoke of the church (Matthew 16:18) - a future event.

Recalling the 16th chapter of Matthew Gospel, Jesus had gone with disciples to upper parts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Whom do men say that I the Son of man am?" They said, "Well, some say you're Elias, Jeremiah, one of the prophets. John the Baptist." And Jesus remembered and said, "Whom say ye that I am?" Remember Simon Peter replied and said,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Blessed art thou, Simon Barjona:

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신 설명과 시제에 주목해주시요. 예수님은 교회를 미래의 사건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교회는 침례 요한에 의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미래의 사건으로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진술을 하신 때에 침례 요한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으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인용했습니다. 초기 교회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까지 처음 9년 또는 10년까지는 구성원들이 거의 전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무렵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따르면 로마군인 고넬료가 항상(하루 세 번 기도시간에) 기도를 했고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러면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연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신 것을 보면, 그 때 그들은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을 금하리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침례를 베풀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할례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기다리고(벼르고) 있었고, 그를 소환하여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그 일을 변호하면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이 일을 변호하면서 15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10여 년 전의 오순절 날로 거슬러 올라가 그 때의

for flesh and blood hath not revealed it unto thee, but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And I say also unto thee, that thou art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Now notice the note and tense the Lord used. He referred to the church as a future event. The church was not established by the John the Baptist. The church is referred to as a future event. John the Baptist was already deceased at the time Jesus made this statement,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So it was a future event.

Now the Pentecost is cited by the apostle Peter as the beginning of this event. Recalled the church by the first 9 or 10 years had been almost exclusively Jewish. Until the apostle Peter had a vision when he was in the house of Simon a tanner there in Joppa and Cornelius Roman soldier as you find according to 10th chapter of Acts had hourly prayed and seen a vision of an angel appearing to him saying, "Send men to Joppa, and call for Simon, whose surname is Peter who shall tell thee words, whereby shall be saved thou and all thy house." So all of a sudden Peter understood what the significant the vision was and he came to Cornelius' house and preached the gospel. And when he preached and recalled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and then they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Peter said, "Why how can we forbid water, that these should not be baptized, which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as same as we?" Well, words got back down Jerusalem to the church there that Peter had gone and preached the gospel to the gentiles and baptized them into Christ and brought them in the church. They were waiting for him and calling him on the carpet. And Peter in his defense of the action he had taken, if you turn to Acts 11th chapter where Peter gives the defense before the church in Jerusalem for this which was just done in the 15th verse, he said, "When the Holy Spirit fell on them, as on us at the beginning." Here Peter is referring all the way back to the day of Pentecost.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침례(성령세례), 이 방언 말함은 분명히 흔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유일한 다른 시간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16장에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다시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말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눅 24:49)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어떤 이들이 나서서 조롱하여 말했습니다. “이 자들은 술 취한 자들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열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간이 3시에(오전 9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고 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인용했습니다. 그 예언은 성취되었고 분명히 현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대로, 이것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9-10년쯤 후인 여기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관하여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 정당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전체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You see this.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is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is speaking in tongues was obviously not a common occurrence.

The only other time in here Peter cited was something that happened way back to the beginning. Pentecost, that was born out in the second chapter of Acts when here in fulfillment that Jesus promised to the apostles in John 14 through 16 and he promised again he gives in Acts the first chapter when he told disciples, "You tarry in Jerusalem until you shall be endowed with power from on high." And in the first and second chapters of Acts now when the day of Pentecost was fully come, they were all with together one accord in one place. There came suddenly from heaven a sound as of a rushing mighty wind, and it filled all th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And there appeared unto them cloven tongues like as of fire, and it sat upon each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Now some happened of course and began a mocking here and said, "These are men of drunk." But Peter stood up with the eleven and said, "These men are not drunken, as you suppose, seeing it is but the third hour of the day. And "listen." He said, "For this is that. This is that which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And it shall be in the last days, saith God, I will pour out of my Spirit upon all flesh." And the one he had quoted that great Old Testament prophecy hath poured forth which was being fulfillment and very presence and because later on in this sermon and read this in the second chapter of Acts and said, "Having received of the Father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he hath poured forth this, which ye now see and hear." And here 9 some years later Peter says concerning the house of Cornelius justification going into them, "yes, the Holy Spirit fell upon them, as on us at the beginning." And that satisfied the Christendom in Jerusalem. They glorified God. To all from the gentiles now the gospel has been preached.

II. 회복된 교회의 특징들(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to be restored)

A. 교회의 신조. 참조: 마태복음 16:16, 사도행전 8:37, 디모데전서 6:12-13, 로마서 10:9-10(Its creed, cf. Matthew 16:16; Acts 8:37; 1 Timothy 6:12-13; Romans 10:9-10)

이제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게 될 회복된 이 교회의 6가지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조입니다. 신약성경교회에 신조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조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라틴어 단어입니다. 오, 라틴어 학자 여러분들, '크레도'(credo)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그 라틴어 단어를 번역하면 '나는 믿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조는 여러분이 믿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교회의 신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8장에 실린 에티오피아인들의 여왕의 재무관에게 설교한 빌립을 기억하십니까? 이 재무관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시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있습니다. 그는 같은 성구에서 시작하여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 곧 구약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부름을 받고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고 계신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저를 지도해줄 어떤 사람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병거에 올라타도록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내시는) 그 성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35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구에서 시작함으로써 빌립은 그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II.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to be restored.

A. Its creed, cf. Matthew 16:16; Acts 8:37; 1 Timothy 12, 13; Romans 10:9, 10.

Now let us look at six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is church that we will lovely see the restored. The first of them of characteristics are creeds. Did the New Testament church have a creed? Yes, it did. Now that word, creed, is not a New Testament word. It's a Latin word. Oh, you Latin scholars remember the word, 'credo'? Translated that Latin word means 'I believe.' So creed is what you believe. Now what is the creed of New Testament church? We have already quoted, Peter's confession that was in the parts of Caesarea Philippi, Matthew 16:16,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The 8th chapter of Acts, do you remember that Phillip had preached a treasurer of the queen of the Ethiopians who had been up to Jerusalem for worship and now a way back home? There is 35th verse of 8th chapter of Acts. He read beginning at the same scripture because here this eunuch had been reading out of 53 chapter of Isaiah and Old Testament messianic prophecy. And Phillip was called up and said, "Do you understand what you're reading?" He said, "How can I, except some man should guide me?" Phillip was invited to come up the chariot. And he read the scripture again and turned to Phillip said, "Who is the prophet talking about, himself or someday else?" The 35th verse is this. And beginning at the same scripture, Phillip preached unto him Jesus. And as they went on their way,

물이 있는 곳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리고 빌립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해 믿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답했고 또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거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곧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둘 다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붙잡아가셨기 때문에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다시 신앙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고백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 곧 선한 신앙고백을 그가 많은 증인 앞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행하신 선한 신앙고백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불러냅니다. 로마서 10장 9-1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신약성경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사도신경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결코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사후에 나온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니케아 신조도 없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300년이 지나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교회의 유일한 신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they came unto a certain water: and the eunuch said, "See, here is water; what doth hinder me to be baptized?" And Philip said, "If thou believest with all thine heart, thou mayest."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he commanded the chariot to stand still: and they went down both into the water, both Philip and the eunuch; and he baptized him. And when they were come up both out of the water, the Spirit of the Lord caught away Philip, that the eunuch saw him no more: and he went on his way rejoicing.

Here you find again a confession of faith. Turn over here to 1Timothy the 6th chapter the 12th to 13th verses. You also find the apostle Paul reminding Timothy of the confession. The profession, the good profession he made before many witnesses. And also Paul here writes to Timothy and alludes to a good confession that Jesus Christ made before Pontius Pilate. We call that incident. In Romans the 10th chapter 9th and 10th verses, Paul says, "For we confess with our mouth the Lord Jesus, and believe in our heart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we shall be saved. For with the heart man believes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Now notice. There is no mention in the New Testament about Apostles' Creed. Apostles never saw the Apostles' Creed. They never wrote it. It came to existence after the deceased of the apostles. No Nicene Creed. Nicene Creed is not formulated until 300 years later. We'll come to that later on our study. The only creed of the New Testament church was the fact that Jesus wa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B. 입회(가입) 조건 - 회심 - 사도행전 2,8,9,10,16장 등(B. Terms of admission - conversions - Acts 2,8,9,10,16; etc.)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 교회의 다른 어떤 특성에 관심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입회(가입) 조건입니다. 자, 오늘 밤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혼란스러운 종교 세계에 이 정도만 접근하면 신약성경 교회의 입회 조건은 구원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를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선택한 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는 개념은 신약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 용어는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를 자동적으로 주님의 교회 곧 주님의 몸의 구성원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회심에서 지적됩니다. 가장 첫 번째 회심은, 우리가 그것을 불러냈듯이, 우리가 이미 인용했던 오순절 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구절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에 구원 받는 혹은 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가입합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의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가입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운 죄 사함의 조건들을 따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의 교회에 더하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도행전 8장에서도 같은 것을 발견하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회심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8장을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에 관해서 읽었고, 마술사 시몬의 회심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은 다소 출신의 사울의 회심을 읽었

B. Terms of admission - conversions - Acts 2,8,9,10,16; etc.

Now what other characteristics are we interested i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Secondly is a term of admission. Now hear this tonight, if we just get this close to our confused religious world, the terms of admission in the New Testament church are identical with the terms of salvation. That which saves man automatically at one of the same times makes him a part of the church. Completely foreign to the New Testament is the concept that a man can be saved and later on join in the church of choice. That terminology is completely foreign to the scriptures. That which saves man makes him automatically a part of the Lord's church, Lord's body.

That is pointed out in the conversion. The very first conversion is; we call it out, on the Day of Pentecost which we've already cited. And notice what that concluding verse is. 47th verse says in the second chapter of Acts. And they were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 church daily such as should be or being saved. There is no such thing that you're joining in the church. We hear people use that term, "I join in the church." My friends, if you'd join in the church, you'd join in the Lord's church. The only way you can be come up a part of the Lord's church is the Lord adding you when you comply with his gracious conditions of pardon from sins. When you obey the gospel in faith, then the Lord adds you to his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Also you find the same in the 8th chapter of Acts. These are all the conversions. The 8th chapter of Acts you read about conversion of the Samaritans, read about conversion of Simon of sorcerer. You also read about conversion of Ethiopian eunuch. In the 9th chapter of Acts you read the conversion of Saul of Tarsus.

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훗날 두 번의 공회들에서 바울 자신이 일종의 회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로마 군인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10장을 읽었고, 물론, 여성 사업가 루디아와 빌립보인 간수의 회심에 관해서 사도행전 16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을 자동적으로 주님의 교회 곧 신약성경 말씀에 계시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회심과 입회)은 두 개의 분리된 행동들이 아니라 동시적인 행동들입니다.

C. 사용된 이름들(C. Names employed)

여기에서 참된 모든 것의 특징을 인식하려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사용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연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를, 저는 이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철저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도록 도전이 되고 동기가 부여되기를 바랍니다.

1. 집합적으로. 참조: 사도행전 20:28; 디모데전서 3:15; 골로새서 1:18,24; 에베소서 1:22,23; 로마서 16:16; 등등(1. Collectively, cf. Acts. 20:28; 1 Timothy 3:15; Colossians 1:18,24; Ephesians 1:22,23; Romans 16:16; etc.)

그러나 (교회는) 집합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처럼 전체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를”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과 에베소서 1장 22-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서 바울은 로마

And you also have read the 22nd and 26th chapters of Acts that in two latter councils Paul himself is rehearsing a kind of conversion. You also read the 10th chapter about conversion of Cornelius Roman soldier, the 16th chapter of Acts, of course, about the conversion of Lydia the business woman and Philippian jailer. And that which saves all of these people automatically made them a part of the Lord's church, the church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So that's not two separate actions but the simultaneous actions.

C. Names employed.

A third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trying to recognize the earmarks of all that is genuine here are the names that employed. Now again this is not an exhaustive study. You want to, I hope, you will be challenge and motivate to do more exhaustive study and research on all these subjects extremely preferable to you.

1. Collectively, cf. Acts. 20:28; 1 Timothy 3:15; Colossians 1:18,24; Ephesians 1:22,23; Romans 16:16; etc.

But collectively, overall believers referred to as in Acts 20:28, Apostle Paul when he is speaking to the elders of the church at Ephesus. He refers to "the church of the Lord." Paul, when he writes Timothy in the First Timothy 3:15, refers to "the church a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And in Colossians 1:18 and in Ephesians 1:22-23 Apostle Paul refers to the church as the Christ's body over which he is its head. There is a relationship: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and the church is his body. In Romans 16th chapter 16th verse,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단순히 이 인용문을 사용하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교회는) 집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2. 개별적으로. 참조: 사도행전 11:26(이사야 62:2); 로마서 1:7; 고린도전서 15:6; 갈라디아서 3:26<2. Individually, cf. Acts 11:26 (Isaiah 62:2); Romans 1:7; 1Corinthians 15:6; Galatians 3:26>

이제 (교회는) 개별적으로 여러 해 동안 제자들, 무엇보다도 먼저, 그저 “제자들”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로 불렸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26절에서 처음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약 700년 전 이사야서 62장 2절에서 말한 이사야의 예언 곧 이방인들도 왕국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의 성취로 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 이름 곧 여호와와 입으로 정하실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이름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컬음을 받게”로 번역된 그 단어는 신약성경의 다른 몇 곳들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그 사례들은 모두 신(神)이 제정한(divinely) 일컬음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 제정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7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도”(saints)라고 언급된 이 용법을 자주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말하기를, “여보세요, 당신은 성자(성인)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용어)에 당혹해하실까요? “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성자가 아닙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쓰는 용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자가 된다는 것을

Paul when he writes to Christians in the church in Roma simply uses this citation, when he says, "All the churches of Christ salute you." So this is the terminology that is used collectively.

2. Individually, cf. Acts 11:26 (Isaiah 62:2); Romans 1:7; 1Corinthians 15:6; Galatians 3:26.

Now individually, for many years the disciples, the first of all, who were referred to simply is "Disciples." Those who believed in Jesus to obey the gospel were referred to disciples. Then you come to Acts 11th chapter and in the 26th verse is the first time you find the word "Christian" appeared. And it says, "And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And most scholars attributed this as a fulfillment of Isaiah's prophecy uttered about 700 years earlier in the Prophet Isaiah in the 62nd chapter the second verse referred to the fact that the Gentiles will also be a part of the Kingdom and he said that God would call his people by a new name, a name which the mouth of the LORD shall name. Here it comes to Acts 11:26 and the disciples were called. And that word translated "called" is only used several other places in the New Testament and every incidences referred to is divinely calling. Disciples were called divinely so Christians first at Antioch.

Now Romans 1:7 you find other terminology used for Christians. And you find this usage frequently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referred to "Saints." Now somebody came up to you and said, "Say, you're a saint." Would you be embarrassed by that terminology. "Oh, no, no. I'm not a saint." What's happened? See what you happened to our terminology. Now most people think being a saint means

여러분이 나보다 더 거룩하고, 여러분이 단지 거의 완벽하고 성자를 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자(성인)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가톨릭적인) 생각과 개념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자가 되기 전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다고 추정되거나 성자는 특정한 금액으로 구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추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은 일정 금액의 돈을 기부함으로써 여러분이 성자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저의 친구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은 성자이십니다. 성자란 단지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일 뿐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자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다른 많은 성구들에서도 발견하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언급되고 “형제들”로 언급된 본문들을 제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로 가족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것들은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사용된 용어들입니다.

D. 지켜진 의식들(D. Ordinances observed)

이제 신약성경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지켜진 의식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회는 두 가지 기본 의식들, 첫째로 침례를, 둘째로 주의 만찬을 모두 인정합니다.

that you're holier than I and you're just almost perfect and similar to saint.

A more common idea and concept of saint is first of all you have to be dead before you'll be a saint. All you have to have is attribute to you certain special deed or saint could also be purchased by a particular amount of money. That is what is happened to church history. You have to be dead first. Then you have to attribute to you certain special works of miracles. And then or otherwise it could be you could be made a saint by a certain amount of money you would give. But that is not a New Testament terminology. Every Christians, my friends, if you're a Christian, you're a saint. A saint is merely somebody who is set apart to serve and you are that as a Christian.

Also you find in the First Corinthians 15:6 and many many other places scriptures. I'm just exciting to suggest texts here where you're referred to all "Christian" and referred to "Brethren." That chose our relationship in the family as brethren in Christ.

In Galatians 3:26 the apostle Paul refers to us and says, "Children of God." He says, "For y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by faith in Jesus Christ. For as many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put on Christ." So these are terms that were used as regard to all this individually.

D. Ordinances observed.

Now a fourth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are the ordinances observed. All Christendom recognizes two primary ordinances as first of all baptism and secondly the Lord's Supper.

1. 침례 - 마태복음 28:18-20(마가복음 16:15,16); 사도행전 2:38; 8:38,39; 22:16; 로마서 6:3-5; 갈라디아서 3:27; 베드로전서 3:21; 등(1. Baptism - Matthew 28:18-20 (Mark 16:15,16); Acts 2:38; 8:38,39; 22:16; Romans 6:3-5; Galatians 3:27; 1Peter 3:21; etc.)

이제 저는 침례 문제를 장황하게 말하지 않겠고,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곧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지상 명령(대위임)에 차질 없이 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16장 15-16절 곧 마가가 기록한 명령(위임)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8장 38-39절, 사도행전 22장 16절, 로마서 6장 2-5절을 인용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아직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침례를 멋지게 묘사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약 여러분이 랭스두에이 성경(Douay Version)에서 로마서 6장 4절 각주에 있는 로마 가톨릭 번역을 읽으신다면, 로마 가톨릭 랭스두에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 바오로는 침수에 의한 침례의 초기(원시) 방식을 암시한다.”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랭스두에이 성경을 자주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침례 문제에 관한 이 모든 성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베드로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물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두 개의 모양들(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같은 모형들)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버림이 아니다, 몸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1. Baptism - Matthew 28:18-20 (Mark 16:15,16); Acts 2:38; 8:38,39; 22:16; Romans 6:3-5; Galatians 3:27; 1Peter 3:21; etc.

Now I'll not belabor the matter of baptism and disappoint responding the Great Commission we refer to it, Jesus' last word in Matthew 28:18-20. We've already quoted Mark 16:15,16, Mark's record of Commission. We also cited Acts 2:38. We also cited Acts 8:38,39, Acts 22:16, Romans 6:2-5. By the way we haven't referred to this yet. Here Paul beautifully describes baptism when he says. "Are ye ignorant, know ye not that so many of us as were baptized into Christ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Therefore we are buried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 that like as Christ was raised up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even so we also should walk in newness of life. For if we have been planted or united with Him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we shall be also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If you read Roman Catholic translation of the Bible Douay Version in the footnote to Romans 6:4, Roman Catholic Douay Version says this, "Here Saint Paul alludes to the primitive manner of baptism by immersion." I use that Douay Version many many times in sharing the gospel with the people. So we have all these scriptures on the matter of baptism. The First Peter 3:21 was that Peter cites Noah and his family how they were saved by water. He says which also after two likenesses that now save us not the putting away of the filth of the flesh, on the taking bad getting rid of physical uncleanness,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고 말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모든 성구를 사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물이 구원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침례에 의한 중생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침례가 구원받는 데 필수적이거나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침례 중생주의자들(침례를 받아야 중생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물이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같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같은 어떤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침례만이 구원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사실은 믿음만이 구원할 것이라거나 회개만이 구원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회심(체험)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을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쓴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리가 세 개인 의자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는 것이 격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회심과정(a conversion process)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함께 회심을 일으킵니다.

2. 주의 만찬 - 마태복음 26:26-28; 사도행전 20:7; 고린도전서 11:23-30;
참조: 사도행전 2:42(2. Lord's Supper - Matthew 26:26-28; Acts 20:7; 1 Corinthians 11:23-30; cf. Acts 2:42).

그 다음 지켜진 의식은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마태복음 26장 26-28절에 기록된 대로 배반당하셨던 밤에 위층 방에서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기록된 선교여행 중의 하나를 기억하시다시피,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행한 관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일 동안 머물렀던 이유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but he says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Now some people would say because of the fact that we use all these scriptures. "Well, you people believe in water salvation? Do you believe in baptism regeneration? You claim that baptism is essential or necessary to be saved. Then you must be a baptism regenerationist. You believe that water saves. We believe no such thing because the Bible doesn't teach any such a thing. It doesn't teach that baptism only will save, any more than faith only will save or repentance only will save. It is a part of conversion process. It's men that endeavored to separate inseparable. You know it's politely kind to ask the question, "Tell me what is most important leg of three legged stool." And so it is a conversion process. They all join in together.

2. Lord's Supper - Matthew 26:26-28; Acts 20:7; 1 Corinthians 11:23-30; cf. Acts 2:42.

Then we come to the Lord's Supper. We're all familiar of course with initiation by our Lord in upper room at night which was betrayed as recorded in Matthew 26:26-28. In the New Testament we find the practice the apostle Paul, you remember one of the missionary journey recorded there 20th of Acts 7 verse, had come to the city of Troas. They tarried there 7 days. And the reason that they tarried 7 days is because he says, "And up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met together to break bread, Paul discoursed unto them and intended to depart on the morrow and continued his speech until midnight." So Paul

형제들이 주의 만찬을 지키려고 모일 때까지 거기 드로아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30절에서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의 합당한 준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결정적인 논의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곧 오순절 직후에 3,000명을 더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읽은 후 42절에 와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기하학을 아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저는 기하학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동일한 것에 동등한 것들은 피차 동등합니다.”(Things that are equal to the same thing are equal to each other). 여러분들 중에는 그 기하학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이 본문에 적용하시면, 여러분은 동일한 것, 즉 동일한 것에 동등한 것들로 끝을 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제가 이것을 여기에 적겠습니다, 꾸준히 계속하였다(힘썼다), 꾸준히 계속하였다(continued steadfastly)를 보십시오. 그것은 그것들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동등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친교와 떡 떼와 기도들을 꾸준히 계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것에 동등한 것들은 피차 동등합니다. 오늘날 종교계에서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 특정한 시기로 주의 만찬의 준수를 법으로 제한시킨다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일부는 주의 만찬을 한 달에 한 번 준수할 것입니다. 일부는 반년마다 그것을 준수할 것입니다. 일부는 그것을 일 년에 한 번 준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본적 이유는 “음, 너무 자주 준수하면 혼해빠지게 한다(매너리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궁금합니다. “그것이 매주일 설교하는 것이 너무 혼해빠지게 한다는 뜻인가? 아, 그것이 매주일 기도하는 것이 너무 혼해빠지게 한다는 뜻인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매주일 헌금 걷는 것을 너무 혼해빠지게 한다고 말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교의 초점이 예수님의 죽음, 장사(葬事), 부활에 관한 바로 그 중심에 있음을 압니

waited there at Troas until the brethren had assembled together to observe the Lord's Supper.

Also we find in the First Corinthians 11:23-30. For the apostle Paul gives most definitive discussion of this matter of the proper observation of the Lord's Supper and significance to we Christians. I like Acts 2:42 also. Acts 2:42, you remember right after Pentecost, we read 3,000 were added, then we come to 42nd verse and says, "And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and fellowship, and in breaking of bread, and in prayers."

When I was in school, I didn't do too well in geometry. But I do remember one thing, I'll start geometry like this, "Things that are equal to the same thing are equal to each other." Some of you remember that geometry? Now if you apply to this text, you'll end up with same thing, things that are equal to the same thing. Here you have an, I'll get this to write here, continued steadfastly, continued steadfastly. That's the thing which they are equal. Now what's equal to this?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fellowship, breaking of bread, and prayers. So things that are equal to the same thing are equal to each other. I know that today the very common practice in religious world is to legislate the observance of the Lord's Supper to particular times. Some would observe it monthly; some would observe it semiannually; some would observe it annually. And usually the rationale is, "Well, too frequent observance makes common." I often wonder, "Does that mean that preaching every Sunday makes too common? Ah, does that mean that praying every Sunday makes too common? How many churches would say that taking offering every Sunday makes too common? And yet we come to the very center to focal point of all Christianity is about death, burial, resurrection of Jesus.

다. 우리는 너무 흔해빠지게 하는 것은 너무 잦은 준수 때문이라고 말하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동일한 것에 동등한 것들은 피차 동등합니다. 그들은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도들의 선례(관례)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교회의 특징입니다.

E. 정치(조직 및 관리)(E. Polity (organization and government))

다섯 번째 특징은 정치입니다. (교회)정치(Polity)라는 단어는 단순히 조직(organization)이나 관리(government)를 의미합니다. 나는 우리의 교회들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은 오늘날 문제들에 놀아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성경 교회 정치에 관한 연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문제들, 지역 교회들에서 촉발된 정치, 지역 교회들에서 촉발된 긴장들이 교회에서의 다양한 기능들과 교회에서 이들 여러 가지 기능들과 직책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거할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와 신약성경교회 관리는 대부분의 회중(교회)들에서 대부분의 권력 투쟁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약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가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 구성원 - 사도행전 2:41-47(1. Members - Acts 2:41-47)

이제 신약성경교회 조직에서 기본단위, 기본단위는 구성원들입니다. 다시 우리가 인용한 사도행전 2장,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41-47절은 여러분을 구성원들로 삼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역 교회에서 사도직과 예언자직 밖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직무는 사도행전 6장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We would say and conclude that it's too frequent observance to make too common. No friends. Things that are equal to the same thing are equal to each other. They continued steadfastly. This is the apostolic precedence we have in the New Testament. This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Testament church.

E. Polity (organization and government).

A fifth characteristics is polity. The word, polity, simply means organization or government. I'm convinced most problems in our churches and our churches are played with problems today. It's because we have ceased studying the matter of New Testament church polity. I think most all the problems, the politics cropped up in the local churches, and the tensions cropped up in local churches is due to the fact that we do not understand what the New Testament teaches on the various functions in the church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mong these various functions and offices in the church. It will eliminate, a proper understanding and New Testament church government will eliminate most power struggles in most congregations. But if you don't understand and appreciate what New Testament teaches on this subject, you're going to have problems.

1. Members - Acts 2:41-47.

Now the basic unit, basic unit in the organizati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are the members. Again Acts 2 we cited that 41-47 that, which makes you Christians, makes you members. The first function that we find here outside the apostolic office and prophetic office that in the local church here were those who serve in the particular function and meet a particular need according to the 6th chapter of the Book of Acts. You remember here the apostle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밑도 끝도 없는 사역들 곧 과부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로 바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일부 헬라파 과부들은 자신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받는 구제에 반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중을 소집하여 말하기를, “자 형제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기도하는 임무를 방치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작은 임무 곧 덜 중요한 임무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슬기로운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이 특별한 사역들을 수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뒷부분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사도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식탁 봉사에 쓰는 것은 어설픈 청지기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게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맥락이 같은 이해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정체성 위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도자 설교자들은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자신들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알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장로들은 교회에서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집사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때때로 겹치는 기능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능들의 하나하나를 지정하셨고 각각의 기능에 우선적인 책임영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맡은 사람이 그 책임영역의 필요를 제대로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다른 일들을 행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신학)대학의 학장이었을 때, 저는 복도를 걷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때때로 너무 정확히 쓰레기통들이 놓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쓰레기통들을 볼 것이고, 학장으로서 저의 품위를 다해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그 휴지들을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지보수담

have been busy with task of meeting the needs of widows that never ended ministries. And some Greek widows thought they'r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favor of the Hebrew widows. And Peter called congregation and he said, "Now brethren, it is not fit that we should leave our task of the study of God's word, preaching, and praying." He didn't take that was the mini of task that was a less important task. It is vitally important task. So much so they know the clever men he said, "You should select among them, men who were full of the Holy Spirit, men of honest report, men of wisdom." That's the clever men who took to perform this particular ministries. That Peter in the back was saying is "poor stewardship for we apostles to spend all our time waiting on tables because that's not what God called us to do." And so it's same understanding that we have to have local church. There is an identity crisis in our church these days. Most Evangelist preachers don't know what the function is anymore because so many demands made upon them. Most elders don't understand what the function is in the church. Most deacons don't. And you have this identity crisis, too.

Now you find overlapping sometimes functions. But God has ordained every one of these functions and given each one a primary area of responsibility. And a man of function is properly met that area, then you won't have time to do all these other things. Let me illustrate. When I was a president of a Bible College, I strolled on the hall some days. And I found our students just for too accurate sometimes and heading the waste disposal containers. Now I would look at that the waste things and saying well of being meet my dignity as a president to go over them down to students to pick up that scrap papers and throw away in waste disposal.

당자들에게 급여를 지불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복도를 걸을 때면 자주 휴지들을 주어 쓰레기통에 넣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제가 돌이켜 캠퍼스 곳곳과 기숙사들을 돌아다니며 낙엽들과 주변의 모든 것을 청소한다면, 이사님들이 불려서 야단을 칠 것입니다. “보세요, 하비(Harvey)님, 그것은 당신에게 맡겨진 일(job description)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을 처리할 유지보수담당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타자를 많이 쳤지만 평생토록 타자를 쳐왔습니다. 다시 이사님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비(Harvey)님, 당신은 우리에게 있는 그 비서실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저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신학) 대학에서 다년간 강의를 해왔고 여전히 성경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¹⁾ 하지만 저는 저의 모든 시간을 (주당) 14시간에서 16시간을 강의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사님들이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하비(Harvey)님, 강의하라고 우리가 당신을 최고경영자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강의를 맡은 교수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를 주목해주시시오. 저는 무엇인가 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요한 책임 영역은 최고 관리자의 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의 기능이 일부 접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습니다. 집사들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교회들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2. 집사 - 사도행전 6:3-6; 디모데전서 3:8-13; 등(2. Deacons - Acts

1) 역자 주: 20세기 초 진보 신학자들이 대다수 신학교들(colleges, seminaries, universities)을 장악해버린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20세기 초중반에 미국 전역에 수많은 성경 대학들(Bible colleges and Bible seminaries)이 세워졌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학생모집의 수월성을 위해서 이들 대학들 대부분이 기독교대학들(Christian colleges and Christian universities)로 개편되었다.

Whom besides that we paid maintenance crews for? No, many many times I walked down corridors and picked up scraps and put in waste disposal then. But now if I turn and go all over the campus and the dormitories cleaning up all the leaves and everything in around and trustees would call on the carpet, "Hey, Harvey, that's not your job description. That's not we're paying you for we've got a maintenance crew handle that." Also I did a lot of typing but I've been all my life time typing. Again the trustees said, "Harvey, what do you think we have that secretarial pool for? Again I love to teach. In fact I have taught classes in the Bible Colleges a number of years and still teach classes in the Bible College. But I spend all my time teaching 14 to 16 hours. The trustees would call me again and said, "Now Harvey, that is not what we called you as CEO for. We have faculty to take care of that." So you see here. I can do something these other things. But my primary area of responsibility is to meet the chief ministerial officer. To function that capacity may be some overlapping. So this in the church, elders have a particular function, Deacons have a particular function. Evangelist has a particular function. Now we have identity crisis today. And that causes a lot of confusion in our churches.

2. Deacons - Acts 6:3-6; 1Timothy 3:8-13; etc.

6:3-6; 1Timothy 3:8-13; etc)

그러므로 장로님들, 말이 난 김에 집사님들, 여러분은 디모테전서 3장 8-13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들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3. 장로 - 디모테전서 3:17; 디도서 1:5-9; 등(3. Elders - 1Timothy 3:17; Titus 1:5-9; etc)

4. 전도자 - 디모테전서와 디도서(4. Evangelists - 1 and 2 Timothy and Titus)

장로들과 동일하게, 디모테전서 3장은 감독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9절 및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여러분은 그들을 장로들이라고 말한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여러분은 그들을 목사(장로목사, pastors)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9절에서 여러분은 장로들과 감독들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교환가능하게) 사용되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동일한 기능에 대한 언급으로 같은 의미로(교환가능하게) 사용된 직책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관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체성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커지고 있고, 또 점증하는 현상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단지 보여줍니다. 설교가들은 목사(장로목사, pastors)들로 언급되어져왔습니다. 자 그것은 목회자들이 목사(장로목사, pastors)들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자격이 있고 회중이 그를 목사(장로목사, a pastor)로 섬기도록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전도자나 설교자가 자동적으로 그를 목사(장로목사, a pastor)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그리고 만일 전도자가 역할(기능)해야 하는 전도자로서 정말 역할(기능)을 다하고 있다면, 그는 목사(장로목사, a pastor)임을 말해주고 있는 모든 일을 행할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So the elders you, by the way deacons you read about the First Timothy 3:8-13. They performed particular ministries. By the way they brought in existence to meet a need, not to fill in office, but to meet a need.

3. Elders - 1 Timothy 3:17; Titus 1:5-9; etc.

4. Evangelists - 1 and 2 Timothy and Titus.

Same as the elders, and the First Timothy the 3rd chapter refers to bishops and Titus 1:5-9 and the First Peter 5:1 you'll find them referred to as elders; also Ephesians 4:11 you will find them referred to as pastors; Titus 1:5-9 you will find the terms elders and bishops used interchangeably. These are titles that were used interchangeably with reference as same function. It just show you how great identity crisis is today increasingly I'm observing and is becoming increasing phenomena. Preachers have been referred to as pastors. Now it's not that ministers cannot serve as the pastors. If he's qualified and the congregation sees fit to select him to serve as a pastor, but by the very fact that evangelist or preacher does not automatically make him a pastor, and if a evangelist is really functioning as an evangelist should function, he won't have time to do all the work that is telling being a pastor.

다.2)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 이 용어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장로, 성숙하고 친절하며 지혜로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목자(a pastor) 곧 양 떼를 치고, 양 떼를 인도하고, 양 떼를 먹이고, 양 떼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그는 회중을 감독하고 회중을 치리하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다시 감독이 되어 지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의 개념(계급으로써의 감독)은 신약성경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들에서 그들은 사람들 위에 있는 교회의 것들을 감독 혹은 장로와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철권으로 통치하고, 또 그는 명령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방방 뛰면서 타고난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에 대해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God's heritage, 벰전 5:3)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약 11년 전 성지를 방문했을 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2) 역자 주: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인 칼뱅과 존 녹스가 평신도 장로 대의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설교자, 목회자, 사제(제사장), 치리자, 감독자들은 모두 장로들이었다. 지금도 가톨릭교회, 정교회, 성공회, 미국의 감리교회 등의 목회자들은 사제(제사장)라 칭하는 장로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평신도 장로제도 자체가 없다. 장로를 사제로 바꾼 것은 가톨릭교회이고, 사제를 목사(pastor)로 바꾼 것은 종교개혁자들이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Martin Bucer)가 가톨릭교회가 1000여년 이상 사용해온 '사제'(priest, 제사장)라는 호칭의 대안으로 '목사'(pastor, 목자)라는 칭호를 주장하였는데, 칼뱅 등이 수용하였다. 종교개혁 1세대들이었던 루터와 츠빙글리도 이 호칭을 선호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개신교) 예배가 더 이상 매일 바치는 '미사'(제사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특히 개혁교회들에서는 주의 만찬의 횃수를 연 24회 미만으로 확 줄였고, 제사(제물) 개념을 제거하였다. 그 때문에 '사제'라는 칭호가 그리스도교 예배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참고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가톨릭교회 사제 출신들이었다. 한국 그리스도교(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목사라는 칭호는 대체로 'pastor'(장로목사)를 뜻한다. 따라서 이 강연에서 하비 브림(Harvey Bream)이 말하는 장로목사(pastor)는 목회자의 기능인 설교와 목회뿐 아니라, 장로의 기능인 치리와 감독의 기능까지를 겸하는 자 곧 개신교회들에서 호칭하는 '목사'를 뜻한다. 미국 그리스도의교회들에서는 치리와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로들이 대체로 1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 선출되는데, 설교자 또는 목회자들이 장로선거 때 입후보하여 뽑혔을 때를 가정하여 장로목사(pastor)라 칭한 것이다. 미국 그리스도의교회들에서는 목회자들의 칭호를 'pastor'라고 하지 않고, 'minister', 'preacher', 'evangelist' 등으로 칭하며, 장로들의 치리와 감독기능을 제한한다. 장로직에 뽑힌 목회자들에 한해서 pastor라는 호칭이 가능하다.

And the same way here what this term signifies actually is an elder, a man of maturity, friends, wisdom, grounded in faith. He's also referred to as a pastor, one who can shepherd the flock, guide the flock, feed the flock, protect the flock. He is referred to as a bishop because he exercises overseeing over the congregation, rule over the congregation. But again the American concept of ruling over being a bishop is not the New Testament concept. In our churches they mention church things over men as a bishop or elder and pastor and then he rules with an iron fist, and he rules by mandate. And he has an inherent authority engaged in jumping and jumping. That is not New Testament concept. Peter explicitly said to what he says, "Not as lording it over God's heritage, but it is an ensamples to the flock."

I learned a great lesson when I made a visit to the holy land about 11 years ago.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베두인들이 그들의 양과 그들의 또 그들의, 그들의 염소를 이끌고 목초지로 나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오래된 낙타 가죽 움막과 천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옛날 세계로 돌아간 것 같으신지요?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것들의 꼭대기마다, 그 낙타 가죽 천막들마다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한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허, 허,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 베두인 양치기들이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었고, 양떼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자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장로들, 목사들, 감독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모범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의 삶에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너그러우며,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러한 리더십에 복종하고 그러한 모범을 따르는 교회(회중)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5. 사도직과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 고려할 사항(중단)[5. Consideration of the apostolic and prophetic offices (ceased)]

그러면 여러분은 사도직을 고려할 문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도직은 대중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분명히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직은 계시가 성취된 후에는 추가 계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된 예화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건축할 때, 여러분은 비계를 세웁니다. 비계는 여러분이 건물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건물을 완성한 뒤에는 비계가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완성된 건물을 들

I strolled every morning, that is, we would go out. I'd observed Bedouins as they're leading their sheep and their and their, their goats out to pasture. Now, by the way, it's interesting. They still have old camel skin huts and tents over there. You think you're really back to an old world? But I noticed. It was my observation that on every one of those tops, on every one of those camel skin tents it was for tuning television antenna. Heh, Heh, They had that. But here was my observation, these Bedouin shepherds were out in front leading and the flock was following and there....driver. That is not the biblical concept of the shepherd. And I have contended this. You have elders, pastors and bishops. If these men who by their examples are vitality in their lives morally and spiritually, their knowledge of God's Word, their liberality, their faithfulness, then you'll have a congregation that is willing to submit that type of leadership and follow that kind of example. That's what the New Testament talks about here.

5. Consideration of the apostolic and prophetic offices (ceased).

So then you have the consideration of apostolic office and of course the apostolic office obviously cannot be perpetuated contrary to many popular ideas because being an apostle you have to be an eyewitness of resurrected Lord. And the prophetic office ceased because after the revelation was completed, there is no need for additional revelations. And we'll get in that a little bit more. But I use the old illustration. When you build a house of building, you rack scaffolding. That helps you to get structure up. Then after you have completed the structure, you won't need the scaffolding standing. Your neighbors will go around and talk about here.

러싼 비계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있으면, (건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계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제거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시가 주어진 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계시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F. 권징 또는 규약(헌장)[F. Discipline or rulebook (constitution)]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신약성경교회 특징들의 여섯 번째 특성인 권징 또는 규약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교회의 유일한 헌법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헌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영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신약성경교회가 어떻게 장로들과 집사들 등을 선출했는지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편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편의의) 영역들에서 교회는 조례를 갖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이 믿음과 교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신약성경교회의 헌법이 됩니다.

1. 디모데후서 3:16-17; 2:15; 등(1. 2 Timothy 3:16-17; 2:15; etc)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를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앞부분에서 다뤄진 장의 뒷장으로 돌아가 2장 15절에서, 저는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기서 말한 20세기 교회들에서 가장 필요한 훈계 중 하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한 같은 장의 앞부분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것을 말했습니다. “네가 많은

And the continuing erection of that scaffolding around your completed structure wouldn't mark beauty. So the scaffolding is removed after the structure is completed. So after the revelation has been given, there is no more need for the prophetic office. No more revelations were needed.

F. Discipline or rulebook (constitution).

And we'll come to that herein are sixth character of New Testament church characteristics: Discipline or rulebook. By the way the only constitution for the New Testament church is New Testament. Many of our churches are in drawing up constitution. I can draw up bylaws. Could bylaws govern the areas that the scriptures do not speak? Many areas are, for instance, we don't know how the New Testament church were about the selecting elders and deacons so far. That's the area of expediency. So in these areas for a congregation, that's well to have bylaws so all things will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But were the scripture speak faith and doctrine, that becomes the constituti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1. 2 Timothy 3:16-17; 2:15; etc.

Second Timothy 3:16-17, I like where the apostle Paul says, "Every scripture inspired by God is also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which is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lete and furnished completely unto every good work." In Second Timothy, in the second chapter back going back to chapter earlier than, 15th verse, here is one of most needed admonitions in the 20th century churches I believe where here Paul says to Timothy, "Study or give diligence to present yourself or to shew thyself approved 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handling a right the word of truth." Also in Second Timothy 2:2 earlier in that same chapter Paul also said this to Timothy,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것들을 짚어가며 제가 직접 메모한 이 모든 성경말씀들로 디모데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탁할 때, 디모데후서 4장에서 1절부터 시작하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와서 거의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다서 3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리고 물론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시작되는 말씀에서 자신의 요한계시록을 끝냅니다. 이 말씀들은 자신이 기록한 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 책의 말씀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는 생명의 책에서 제하여 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후일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어떤 계시도, 저의 친구들이여,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모순될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이미 역시 계시하신 것과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The things that thou hast heard of me among many witnesses, the same commit thou to faithful men, who shall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It is charge to Timothy in the Second Timothy the fourth chapter by the all this scripture down my own jotting down to go over them. In Second Timothy the fourth chapter beginning the first verse when Paul charge Timothy, "To preach the word;" he said, "be urgent in season,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all longsuffering and teaching. For the time will come when men will not endure the sound doctrine; and having itching ears; and will heap to themselves teachers after their own lusts and wi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will turn aside unto fables." Also we find here in the Second Peter the first chapter the 20th and 21st verses, the apostle Peter says this, "No prophecy of the scripture is private interpretation. For no prophecy ever came by the will of man, but men's faith from God being moved by the Holy Spirit." Then and Galatians 1:6-12 the apostle Paul said this, it's said, "We, or an angel from heaven, should preach unto you any other gospel than which we have preached, let him be anathema." He come along again later on he says almost same meaning. He says, "If any man preaches unto you any other gospel than which ye have received, let him be anathema." In Jude third verse, we read this word, "Contend earnestly for the faith once for all delivered unto the saints." Then of course John concludes his Revelation in the 22nd chapter begins 18th verse. These words specifically referred the book which he had written. But the principle is applicable. He says, "If any man adds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it should be added to him the plagues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And if any man shall take away from the words of the book, he shall be taken out of the book of life"

And so here there is no more revelation. And any way, any revelation that claims to be a latter day revelation, my friends, cannot be in contradiction to what the Holy Spirit has already said. The Holy Spirit will not contradict himself. He is not going to give a revelation different from that which he has also already revealed. Otherwise, gives works not be as it refers to as the word of truth.

라고 언급된 대로 일들이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모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진리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권징 또는 규약'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입니다.

2. 전적 충분(2. All sufficient)

그것은 전적으로 충분합니다. 더 갖는 것은 너무 많고, 덜 갖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성경말씀과 동일한 것을 담고 있다고 공언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존재하는 신조들, 책들, 규율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공통 합의를 위한 단계들이 아닙니다. 변동과 분열과 혼란의 원인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실천 모두에서 유일하고 전적으로 충분한 규약인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공통의 집회 장소입니다.

G. 그것의 통일성(G. Its unity)

1. 개 교회적으로 - 참조. 고린도전서 1,3,12장(1. Locally - cf. 1 Corinthians 1,3, and 12)

이제 그것의 통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된 114개 중 85개는 개 교회를 가리킵니다. 저는 신약성경에 있는 수많은 참조들 중에서 여러 개의 참조들을 인용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종교 단체들 사이 혹은 교단들 사이의 일치(연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치에 대한 그것의 참조(언급)들, 일치에 대한 그것의 권고들은 거의 독점적으로 개 교회들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일치가 시작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 싸우스이스트그리스도(인)교회(Southeast

Truth can not contradict itself. It still is regarded as truth. So God gave the revelation. So 'Discipline or rulebook' for the church is God's completed revelation

2. All sufficient

It's all sufficient. Anything that has more has too much, anything with less does not have enough and that which professes to contain the same as the scriptures is unnecessary. And so the creeds, books, discipline that in existence today were never be a phasis for common agreement among believers in Christ. There have always been the sources for variation, division and confusion. And so here we come to the Word of God as only and all sufficient rulebook both in faith and practice. The Word of God, the Bible is the only common meeting ground upon which all believers can stand.

G. Its unity.

1. Locally - cf. 1 Corinthians 1,3, and 12.

Let's look now at its unity. 85 out of the 114 usages of the term "church" in the New Testament refer to the local congregation. And I cited several references out of multiplicity of references in the New Testament. Now the day when you're here most people talk about unity. They're talking about unity among or between religious groups and denominations. New Testament does not know anything about that. Its references of unity, its admonitions of unity are almost exclusively the unity within local churches. That is what unity must begin. Here in the Southeast Christian Church

Christian Church)와 모든 개 교회에서의 일치에 대한 권고는 개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최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 전체의 이들 개 교회들은 모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에서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로마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 교회들은 모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2 예, 모두가 하나였다. 어떻게 그리고 왜? 참조 에베소서 4장; 요한복음 17:17-21; 등(2. Yes all were one, how and why? Cf. Ephesians 4; John 17:17-21; etc)

그 답은 바울이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유지하지 못한 그들에게 훈계한 에베소서 4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런 다음 유지되거나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일치 위에서 강령을 말하거나 제공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 교회들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강령을 존중하는 한, 하나 됨이 득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풍같이 로마 제국을 점령하였습니다.

자주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요한복음 17장 17-21절은 유용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이상주의적인 기도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 아니요, 저의 친구들이여, 바로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21절에서 기도하신 이 일치의 수단을 주신 제자들 앞에서 위층(다락) 방과 겟세마네동산 사이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위대한 중보기도는 그것(일치)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and every local church exhortation of unity is that which is to be found within the local church. That is the best here. But all these local churches of all of the empire were one. They're united. How can you explain such a phenomena in environment of our experience today? All of these churches scattered all of the Roman Empire were one. How and why could that be?

2. Yes, all were one, how and why? Cf. Ephesians 4; John 17:17-21; etc.

The answer is found in the fourth chapter of Ephesians where Paul admonished to them never maintained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Then it goes under to tell and give the platform upon which such a unity that can be maintained or sustained. He says, "For there is one body, even as there is one spirit, even as ye are called in one hope of your calling,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above all, and through all, and in you all." And as long as the early Christians of all these local churches respected the divinely given platform for unity, oneness prevailed. And they took the Roman Empire by the storm.

Many times, people say about Jesus' prayer, "John 17:17-21 was a prayer in utility. It was an idealistic prayer." Oh no, my friends, in that very prayer, that great intercessory prayer which Jesus uttered somewhere between the upper room and Garden of Gethsemane in the presence of disciples he gave the means were by this unity for which prayed in John 17:17-21 can be made it possible. Go back with me 17th verse, Jesus was praying for disciples this and says, "Father, sanctify them through thy truth: thy word is truth."

은 진리니이다.” 그런 다음 20절로 내려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도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치가 될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3. 그들은 앞서 언급한 특성의 여섯 가지 모두에서 일치하였다(3. They were one in all six of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그래서 그들은 앞서 언급한 특성의 여섯 가지 모두에서 일치하였습니다.

4.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였다. 그들을 그리스도께 결합시킨 것은 자동적으로 그들을 서로 결합시켰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세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성취되고 있었다(4. All taught and practiced the same thing. That which joined them to Christ automatically joined them to one another. Thus God's eternal purpose was being accomplished - the world's restoration to fellowship with God).

모두는 같은 것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합류시키고 있고, 그들을 자동으로 서로 합류시킵니다. 주목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오순절 날 행한 것 곧 이런 저런 사람들이 행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같은 신약성경을 읽고, 모든 회심 사건들에 대해서 읽고 계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합류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여러분은 자동으로 그리스도에게 서로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본성상 일치는 무엇보다도 수직적이어야 합

Then dropped down 20th verse, He says, "Father not only for these do I pray, but also for all men who shall believe on me through their word whose apostles were which word is truth." That could be the basics. "Therefore, Father, they all may be one; as thou, Father, art in me, and I in thee, that they also may be one in us: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thou hast sent me." The means to be unity for which Jesus prayed is the acknowledgement of the Word of God as the only final authority.

3. They were one in all six of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So, they were one in all six of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4. All taught and practiced the same thing. That which joined them to Christ automatically joined them to one another. Thus God's eternal purpose was being accomplished - the world's restoration to fellowship with God.

All practices same things. They're joining them in Christ and automatically joining them to one another. Notice. If you read your New Testament, you do what they did on Pentecost, one and the others did. And you read same New Testament, and you do the same thing that you read in all the conversions, you do the same thing that which was joining each one and you to Christ would automatically join in one another. Unity by great nature, first of all, must be vertical

니다. 그러면 일치는 놀랍게도 더 바람직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호소하는 일치입니다.

결론(CONCLUSION):

환원운동의 역사는 일차적으로 신약성경교회를 탐구하고, 일종의 결과로써 널리 행해진 그리스도교(그리스도인) 일치를 가지고 신약성경교회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가 환원주의자들의 방법을 조사할 때, 그는 일치가 그들의 본래의 목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이 일치를 위한 수단을 탐구함에 있어서 유일한 성경적, 따라서 실제적인 근거는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에 담긴 교리들과 의식들(침례와 주의 만찬)과 열매들에서 드러난 교회의 복원을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치(연합)를 그들의 배타적인 목표로 삼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성경적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에 호소합니다. 그들은 진리보다 일치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들은 일치가 첫 번째이고, 진리가 두 번째입니다.

환원운동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고 왜 회복되어야 하는지가 밝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계가 일치를 외치고 있고, 분열의 죄상을 점점 더 개탄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에 비춰서, 형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유일하게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일치의 수단이라는 것과 규범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을 위해 실용성과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오늘 밤은 이쯤에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 밤 우리는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교회에 잘못되었습니까? 우리의 세계 역사의 중세시대의 대 배도(背道), 여러분은 내일 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곧 개

and then it admirably becomes more desirable. So that is the unity for which we plead.

CONCLUSION:

The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is primarily a history of the search for the New Testament church and the endeavor to restore it with Christian unity prevailing as a consequence. When one examines the method of the restorationists, he notes that unity was their original objective. In their search for a means to this unity, it became their conviction that the only scriptural and thus practical basis was through a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Lordship of Christ and the authority of His Word and a restoration of the church revealed therein in its doctrines, ordinances, and fruits.

Today many make unity their exclusive objective and resort to other than scriptural means of attaining it. They are concerned with unity first and truth second.

To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the Restoration Movement, it is essential that there be pointed out that which is to be restored and why. In light of the fact that our world is clamoring for unity and more and more deploring the sin of division and that this is purportedly being fulfilled in the modern ecumenical movement, Brethren, it is imperative that the world be shown that this is the most feasible, the only practical and scriptural means to unity; that the return to scripture as normative has practicality and validity for today.

We're going to conclude this statement here tonight. But tomorrow night we're going to discuss 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 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 The great apostasy of the medieval period of our world history, you might want to study your outline and preparation for tomorrow night.

요를 공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보시는 인용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정교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내일 그러면 '돌아가는 길'이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교(개신교) 종교개혁, 루터, 츠빙글리, 녹스, 칼뱅, 헨리 8세 왕 및 기타 많은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교단들은 어디에서 왔고, 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일 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폐회기도(Closing Prayer)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우리 안에 동정심과 정직함과 진리 탐구심을 심어주신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열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고 명한 그 빛나는 사람들처럼 탐구적이 되기를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 매일 성경 말씀들을 상고하여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또 오늘 밤 우리의 논의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We will go in the more elaborate discussion, many the things you find cited and hopefully we will also tomorrow then treat the subject road back. And we will deal with Protestant Reformation, Luther, Zwingli, Knox, Calvin, King Henry the VIII and many these others. And where are the various denominations came from and why they came in existence? That's for tomorrow night, 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 and the road back. Shall we have a word of prayer?

Closing Prayer:

Thank you Father for revealing yourself to us. We're such simplicity and clarity. How grateful we are Father you created within us compassion, honest, searching out of truth. And we pray Father that as we study together, our hearts will be open and will become acquisitive as those brilliant ones Paul commanded having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May we be like them to search the scriptures daily to see what are these things. Be so. To that and bless our discussion tonight. We ask in Jesus name. Amen.

환원운동사(RESTORATION HISTORY) 신약성경교회로의 환원(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제2부 배도(100-1517) [THE APOSTASY(100-1517)]: 무엇이 교회에 잘못되었는가?(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

아, 하지만 모든 것이 가장 신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젯밤에 여러분은 매우 집중해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속 집회가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라는 이 주제를 아주 신속히 복습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전적으로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주후 30년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것과 이 교회, 곧 신약성경 속의 교회를 그 이상을 따라 회복하려는 우리들의 오늘날의 노력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우리는 바로 그 환원이란 용어가 무언가가 손실되었음을 함축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조리법에 대한 두어 가지 예화를 사용하였고, 그 중 하나는 우리가 그 조리법을 다시 찾았고, 그것을 회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우 우리는 같은 재료, 같은 방법, 같은 양을 사용하여 우리는 처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돌아와서 신약성경에 있는 교회에 대해 읽을 수 있고, 그것의 가르침과 설교와 우리가 말하고 실천했던 방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우리는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위조품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예화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위조품을 연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들이기보다, 우리는 단지 진품인 정품을 취하고 진품임을 나타내는 모든 표시들을 식별할 수 있다면, 대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위조품을 모조리 식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RESTORATION HISTORY 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PART II THE APOSTASY (100-1517): 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

Ah but all is not the most exciting, but yet you folks last night were so attentive. And we hope that this series is being extremely informative and helpful. Just a quickly review we look at this theme, "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 Last evening we discussed together how it all began. We looked back to Pentecost 30 AD in Jerusalem,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there, and our efforts today to restore this church,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after that ideal. And Last night we indicated the very term restoration implies that something's been lost. We used a couple of illustrations about the lost recipe which one we rediscovered that recipe, restored it. Why, we use the same ingredients, the same way, the same amount we have the same result as in the beginning. And so is the church. We can come back and read about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and restore its teaching and preaching, the way we talked and practiced. Why, we have the same result today. We also used illustration about how to recognize the counterfeit. Rather than taking enormous time to study all the counterfeits, we concluded that if we just took the original that which was genuine and we could recognize all the earmarks that which was the genuine, automatically by contrast, we will recognize all that is counterfeit. So again

의 제안은 기꺼이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계시된 교회를 연구하고 진품인 것을 나타내는 모든 표시들을 식별하며, 그것이 말한 것, 그것이 실행한 것, 그것을 실행한 방법을 식별하려는 것입니다. 그 경우 대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위조품을 모두 식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될 필요가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의 특성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힘썼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함께 숙고한 여섯 가지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조입니다. 두 번째는 입회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집합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용된 이름들입니다. 네 번째는 준수한 의식들(침례, 주의 만찬)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정치 또는 조직 및 관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것의 권징과 규약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누렸던 일치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밤 지금 우리의 두 번째 강연의 주제인 “무엇이 교회에 잘못되었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서론: 신약성경 규범으로부터의 이탈(INTRODUCTION: The Departure from the New Testament Norm)

정의 - 타락; 믿음의 원칙들을 저버림(Definition - The falling away; the abandonment of principles of faith).

예언됨 - 사도행전 20:28-31; 디모데전서 4:1-3; 디모데후서 4:1-4; 데살로니가후서 2:3-7(Foretold - Acts 20:28-31; 1 Timothy 4:1-3; 2 Timothy 4:1-4; 2 Thessalonians 2:3-7).

우리는 오늘 저녁에 대략 주후 100년부터 서기 1517년까지 배도에 관한 분야를 다룰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암흑기 또는 우리의 세계사의 중세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은 문자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쇠사슬에 묶인 책이 되었기 때문이며, 물론 성경 사본들은 손으로 정밀하게 필사되어야 했다는 점을

our proposition is willing to go back to New Testament and to study the church revealed therein and to recognize all the earmarks that is genuine, what it talked, what it practiced and how practiced it. Why, automatically by contrast, we will recognize everything that is counterfeit.

And look the church that needed to be restored. We tried to see we could not find its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x characteristics that we considered together last night. First of all is creed; second is terms of admission; third names that were employed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fourthly ordinances that were observed; fifthly church polity or organization and government; and sixthly its discipline or rulebook. We discussed the unity that the early church enjoyed and how it made possible. Then we come now tonight in the second our series to the theme, "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

INTRODUCTION: The Departure from the New Testament Norm

Definition - The falling away; the abandonment of principles of faith.

Foretold - Acts 20:28-31; 1 Timothy 4:1-3; 2 Timothy 4:1-4; 2 Thessalonians 2:3-7.

And we're going to this evening cover the area of the apostasy from about the year 100 AD to the year 1517 AD. Historians refer to this period of time as the Dark Age or the medieval period of our world history. The reason for that being that during this period of time the Bible became both literally and figuratively a chained book, recalls, of course, that copies of the Bible had to be rigorously copied by hand.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매우 희귀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묶였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문자 그대로 쇠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비유적으로도 교회가 무류한 해석 없이는 여러분의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무류한 해석은 물론 교회와 사제들의 대표자들을 통해 왔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흑시대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의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은 그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나타낸 역사를 그들이 검토할 때 사람들을 놀래게 해서는 안 되는 놀람으로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약 저와 함께 사도행전 20장을 펼치신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큰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기 28절에서 시작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또 여기 4장에서 디모데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처음 세 구절에서 우리가 읽는 것에 주목해주시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또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밤 그것을 읽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의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씁니다. 그가 여기 2장 7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에 주목해주시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

And this result was very rare and very costly. So the Bible was chained, literally chained, to prevent theft but also figuratively because the church began to teach that you could not understand your Bible without infallible interpretation and that infallible interpretation, of course, came through the church and through the representatives of priesthood. So is the Dark Age.

Now the departure from the New Testament norm should not have come as the surprise that should not surprise people as they review history denoted that it actually happened because it was predicted. If you turn with me the 20th chapter of the Book of Acts, this is the Apostle Paul's last meeting with the elders of that great church at Ephesus, beginning here with 28th verse, he says this to them, "Take heed therefore unto yourselves, and to all the flock, over the which the Holy Spirit hath made you overseers, to feed the church of God, which he hath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For I know this, that after my departing shall grievous wolves enter in among you, not sparing the flock. Also of your own selves shall men arise, speaking perverse things, to draw away disciples after them. Therefore watch, and remember, that by the space of three years I ceased not to warn every one night and day with tears."

The Apostle Paul also said the same thing over here to Timothy in the fourth chapter. Notice what we read here in the first three verses, "Now the Spirit speaketh expressly, that in the latter times some shall depart from the faith, giving heed to seducing spirits, and doctrines of devils; Speaking lies in hypocrisy; having their conscience seared with a hot iron; Forbidding to marry, and commanding to abstain from meats, which God hath created to be received with thanksgiving of them which believe and know the truth." Also here in the Second Timothy the fourth chapter we're not going to take time to read that tonight because we read it last night. But you want to refer to that. Then also Paul writes to the Christians in Thessalonica in his second letter. Notice what he says here in the second chapter beginning with seventh verse, "For the mystery of iniquity doth already work:

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리고 다시 저는 제가 인용한 이들 참고 구절들에 관해 어젯밤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연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성구사전들과 참조문헌들을 참고하셔서 그들이 믿음에서 타락할 때가 올 그 시기에 관한 많은 다른 예언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살펴본바와 같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를 위한 기반의 믿음을 중시한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제시한 그들의 원칙을 중시하는 한, 매우 빠른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I. 교리와 도덕적 배도(I. Doctrinal and moral apostasy)

지금 우리는 타락 혹은 원칙들이나 믿음의 저버림을 단순히 의미하는 교리적 배도와 도덕적 배도의 비극적인 시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A. 사제 계급의 등장(사제 계급 제도 - 통치자 집단 - 서열의 등장, 교회 통치 체계)[A. Rise of the clergy (hierarchy - a body of rulers - rising in order, a system of church government)]

무엇보다도 먼저 사제 계급 제도의 등장, 위계적인 교회 체계, 통치자 집단, 서열의 등장, 교회 통치 체계에 있어서 증거가 시작되었습니다.

B. 성경적 - 장로들, 목사들, 감독들(동의어 - 동일한 직분을 가리킴)[B.

only he who now letteth will let, until he be taken out of the way. And then shall that Wicked be revealed, whom the Lord shall consume with the spirit of his mouth, and shall destroy with the brightness of his coming: Even him, whose coming is after the working of Satan with all power and signs and lying wonders, And with all deceivableness of unrighteousness in them that perish; because they received not the love of the truth, that they might be saved.” And again I said last night concerning these references which I cited. This is not an exhaustive study. You want to go to your concordances and run references and find many many other predictions concerning the time they would come when they will be falling away from the faith.

Now there was an extremely rapid growth as we noticed last night in the church recorded in the Book of Acts as long as the early Christians regarded their principles said and set forth in Ephesians the fourth chapter with regarded the faith of the platform for unity. We had reviewed that together.

I. Doctrinal and moral apostasy.

Now we come together the tragic time of both doctrinal and moral apostasy that simply means the falling away or the abandonment of principles or faith.

A. Rise of the clergy (hierarchy - a body of rulers - rising in order, a system of church government).

Began the evidence, first of all, in the rise of the clergy system, the rise of a hierarchical church system, a body of rulers, rising in order, a system of church government.

B. Scriptural - elders, pastors, bishops (synonymous - referring to same office).

Scriptural - elders, pastors, bishops (synonymous - referring to same office)]

어젯밤에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조직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장로들, 목사들,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용어들이 동일한 직분과 기능을 말하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1. 관행의 변화 - 치리 장로, 한 사람이 교회의 그룹들에 미치는 영향력 확장(디오드레베, 참조. 요한 3서 9절)[1. Change in practice - ruling elder, extension of influence of one man over groups of churches (Diotrephes, cf. III John 9)]

그러나 그들은 점차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 절에서 디오드레베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언급합니다. 요한이 그 친구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요한은 그가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나 감독이 성격상 더 외향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지식 때문에 치리 장로 또는 치리 감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교회들은 지리적으로 더 전략적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크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교회들은 외곽에 있는 더 작은 교회들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 한 사람 치리 감독(주교) 혹은 치리 장로로 귀결되었으며, 이들 교회들에 대한 감독수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구조는 점진적으로 점점 더 확장되었고, 급기야 동방 교회의 치리 감독들 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동방 교회들을 감리(監理)할 한 사람을 콘스탄티노플에서 뽑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서방에서의 지배적인 영향은 서방교회들 중에서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방 교회들을 감리(監理)할 치리 감독(주교)을 로마에서 뽑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서방 교회들의 치리 감독(주교)을, 콘스탄티노플에 동방교회들의 치리 감독(주교)을 두었습니다.³⁾

Last night we reviewed the scriptural organization in the church. You had elders, pastors, bishops. Those terms, you know, use interchangeably referring to same office and function.

1. Change in practice - ruling elder, extension of influence of one man over groups of churches (Diotrephes, cf. III John 9).

But then they came gradually at change. In Third John the 9th verse, the Apostle John in that particular passage refers to a man by the name of Diotrephes. Do you recall what John said about that fellow? He said, He "loveth to have the preeminence" in the church. The passage of the time an elder or a bishop because he was more extroverted in his personality or because of his pure knowledge of God's Word began to refer to as a ruling elder or a ruling bishop. And because the city church was usually much larger and more influential because they were more strategically located geographically, then they began to exercise oversight over smaller outlined churches, resulted in this one ruling bishop or elder, and ruled to begin to exercise oversight over these churches.

And this church structure became gradually more and more expanse until the last from among the ruling bishops in the eastern segment of the church. They're selecting one who presided over the churches in the east in Constantinople. The other area dominant influence in the west was in Rome from among the churches of the west. They're selecting the ruling bishop who presided over the churches in the west in Rome. They had the ruling bishop in Rome of the western churches, and the ruling bishop in Constantinople of the eastern churches.

3) 역자 주: 여기서 동방은 그리스가 포함된 지중해 동쪽 헬라어문화권을 말한다(예: 정교회). 반면에 서방은 이탈리아가 포함된 지중해 서쪽 라틴어문화권을 말한다(예: 가톨릭교회).

2. 사제들, “주교들,” 대주교들, 추기경들(2. Priests, “bishops,” archbishops, cardinals)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새로운 계급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제라는 용어가 채택되기 시작했고, 사제직이 확립 되었으며, 이러한 종교적 위계질서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교(감독)라는 용어가 사제보다 상위 계급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주교는 신약성경에서 쓰인 감독이란 말의 쓰임새가 아니고, 이처럼 새로운 쓰임새를 말합니다. 그런 다음 주교 위에 대주교들이 있었고, 대주교들 위에 추기경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런 다음 결국 교황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교회 구조 확장이 이뤄진 이 모든 기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매우 논쟁적인 이슈로, 그것이 간섭하는 감시로 간주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의 히브리 제사장직에서 채택된 성의(聖衣)가 착용되기 시작한 것은 주후 257년이었습니다. 성의들은 로마의 주교인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Porters(문지기守門品), Sextons(교회지기司察), Readers(독서자講經品), Subdeacons(차부제次副祭品) 및 Deacons(부제副祭品)와 같은 계급들이 주후 29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C. 비성경적 도입들(C. Innovations)

1. 성수(약 117)[1. Holy water (c. 117)]

이제 좀 더 연대순으로 역사적 발전을 살펴봅시다. 비성경적(인위적) 도입(제도)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 사용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주후 117년에 있었으며 주후 117년 알렉산더 1세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자 그가 그것을 그리고 그 후로 사용한 이유는 마귀를 두려워해서, 은총을 입기 위해서, 성례전을 준비하기 위해

2. Priests, “bishops,” archbishops, cardinals.

It gradually then began to be created new orders. For instance, now the term priest began to be adopted, a priesthood established, and this religious hierarchy became more expansive. Then the term bishop began to be used as an order just higher than the priest, not the New Testament usage of the term bishop but in this new usage. Then above the bishops there were archbishops, then above the archbishops the cardinals, and eventually then finds a pope.

Now during all of this time of this expansive church structuring there was a great opposition to all of this. Very controversial issue it was considered a meddling oversight. It was 257 AD that vestments adopted from the Old Testament Hebrew priesthood began to be worn. They were first used by Stephen, the bishop of Rome. Then 290 AD orders were created such as Porters, Sextons, Readers, Subdeacons and Deacons.

C. Innovations.

1. Holy water (c. 117).

Let's look at now the historical development in more chronological order. The innovations began to infiltrate the church. The first mention of use of the holy water was in the year 117 AD and was attributed to Alexander I, the year 117. Now the reason he used it and subsequently was frightened of devil, to obtain grace, to prepare for sacraments,

서, 불임치료를 위해서, 선(善)의 증가를 위해서, 혹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들은 몇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었습니다. 성수 사용에 대한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행은 이후의 교부들에 의해서 이교적 관습으로 정죄되었습니다.

2. 사순절(140)[2. Lent (140)]

사순절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주후 140년에 여기서 언급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완전하게 소개되지 않았지만, 로마의 주교인 텔레스포로(Telesphorus, 137년경 사망)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3. 유아 세례 - 이레네우스(Irenaeus)가 최초 언급(약 170)[3. Infant baptism - first mentioned by Irenaeus (c. 170)]

그런 다음 여러분은 유아세례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보시게 됩니다. 이레네우스가 170년경에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러나 유아들의 침수세례는 침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예외는 규칙이 아닌 교회에서 매우 주의를 기울였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였습니다.

4. 연옥(기원 - 230, 그레고리 - 593)[4. Purgatory (Origin - 230; Gregory - 593)]

자 동방교회는 연옥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연옥은 주후 230년에 오리게네스에 의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불을, 심지어 마귀조차도, 통과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 이것은 교회의 공의회에서 단호히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593년 그레고리우스 대제는 가족이 기여 돈을 지불한다면 사제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cure barrenness, to multiply good or to procure health. These were some various reasons. There was rationalization for the use of holy water. But this practice was condemned by subsequent church Fathers as a pagan custom.

2. Lent (140).

The first mention of Lent is mentioned here in the year 140 AD. It was introduced not as fully development as we know today but it was first introduced by Telesphorus who was the bishop of Rome.

3. Infant baptism - first mentioned by Irenaeus (. 170).

Then you come to the first reference to infant baptism, first mentioned by Irenaeus about the year 170. And at this time, however, immersion of infants was by immersion. And again was the exception not the rule very heeded and controversial issue in the church.

4. Purgatory (Origin - 230; Gregory - 593).

Now purgatory was never believed in the eastern part of the church. It was introduced by Origen in the year 230 AD. And he taught that everybody would have to pass through the fire even the devil but eventually all would be saved. Oh, this was roundly condemned by the general council of the church. But Gregory the Great in 593 AD said that the priests could pray for the dead if the family was willing to pay.

5. 병상 “침례” - 노바티아누스(Novatian, 약 250)[5. Clinical “baptism” - Novatian (c. 250)]

그런 다음 여러분은 병상 침례에 이르게 됩니다. 자 250년에 이것은 정말 첫 번째 큰 이탈이었습니다. 노바티아누스라는 이름의 남자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옮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아 노바티아누스에게 물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사람 위로 일곱 배럴(7x159L=1,113리터)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침수세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노바티아누스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들은 “병상 침례”(Clinical Baptism)라고 불리는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극도로 논쟁적이었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콘스탄티누스의 회심(312) - 국가 종교[6. Conversion of Constantine (312) - State Religion]

그런 다음 여러분 모두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황제가 된 역사를 상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설적으로 콘스탄티누스가 하늘의 환상을 보았고 그의 개종이 그것에 기인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심지어 자신의 열정 때문에 일부 군대를 개울 근처로 행진 시켰고 개종여부에 전혀 상관없이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들은 로마를 그리스도교화하기보다는 그리스도교를 로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또한 영리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제국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정치적 조치로 빠르게 붕괴되는 제국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 Clinical “baptism” - Novatian (c. 250).

Then you come to clinical baptism. Now in 250 this was the first really major departure. Man by the name of Novatian became desperately ill. He thought he's going to die. He was not a Christian. He wanted to be baptized. But it was physical impossibility they moved him. So they'd got permission from some leaders of the church to pour water over Novatian. They ended up pouring seven barrels of water over that fellow. It was almost equivalent to immersion. And it happened that he did not die. He got well. The leaders of the church insisted that Novatian be baptized but he refused. So gradually they came in the bore what it was referred to as "Clinical Baptism." Again it was extremely controversial and not universally accepted.

6. Conversion of Constantine (312) - State Religion.

Then you all recall your history with Constantine becoming the Emperor of Rome. We recall Constantine legendarily saw a vision in the sky which was attributed to his conversion. In his enthusiasm Constantine even had some of the troops marched down near stream and baptized without any other their conversion whatsoever. So gradually rather than a Christianizing the Roman they began to be a Romanization of Christianity. Constantine was also a shrewd politician. He saw the empire was rapidly disintegrating. So he decreed the Christianity should be made a state religion. He thought by this politic move-in he could solidify the rapidly disintegrating empire.

7. 원죄 -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7. Original sin - Augustine (4th Century)]

그런 다음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영향력 있는 한 인물이자 초대교회 교부들 중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에 도달합니다.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특정한 교리에 대해 들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그가 전적인 유전적 타락의 교리를 가르치게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얼룩과 유죄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유전된 아담의 죄의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그에게 전가된 아담의 죄의 얼룩과 유죄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것일 뿐이고, 다시 유아세례를 국교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친 것이 사실이라면, 또 성경이 침례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들을 데려다가 침례를 베푸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매우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8. 니케아 공의회(325)[8. Council of Nicaea (325)]

그런 다음 여러분은 회피하고 싶은 중요한 날짜에 다다릅니다. 주후 325년, 이것은 최초의 대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Council of Nicaea)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차적으로 이 모든 교리적 이탈(변개), 신제도들 및 관행들의 도입으로 인해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니케아 신조라 일컫는 최초의 인위적(비성경적) 신조를 작성한 것은 이 공의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신조의 작성자들은 진심으로 동기를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교회의 모든 기본적인 근본 교리에 협력하는 신앙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니케아 신조를 거의 사용할 수 없었고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며 “여러분이 신조에 협력한 것들 중 일부

7. Original sin - Augustine (4th Century).

Then we come to an influential figure in church history, one of the early church Fathers, Augustine. In the fourth century Augustine began to teach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I'm sure you all heard that particular doctrine. This resulted in he taught the doctrine of total hereditary depravity. He taught that the stain and the guilt were also the consequences of Adam's sin passed onto all men. When a baby was born, he was born in sin. He had the stain and the guilt of Adam's sin upon him. And that's another thing and again nationalized infant baptism. And it said if what Augustine was teaching is true and since the Bible teaches that the baptism is for the remission of sins, we'd better take our babies and baptize them. Again it's very controversial issue.

8. Council of Nicaea (325)

Then you come to an important date upon which you want to hang your head. 325 AD, this was the first major church council, the Council of Nicaea. And this was called into the existence primarily because of the intrusion of all of these doctrinal aberration and innovations and practices. And it was this council they formulated the first human creed, referred to as Nicene Creed. And I think perhaps formulators of this creed were sincerely motivated. They thought they could draw a statement of faith which they cooperated in all of basic fundamental doctrines of the church that automatically excluded all heresy or false teaching. But they could hardly become to draw upon the Nicene Creed and many in the church protested and forcefully said that "Some of things you've been cooperated in creed

를 우리는 이단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라틴어 회기를 시작하였고 교회 공의회들의 회기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공의회는 여러 번 앞선 교회 공의회들을 저주하며 정죄하였고, 새로운 신조들을 작성하였으며, 또 앞선 신조들에서 합법적 상태에서 대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는 암흑 시대라 불리는 시기 즉 우리의 세계사의 중세시대라 불리는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9. 사제직의 독신(생활)(305; 314; 692; 1015; 1074; 1123)[9. Celibacy of the priesthood (305; 314; 692; 1015; 1074; 1123)]

그런 다음 우리는 305년 스페인의 엘비라 공의회(Council of Elvira)에서 처음 도입된 사제직의 독신에 이르렀고, 314년 네오-카이사레아 공의회(Council of Neo-Caesarea)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후 692년에 소집된 제6차 총 공의회는 사제직의 독신(생활)의 관행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1015년 공의회에서 그것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1074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사제직의 독신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그런 다음 1123년, 이것은 제1차 라테란 공의회(the First Lateran Council)의 시기였습니다. 독신은 강권(권위)적으로 강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행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정되었고, 그런 다음에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것들은 다시 제정되었고, 그런 다음에 정죄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은 강권(권위)적으로 강요되었습니다.

10.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380)[10. Praying for the dead (380)]

그런 다음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다다릅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누스가 사망한 때 380년에 시작되었고 그들은 영혼 곧 그 몸을 위해 그 영혼을 대신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연옥 교리가 충분히 발전되기까지는 충분히 발전되지

we consider heresy." Then began a Latin session and calling into session church councils. And each church council many times ended up anathematizing pronouncing curses upon preceding church councils and drawing up new creeds and left remedy in legitimate state in the preceding creeds. So was the church at last in what is referred to as Dark Age, the medieval period of our world history.

9. Celibacy of the priesthood (305; 314; 692; 1015; 1074; 1123).

Then we come to the celibacy of the priesthood, first introduced by the Council of Elvira in Spain in the year 305, also confirmed by the Council of Neo-Caesarea in 314. But the 6th General Council which was convened in 692 AD condemned this practice of celibacy of the priesthood. And again in the Council in the year 1015, it was absolutely forbidden. But then in the year 1074 the Pope Gregory VII made the celibacy of the priesthood compulsory again. Then 1123, this was the time of the First Lateran Council. It was authoritatively enjoined. You see how many these practices. They were instituted and then condemned. And then they were reinstituted and then condemned. Until the last and finally they were authoritatively enjoined.

10. Praying for the dead (380).

Then we come to the praying for the dead. It began in the year 380 when Constantine died and they prayed for the soul, the body on behalf of the soul. Now this praying for the dead was not fully developed until the doctrine of purgatory was fully developed.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보편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⁴⁾

11. 사적고백(390)[11. Private confession (390)]

그런 다음 우리는 사적고백(고해성사)에 다다릅니다. 자 사적고백이 39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개적인 죄의 자백(공동참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들로 하여금 심지어 새로 관리자를 세워 그가 이 모든 죄의 고백들에 먼저 소리를 지르게 함으로써 그 중 누구도 너무 수치스럽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390년 여기서 공동참회가 사라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러한 공동참회들 중 하나의 결과들로 인해 콘스탄티노플 시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적고백(고해성사)을 원했던 이유였습니다.

12. 로마 주교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교황’ 칭호(400)[12. Title “pope” first used by bishop at Rome (400)]

자 ‘교황’이라는 칭호는 톨레도 공의회(Council of Toledo)가 열렸던 400년에 로마의 주교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13. 로마 주교 레오가 서방교회들에 대한 최고 권위자로 선언(450). (그레고리 7세 - 유일한 교황임을 선포 - 1073)[13. Leo, bishop of Rome, declared supreme authority over Western churches (450). (Gregory VII - decreed only pope - 1073)]

4) 역자 주: 콘스탄티누스는 337년에 사망하였다. 380년은 밀라노에서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칙례를 받은 해이다.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도 그로부터 7년 후인 387년에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칙례를 받았다. 참고로 암브로시우스는 374년에 칙례를 받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주교로 임명되었다. 당시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에 주재한 집정관이었다.

And again not universally practiced.

11. Private confession (390).

Then we come to the private confession. Now private confession of sin was introduced in the year 390. Prior to this, there had been public confession of sin. But there had been such numerous public confessions of sin that it compelled them to even create a new officer who was to scream all these confessions first so that none of them would be too scandalous. But finally here in 390, public confessions were brought an end. Because of the results of one of these public confessions in Constantinople, there arose a scandal that completely set the whole city of Constantinople into an uproar. That's what they wanted private confession.

12. Title "pope" first used by bishop at Rome (400).

Now the title "pope" was first used by bishop at Rome in the year 400 that was the Council of Toledo.

13. Leo, bishop of Rome, declared supreme authority over Western churches (450). (Gregory VII - decreed only pope - 1073).

그런 다음 우리는 로마 주교 레오에 다듭니다. 450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서방 교회들에 대한 최고 권위자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 7세는 그때 로마 공의회(Council at Rome)에서, 이 공의회는 1073년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교황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로마 주교에 의해서 배타적(독점적)으로 최초로 참칭된 이 칭호를 보시게 됩니다.

14. 성인들의 호칭 기도(사적 - 470, 공동 - 600)[14. Invocation of saints (private - 470; publicly - 600)]

그런 다음 여러분은 성인들의 호칭 기도에 다듭니다. 우선 그것은 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470년(43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토무스의 시신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의 시신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습니다. 황제(테오도시우스 2세)는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크리소스토무스에게 그를 박해한 자신의 부모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미신은 교부들에 의해 책망되었습니다. 600년까지, 그런 다음 성인들의 호칭 기도는 성인들에 대한 공동 청원 혹은 공동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것은 아직 공식적인 교회 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 성체성사(490)[15. The Eucharist (490)]

그런 다음 여러분은 490년에 성체성사가 제정되거나 시작된 때에 다듭니다. 자 이 때는 한 종류 곧 한 덩어리 빵으로 성찬을 떼는 것이 도입된 때였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인물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도주가 영성체에서) 제외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주교였던 레오와 겔라시우스(겔라시오)는 이것을 정죄하였고, “영성체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 전체를 받든지, 아무 것도 받지 않든지” 하라고 명령했다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Then we come to Leo, the bishop of Rome. In the year 450 he declared himself as the supreme authority over the western churches. But Gregory VII then in the Council at Rome, this was the year 1073, decreed that he was the only pope. In here you have this title assumed for the first time exclusively by the bishop at Rome.

14. Invocation of saints (private - 470; publicly - 600).

Then you come to the invocation of the saints. First of all it was private. And it was initiated in the year 470 (438). And the body of Chrysostom was taken to Constantinople. The body of Chrysostom was taken to Constantinople. The emperor (Theodosius II) knelt before the body and prayed Chrysostom to forgive his parents who persecuted him. Then this superstition was rebuked by the Fathers of the church. Until the year 600, then invocation of the saints became a public invocation or praying to the saints. But even then that was not yet accepted as an official church doctrine.

15. The Eucharist (490).

Then you come to the establishment or the initiation of the Eucharist in the year 490. Now this was the time when it was introduced to taking of communion under one species, that is, the loaf. At this time the men of keys or empowered and they abhorred wine. And that's the reason why it was excluded. But Leo and Gelasius who were bishops at Rome condemned this and ordered that "communion be received entire as instituted by the Lord or not at all," they said.

16. 성상들(500, 니케아 공의회 - 787 승인)[16. Images (500; Council of Nicaea - 787 sanctioned)]

그런 다음 여러분은 500년에 아이콘의 도입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것들은 단지 역사적 기념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방 교회인 콘스탄티노플은 754년에 이것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방교회)는 이것(정죄)을 무시하였고, 그들은 769년에 그것을 허용(존중)했으며, 787년 니케아 공의회(Council of Nicaea)에서 그들은 예배에서 성상들이나 아이콘들의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17. 병자(종부)성사(528)[17. Extreme Unction (528)]

그런 다음 여러분은 528년에 병자성사 교리에 다다릅니다. 이때는 그들이 병자들에게 기름부음을 가르쳤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후(extremis) 또는 죽음의 시점이란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주교인 펠릭스 4세(Felix IV)는 죽음의 순간에 최후를 맞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바르는) 이 병자성사의 관행을 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18. 보편 주교 - 콘스탄티노플의 요한 총대주교(595)[18. “Universal Bishop” - John patriarch of Constantinople (595)]

그런 다음 성직, 보편 주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보편 주교라는 용어는 주후 595년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요한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그가 이 성직을 독점하자 로마의 그레고리우스는 충격을 받았고, 이것을 비난하며, 그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보편 주교라고 일컫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선구자이다”라고 썼습니다.

16. Images (500; Council of Nicaea - 787 sanctioned).

Then you come to introduction of images in the year 500. And at this point of time they were just considered historic memorials. But even this was reproved by the Constantinople. And then finally Constantinople that was Eastern Church condemned this in the year 754. But Rome ignored this and they honored it in the year 769 and the year 789(7) at Council of Nicaea they sanctioned the use of images or icons in the worship.

17. Extreme Unction (528).

Then you come to the doctrine of extreme unction in the year 528. This was the time when they taught the anointing the sick of oil. And it came from the term in extremis or at the point of death. And Felix IV, the bishop of Rome, was one who introduced this practice of extreme unction anointing oil on the person in extremis at the point of death.

18. "Universal Bishop" - John patriarch of Constantinople (595).

Then the title, universal bishop, it's interesting to note what's happening. The tensions were growing between eastern and western segment of the church and becoming sharper and shaper. The term, universal bishop, was adopted by John the Patriarch of Constantinople in the year 595 AD. When he assumed this title, Gregory of Rome was shocked and he denounced this and he wrote, "Whoever calls himself universal bishop is the forerunner of Antichrist."

19. 라틴어 미사(666; 1215)[19. Mass in Latin (666; 1215)]

그런 다음 여러분은 미사에서 라틴어 사용에 다다릅니다. 자 로마 주교 비탈리아누스(Vitalianus)가 이것을 처음 도입하였고, 666년에 미사는 라틴어로 읽혀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날짜에 대해 뭔가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구속력을 갖는 법령이 아니었지만, 1215년에 라테란 공의회(Lateran Council)는 그 관행을 완화했습니다.

20. 교회와 국가의 통합(728)[20. Church and State combined (728)]

그런 다음 728년은 교회와 국가가 통합된 날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정치적 및 통치적 활동에서 지배적임을 알게 됩니다.

21. 사면(750)[21. Absolution (750)]

사면. 로마 가톨릭 역사가 플루리(Flury)는 여기서 “750년은 죄를 고백한 후 참회자들에게 사면이 주어진 가장 이른 발생시기이다.”라고 말합니다.

22. 분향(790)[22. Incense (790)]

주후 795년에 그런 다음 처음으로 예배에 향이 사용되어야한다고 명령한 사람은 교황 레오 3세(Leo III)였습니다.

23. 교회전통 수용(제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 869년)[23. Tradition accepted (Fourth Council of Constantinople - 869)]

그리고 그런 다음 869년 제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었고, 교

19. Mass in Latin (666; 1215).

Then you come to the use of Latin in the Mass. Now Vitalianus the bishop of Rome first introduced this and ordered the Mass should be read in Latin in the year 666. Something significant about the date, isn't it? But at that time it was not a binding decreed but in the year 1215 the Lateran Council relaxed the practice.

20. Church and State combined (728).

Then the year 728 is the date when church and state were combined. And we find now the church dominant in all your political and governmental activities.

21. Absolution (750).

Absolution. The Roman Catholic historian Flury says here, "The year 750 is the earliest incidence of absolution being granted to penitents after confession of sin."

22. Incense (790).

It was Pope Leo III who in the year 795 AD then first ordered that incense be used in the service.

23. Tradition accepted (Fourth Council of Constantinople - 869).

And then was the Fourth Council of Constantinople in the year 869 said that

회전통을 수용해야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그들은 구전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록된 전통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심지어 기록된 전승이라도 성경말씀과 대등하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ent)가 있고 나서야 전통의 권위가 성경말씀과 대등하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4. 성인 시성(884, 승인 - 1160)[24. Canonization of saints (884; authorized - 1160)]

그런 다음 여러분은 884년에 다룹니다. 그 때에 성인들의 시성이 로마의 주교, 교황 아드리안(Adrian, 하드리아노) 3세에 의해서 처음으로 권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것은 알렉산데르(Alexander) 3세의 법령에 의해서 주후 1160년에 승인되었습니다.

25. 사면(1000)[25. Absolution (1000)]

이제 “I Absolve Thee”(내가 그대를 사하노라.)라는 용어의 근대적 형태는 1000년경에 나타났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사면의 근대 형태인 “I Absolve Thee”가 추적될 리가 없습니다.

26. 성체신학(화체설)(1000)[26. Transubstantiation (1000)]

그런 다음 우리는 성체신학(화체설) 교리에 다룹니다. 자 그것은 끔찍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상수련회(Christian Service Camp)에서 교회사 강좌를 듣고 있었고, 그 단어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일곱 번 정도 그 단어를 곱씹어 보았지만 결국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미사(Mass)에서 종소리에 순간적으로(twinkling in the bell) 빵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tradition should be accepted. Now they did not accept oral tradition. They only accepted written tradition. And at this point of time even written tradition was not accepted that was being equal with the Scriptures. It was not until the Council of Trent in the year 1546 that tradition was accepted that wa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with the Scriptures.

24. Canonization of saints (884; authorized - 1160).

Then you come to the year 884 when the canonization of the saints was first advised by Pope Adrian III, bishop of Rome. And then by the decree of Alexander III it was authorized in the year 1160 AD.

25. Absolution (1000).

Now the modern form of the term, "I Absolve Thee" came about in the year 1000. It cannot be traced than prior to this date, the modern form of absolution, "I Absolve Thee."

26. Transubstantiation (1000).

Then we come to the doctrine of transubstantiation. Now that's an awful. I'll never forget when I was a high school boy. And I had been taught a course of church history in Christian Service Camp and came back to give a report. I ran over that word about seven times and finally gave up. What it means actually is doctrine of transubstantiation that in the Mass twinkling in the bell is taught that the loaf and the cup become actual body and blood of Jesus Christ.

된다고 가르치는 화체설(성체신학)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 성소에 가시면(미사에 참석해 보시면) 제단 위에 빨간불이 비취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성체(Host, 주님)가 실제로 현존한다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현존한다고 일컬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⁵⁾

27. 그리스도교국의 첫 번째 큰 분열(1054년). 주요 이슈들, 권위, 독신, 이미지(아이콘)들, 약식세례. 결과 -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27. First major split in Christendom (1054). Major issues, authority, celibacy, images, sprinkling. Result - Greek Orthodox and Roman Catholic churches]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다시 회피하고 싶어 할 그리스도교국의 중요한 날짜에 다다릅니다. 1054년, 이것은 그리스도교국에서 첫 번째로 큰 분열이 발생한 때였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네 가지 이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방 교회 콘스탄티노플과 서방 교회 로마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고 우리가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슈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권위는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에게 있었거나 교회의 권위가 로마의 주교(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로마 가톨릭교회주의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비숍 스미스 대학(College of Bishop

5) 역자 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의 진보성향화에 반발하여 하나 둘씩 떨어져 나온 미국의 독립 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은 지역 단위로 숲 속에 캠프시설(숙소, 강당, 식당, 운동장, 수영장 등)을 갖추고 수시로 부흥집회, 수련회 등을 개최하여 왔다. 이 시설을 Christian Service Camp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미사는 그 성격이 제사 예배인데, 1962-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까지는 라틴어 미사와 라틴어 성경만 허용되었다. 미사에 길고 장엄한 성찬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고 가르쳐왔다. 그런데 그 기도가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읽히다 보니까 그 순간을 참석자들이 놓치지 않고 호스트(Host)를 향해서 경배하게 하려고 예전에는 종을 울려주었고, 근대에는 반짝이 전등 등을 사용했다고 한다. 1960년대 이후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가톨릭교회에서 자국어로 미사(제사)를 바친다.

If you go to a Roman Catholic sanctuary you will see a red light burning over the altar that means as it is said that the Host is actually present, the actual body of Christ is present.

27. First major split in Christendom (1054). Major issues, authority, celibacy, images, sprinkling. Result - Greek Orthodox and Roman Catholic churches.

Now we come to another major date of Christendom upon which you want to hang your head again. The year 1054, this was the occasion of the first major split in Christendom. There were four issues now that caused it. And it should come to no surprise that we said it's been increasing tensions between Eastern Church Constantinople and western church Rome. The issues were these. Number one is the issue of authority. Thus the authority of church resided in the Patriarch in Constantinople or the authority in the church resided in the bishop of Rome. That was a hot issue in Roman Catholicism today. If you read your papers and magazines back to about a year ago on the College of Bishop Smith.

Smith)에 관한 신문이나 잡지들을 읽으셨다면, 이슈는 가장 큰 이슈는 교회에서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금세기 내내 대학이나 주교 회의에 얼마나 많은 권위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권위가 교황권에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사제직의 독신주의 도입이었습니다. 물론 동방교회는 우리 사제들이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서쪽 부분(서방교회)은 이교 신전들에서 독신 사제들과 이교 신전들의 여신 베스타 여사제들(Vestal Virgins)이 금욕주의였다고 전해진 이교도 로마의 그 관행 이후에 그 자체로 꽤 많이 덧대어졌습니다. 이제 그것(그 이교도 관행)은 독신 사제(장로)들과 독신 수녀들로 대신 채워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날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제직의 독신주의입니다. 여러분은 1년 조금 더 전에 로마교회의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12개 주요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주요 연설들의 주요 주제는 사제직 지원자들의 모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시에서 열린 일라이 릴리 재단⁶⁾ 후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신학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두 개의 권위 있는 로마 가톨릭 신학교들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들 중 하나에서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신학교 교육이 67퍼센트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들이 발표한 것을 들은 청중보다 더 많은 것을 짐작하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두 개의 로마 가톨릭 신학교가 목회를 위해 공부하려는 젊은이들의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그 같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을 허락하는 새로운 사제직 제도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토론이 있어왔습니다.

6) 역자 주: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Eli Lilly and Company)는 미국 굴지의 제약회사이다. 본사는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다. 회사명은 창업자인 일라이 릴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The issue was, the main issue was authority in the church. And there has continually through this century been a struggle over how much authority should be resided in college or synod of bishops and how much authority should be allowed to reside in the papacy.

The second issue was the introduction of the celibacy of the priesthood. Of course Eastern Church was saying our priests should be permitted to marry as they historically may have been. But the western segment of the church padded in itself pretty much after that practice of pagan Rome which in their temples had allegedly celibate priests and their vestal virgins. Now it comes along with counterpart of the celibate priests and the nuns. And by the way what is the hottest issue in the Roman Catholic Church today? It's the celibacy of the priesthood. Do you remember when the pope of Rome visited our country a little over a year ago? And he visited our twelve major cities. The major theme of every one of the major addresses was recruitment to the priesthood. And it will become a real problem. I was in attendance at a Eli Lilly Foundation sponsored seminars in Indianapolis Indiana several years ago. And the seminaries from all over America were present. There were two prestigious Roman Catholic seminaries present. And during one of sessions they announced that in the preceding 10 years there had been a 67 percent decline in theological seminary education in America. And you here all the more guess than the audience from they made an announcement. In the last several years two Roman Catholic seminaries have been closed in Cincinnati Ohio due to the dearth of young men studying for the ministries. It's come such serious problem that they have been a debate as to whether or not to create a new order of priesthood which they were to grant permission to marry.

그러나 세 번째 이슈는 아이콘들과 성상들의 도입이었습니다. 다시 교회의 동쪽 부분(동방교회)은 “어떤 성상들이나 아이콘들은 없다”고 단호했지만, 로마에 정착한 교회의 서쪽 부분(서방교회)은 느슨하게 수용함으로써 이들 형상들로부터 이방신들의 이름들을 단순히 취하고 그리스도교 성인들의 이름들에 사용합니다.⁷⁾

이 분열로 인한 네 번째 이슈는 약식세례의 도입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교회의 동쪽 부분(동방교회)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신약성경에서 ‘baptizo’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어떤 파생된 형태로도 ‘떨어 들다’는 것, ‘담그다’는 것, 또는 ‘침수하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정착한 교회의 서쪽 부분(서방교회)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 까지도 세례 때 물을 뿌리는 느슨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서쪽 부분(서방교회)에서도 물을 뿌리는 세례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야 유효한 세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311년 로마 가톨릭교회 라벤나 공의회 때에 가서야 비로소 물을 뿌리거나 붓는 세례가 유효한 세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효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네 가지 이슈들 곧 교회의 권위, 사제직의 독신, 아이콘들과 성상들의 도입, 물을 뿌리는 세례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교회는 표준어가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정교회 그리스 가톨릭교회와 동방과 서방 로마 가톨릭교회가 되었습니다.

7) 역자 주: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주후 313년) 이후 특히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주후 392년)가 된 이후 참 신앙을 갖지 못한 수많은 이교도들 특히 야만족들이 한꺼번에 입교하였고, 이교도들은 입교 전에 그들이 믿었던 수많은 이방신들의 자리에 그리스도교 성인들 곧 성모 마리아, 순교자 등을 놓았다고 하며, 그것들의 형상들이 성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가톨릭교회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65) 때까지 히브리어(구약) 성경과 헬라어(신약) 성경 그리고 개역성경으로는 라틴어 성경만을 허용하였고, 라틴어 미사만을 고집한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야만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문맹자들을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성상들, 아이콘들, 14처, 프레스코(벽화)들, 스테인드글라스들에 새긴 성화들이었고, 라틴어 미사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미사는 점차 듣는 것에서 보는 연출미사로 발전되었다.

But the third issue was the introduction of icons or images. Again the eastern segment of the church was adamant, "No images or icons," but the western segment of the church settled in the Rome find in the easy accommodation and simply take the names of pagan deities from these images and transfer the names of Christian saints.

The fourth issue because of this split was the introduction of sprinkling for baptism. No way. You can tell that in the eastern segment of the church, 'Greeks' that Greek word in the New Testament, 'baptizo,' any of derived form can mean anything but to plunge or to dip or to immerse. But the western segment of the church settled in Rome find in easy accommodation not only for adult but infant to sprinkle. But even in the western segment of the church sprinkling was not accepted as a valid baptism until 300 years later. It was not until the Roman Catholic Council of Ravenna in 1311 AD that sprinkling or pouring was accepted as a valid baptism. So those were four issues: authority in the church, celibacy of the priesthood, introduction of icons and images, and introduction of sprinkling. And split church right down in the middle from standard term resulted in what we know today as the Eastern Orthodox Greek Catholic Church and the East and West Roman Catholic churches.

28. 비밀(귓속말) 고해(告解)성사 - 제4차 바티칸 공의회(1215)[28. Auricular confession - Fourth Vatican Council (1215)]

이제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비극이 일어났는지에 다룹니다. 비밀 고해성사, 그 귓속말(auricular)은 귀에서를 의미합니다. 비밀 고해성사는 주후 1215년 제4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도덕적 죄의 고통 속에서 권위적으로 요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비밀 고해성사를 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29. 약식세례(1311)[29. Sprinkling (1311)]

그런 다음 우리는 이미 물을 뿌리는 약식세례가 1311년에 교회에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벤나 공의회(Council of Ravenna) 때였습니다.

30. 면죄부 판매 - (1390; 1515)[30. Sale of indulgences - (1390; 1515)]

그런 다음 우리는 교회사에서 또 다른 흑(위험)지점인 면죄부 판매에 다룹니다. 이제 교황 보니파시오(Boniface) 9세는 면죄부 판매를 1390년에 실제로 실행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친숙한 사건이 더욱 눈부신 사건이 된 것은 1515년 교황 레오(Leo) 10세 때였습니다. 그의 사치스러운 바티칸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사업의 거대한 중심(허브)에 강타했기 때문에 로마에 짓고 있던 성 베드로 대성당은 곧 돈이 바닥나서 로마를 고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착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설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종의 계획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언자들, 특히 테젤(Tetzel)이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28. Auricular confession - Fourth Vatican Council (1215).

Now we come on in our tragic chronologically what happened. Auricular confession, that auricular means in the ear. Auricular confession was initiated by the Fourth Vatican Council in the year 1215 AD. This was the first time it was authoritatively required under the pain of moral sin at least once a year. At least once a year you had to make auricular confession or you will be under the pain of moral sin.

29. Sprinkling (1311).

Then we've already indicated sprinkling became valid in the church in the year 1311. This was the Council of Ravenna.

30. Sale of indulgences - (1390; 1515).

Then we come to the sale of indulgences, another black spot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Now Pope Boniface IX was the first one who actually practiced selling indulgences in this year 1390. But the one which was the most familiar one became a more glaring incident was in 1515 when Pope Leo X. Because of his extravagances of the Vatican and because it struck out upon a huge hub of million enterprise, the building St. Peter's in Rome soon ran out of money that caused the Rome was depleted. And his obsession was to complete that project, the construction of St. Peter's. And he was trying to find some type of the scheme or by that they could raise money to complete this project. So he counseled, what it was advisors, particularly man by the name of Tetzl.

다. 그리고 그들은 면죄부를 파는 것이 기금을 모으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면죄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이른바 많은 고행들을 하거나 매우 많은 14처들⁸⁾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은 매우 많은 성경말씀들과 기도문들을 읽으실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여러분은 매우 많은 면죄부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죄를 줄이거나 연옥에서의 기간을 단축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교황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 면죄부들을 상품화해서 판매를 꾀하기 시작했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가격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가서 면죄부들을 구매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가서 죄를 지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죄의 사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에 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여러분이 그냥 구입한 것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종이 쪼가리에 있었습니다. 도덕에 관해서 교회는 그 상실한 입구를 가라앉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자체에서 면죄부 판매라는 이 모순된 관행에 거슬러 격렬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우리의 논의에 관하여 그것에 다다를 것입니다.

31. 주의 만찬 때 분잔 배제(1414)[31. People deprived of cup at Lord's Supper (1414)]

그런 다음 우리는 주후 1414년 주의 만찬에서 컵을 빼앗긴 사람들

8) 역자 주: 그리스도의 생애를 14개로 나눠 그린 그림들이나 조각한 부조들을 십자가의 길(명상의 길)에 세운 장소들. 14처는 본래, 성경이 비싸고 귀했을 뿐 아니라,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었던 시절(1960년대까지) 특히 문맹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당 안에 혹은 스테인드글라스에 그림이나 부조 형태로 장식했었으나 자국어 성경을 읽고 자국어 미사를 드리고 있는 1970년대 이후에는 곳곳에 일명 '십자가의 길'이라는 명상의 길을 만들어 14처를 세우고 있다. 가톨릭교회 기도서에는 이 14처에서 바치는 14개의 기도문들이 담겨 있다.

And they devised an idea that the selling of indulgences would be the best means to raise money. I assume you all know what the indulgence is. In other words, you would do so many penances as it's called or you would visit so many stations or you would read so many scriptures and prayers, correspondingly you receive so many indulgences. Perhaps you would reduce sins or shorten a term of purgatory. So if you that the pope had all these written up and then began to merchandise these indulgences all over the Roman Empire. So if you had the price, you could go ahead and purchase indulgences. You could go ahead then and sin. And you didn't need worry about the consequence of that sin because you'd already assured forgiveness of that sin. And that insurance was on that scrap of paper what you have on your hand what you just purchased. On the morals the church began to sink that lost adit and in the church itself there was a violent protest against this repugnant practice of selling indulgences. And we will come to that a little later on our discussion.

31. People deprived of cup at Lord's Supper (1414).

Then we find people deprived of cup at Lord's Supper in the year 1414 AD.

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콘스탄츠 공의회(Council of Constance)에 의해 포고되었습니다.

32. 원죄 없는 잉태(1439; 1457)[32. Immaculate Conception (1439; 1457)]

그런 다음 여러분은 원죄 없는 잉태 교리에 다다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성모 마리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의 뿌리 깊은 원죄교리를 기억하십시오. 자 이 교리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이 지은 죄의 부패와 유죄가 죄 가운데 태어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유전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원죄 없는 잉태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곧 마리아는 잉태의 순간에 자연발생적으로 잉태되었지만 원죄와 무관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다음 그녀의 아기 예수는 원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원죄 없는 잉태의 교리입니다. 마리아는 자연발생적으로 잉태되었지만 잉태 시점에 원죄의 오염이 없는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원죄 교리로 인한 그 곤경을 교묘히 회피하였고 또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1439년에 여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뇽 공의회(Council of Avignon)가 이 교리를 확증한 것은 145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그것을 다르게 전하면, 파문으로 처벌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1457년 아비뇽 공의회에서 선포되었습니다.

33. 연옥(1563). (트리엔트 공의회 - 18년 - 1545 - 1563 - 교리 문제, 15개의 교령, 44개의 장, 113개의 교회법을 통과시켰고 또 125개의 저주선언들로 이들 교리들을 시행함!) 33. Purgatory (1563). (Council of Trent - 18 years - 1545 - 1563 - passed on matters of doctrine, 15

This was decreed by the Council of Constance.

32. Immaculate Conception (1439; 1457).

Then you come to the doct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Now a lot of people misunderstand this doctrine. They think this is referring to Christ. This is not at all. The doct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has a deal with the Virgin Mary. Remember now Augustine's profound doctrine of original sin. Now this doctrine caused a problem because if the taint or the guilt of Adam's sin was passed on every baby born, born in sin, what's that going to do to Jesus Christ? So here is how they got around it: the doct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And this, Mary, though conceived naturally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was declared free from original sin. And thus then her child Jesus was free from original sin. That's the doct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Mary was conceived naturally but at the point of conception was declared free from the taint of original sin. That certainly circumvented and got around it that predicament caused by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And by the way this was first of all decreed here in the year 1439. But it was in 1457 that the Council of Avignon confirmed this doctrine. And this is what they did. They said, "Excommunication is the penalty, if it is preached otherwise." That was decreed in 1457 the Council of Avignon.

33. Purgatory (1563). (Council of Trent - 18 years - 1545 - 1563 - passed on matters of doctrine, 15

decrees, 44 chapters, 113 canons and enforced these doctrines by 125 anathemas!)

그런 다음 여러분은 연옥 교리에 다다릅니다. 자 수 세기들에 걸쳐 연옥 교리는 점차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1563년 연옥 교리는 트리엔트 공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로 가봅시다. 이것은 모든 교회 공의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중요합니다. 회기가 소집되고 18년간 지속된 이유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가톨릭교회에 입힌) 파괴적인 영향에 거슬러 대응(가톨릭교회를 보수하기 위한 반종교개혁)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하였고, 1563년까지 회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15개의 교령, 44개의 장, 113개의 교회법으로 교리 문제들을 통과시켰고 또 125개의 저주선언으로 이들 교리들을 시행하였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행한 일을 다른 말로 하자면, 1400년이 넘는 기간에 공의회들과 교황들이 선포(포고)한 모든 인위적 도입(제도)들 (innovations)과 모든 미신들을 하나로 집대성한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교회의 법령들로 확증한 것이며, 또 그것들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 당할 125개의 저주선언들로 위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자료는 소문이나 누군가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시내티 시내에 있는 공공 도서관에서 약 일주일을 보내면서 모든 가톨릭 서적들을 읽었고, 제 자료의 상당부분이 로마 가톨릭 대사전에 실린 것들입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서적들과 출판물들에서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34. 교황 무류설 - 교황 비오 9세[34. Papal infallibility -1870 - Pope Pius IX]

그런 다음 우리는 무류성(無謬性) 교리에 다다릅니다. 1870년 교황

decrees, 44 chapters, 113 canons and enforced these doctrines by 125 anathemas!)

Then you come to the doctrine of purgatory. Now all through the centuries, the doctrine of purgatory had been developing gradually. But in 1563 the doctrine was confirmed in the last session of the Council of Trent. Now let's come to the Council of Trent. This is the most significant of all the church councils, the Council of Trent. And the reason is significant; the reason called in the session and lasted for 18 years was to counteract devastating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e Protestant Reformation had been sweeping Europe. And so the church called in the session the Council of Trent in 1545 and lasted period of 1563. They passed on matters of doctrine with 15 decrees, 44 chapters, 113 canons and enforced these doctrines by 125 anathemas! Another word what the Council of Trent do, it brought together in one collection, all of the innovations and all of the superstitions that had been decreed by the councils and popes over the intervening 1400 years and confirmed them all by conciliar decrees and threatened by 125 anathemas if you did not abide by them.

By the way all these materials I am giving to you are not hearsay or somebody said. I spent about a week in the public library in downtown Cincinnati reading all the Catholic volumes much of this material comes from the Roman Catholic Encyclopedia. It's the fact that they stated historically for themselves in their own volumes and publications.

34. Papal infallibility - 1870 - Pope Pius IX.

Then we come to the doctrine of infallibility. In the year 1870 under pope

비오 9세(Pius IX) 치하에서 교황이 도덕들과 교리들에 관해 공식 선언에서 '성좌에서'(from the chair)를 의미하는 '엑스 커티드라'(ex cathedra) 혹은 '엑스 케티드라'(ex cathedra, 성좌선언)를 할 때 무류(무오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의 무류성 교리가 선포되었을 때, 자 이것을 보십시오. 주교단이나 주교회의와 먼저 협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교령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여기에서 이 투쟁 곧 주교단과 교황 사이의 지속된 투쟁을 보십시오.

결론(CONCLUSION)

여러분이 알아차리셨듯이, 우리는 모든 영역을 다루었고, 배도는 점진적입니다. “이 계몽되고 탐구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사물들의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대의를 위해 우리는 오늘 밤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통과 교회의 교리들과 미신의 기원을 추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교는 처음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그것이 진행하면서 추진력을 얻고 마지막 붕괴(충돌)에 직면할 때까지 가속도를 붙여 하강합니다. 일단 고정된 신약성경 가르침의 기준에서 떠나 표류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붙들어 댈지, 여러분이 도선사(導船士)나 나침반도 없이 얼마나 멀리서 표류할지를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Pius IX when the pope speaks *ex cathedra* or *ex cathedra* which means from the chair in official pronouncement on morals and doctrines is infallible. However, when the doctrine of papal infallibility was decreed, now get this. There were to be no decrees without conferring with the college or synod of bishops first. You see again this struggle here continuous struggle between college of bishops and the papacy.

CONCLUSION

As you noted, we covered all of the territory, apostasy is gradual. "In this enlightened and inquisitive age people wish to know the cause and the reason of things." For this Cause, we have taken time tonight; we have traced out the origin of human traditions and ecclesiastical dogmas and superstition. Somebody said, "Apostasy is hardly perceptible at first, but it gathers momentum as it proceeds, and descends with increased rapidity until the final crash comes. Once float away from the fixed standard of New Testament teaching, and there is no telling where you will tie up, or how far out you will float without pilot or compass."

환원운동사(RESTORATION HISTORY) 신약성경교회로의 환원(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제3부 그리스도교(개신교) 개혁(1517-1800) [THE PROTESTANT
REFORMATION(1517-1800)]: 돌아가는 길(The Road Back).

서론(INTRODUCTION)

1. 정의 - 그리스도교(개신교) 개혁 - 결점들이나 남용들의 제거; 16세기 초기에 시작된 서방 그리스도교계의 신앙운동, 그 결과 다양한 그리스도교 교단이 형성됨[I. Definition - Reformation - the removal of faults or abuses; the religious movement in western Christendom beginning early in the 16th century, which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the various Protestant church.]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돌아가는 길 곧 돌아가는 길: 그리스도교(개신교) 개혁에 다듭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는 결점이나 남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초에 시작된 서방 그리스도교계의 신앙운동의 결과로 다양한 그리스도교(개신교) 교단이 형성되었습니다.

II. 기여한 요인들 - 부패, 인쇄술의 발명, 문예부흥, 성경말씀에 대한 친밀도 증가(고전의 재발견)[II. Contributing factors - corruption; invention of printing; revival of learning; increased acquaintance with scriptures.]

RESTORATION HISTORY

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PART III THE PROTESTANT REFORMATION (1517-1800): The Road Back

INTRODUCTION

I. Definition - Reformation - the removal of faults or abuses; the religious movement in western Christendom beginning early in the 16th century, which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the various Protestant church.

And so now we come to the road back; the Road back: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e very term, Reformation, the definition is the removal of faults or abuses; the religious movement in western Christendom beginning early in the 16th century, which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the various Protestant churches.

II. Contributing factors - corruption; invention of printing; revival of learning; increased acquaintance with scriptures.

그리스도교(개신교) 개혁운동을 일으키는데 뭔가 기여한 요인들 곧 부패, 인쇄술의 발명, 문예부흥 및 특히 성경말씀에 대한 친밀도 증가(고전의 재발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인쇄기의 첫 제품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슬에 묶인 책이었습니다. 이 모든 세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III. 그것은 실제로 아무 것도 개혁하지 않았음. 그것은 신앙을 저버린 교회로부터 파문당했거나 탈퇴로 끝났음. 그리스도교(개신교)의 시작.[III. It actually reformed nothing. It ended in excommunication from or withdrawal from the apostate church; the beginning of Protestantism.]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교(개신교) 개혁은 아무 것도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저버린 교회로부터 파문당했거나 탈퇴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신교)의 시작입니다. 저는 때때로 종교개혁을 아스피린에 비교합니다. 저는 여러분 대다수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왜 늘 그것을 복용하시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은 통증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아스피린은 결코 원인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아스피린은 단지 증상만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개신교) 종교개혁은 결코 그 원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을 치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길을 살펴봅시다.

I. 존 위클리프(14세기 후반)[I. John Wycliffe (latter part of 14th century)]

A. ‘종교개혁의 새벽’[A. 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

Here was something contributing factors to arise the Protestant Reformation: corruption; invention of printing; revival of learning; and specially the increased acquaintance with scriptures. The first product of printing press we called was the Bible. The Bible had been a chained book. All these centuries' people had not accessed to the Word of God. Do you remember what Jesus said, "For ye shall know the truth, that truth shall make you free"?

III. It actually reformed nothing. It ended in excommunication from or withdrawal from the apostate church; the beginning of Protestantism.

Now actually, however, the Protestant Reformation reformed nothing. It ended in excommunication from the church or withdrawal from the apostate church. That's beginning of the Protestantism. I compare sometimes the reformation to Aspirin. I imagine most of you are taking Aspirin. And you know why you usually take it. You want to get relieved. But notice! Aspirin never treats the cause. Aspirin only treats the symptoms. So the Protestant Reformation never did get back to the cause. It was only treating the symptom. So let's look at the road back.

I. John Wycliffe (latter part of 14th century)

A. 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

14세기 후반을 살았던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섯별'로 불렸습니다.

B. 교황의 수장권(首長權), 성체(화체)신학 교리 및 성직자계급제도 남용에 반대함[B. Was against the supremacy of the pope; the doctrine of transubstantiation and the abuses of the hierarchy.]

심지어 이 이른 시기에조차 위클리프는 교황의 수장권(首長權)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성체신학 교리(화체설)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성직자계급제도의 남용에 반대하였습니다.

C.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1380)[C. His greatest work -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English (1380)]

그리고 악마의 죽음에 쫓겼던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1380년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II. 틴들(순교자의 죽음 - 1536):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II. Tyndale (a martyr's death - 1536). English translation of the Bible]

오랜 시간이 지나 틴들(Tyndale)이 나왔는데 1536년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로 그 자신도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III. 루터(III. Luther)

A. 한 수도사가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로마를 방문했으며, 교회를 개혁하기로 결심하였음.[A. A monk, sought peace of mind, visited Rome, determined to reform the church.]

John Wycliffe who lived latter part of 14th century was referred to as 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

B. Was against the supremacy of the pope; the doctrine of transubstantiation and the abuses of the hierarchy.

Ah, even at this early date Wycliffe was against the supremacy of the pope. He opposed the doctrine of transubstantiation. And he specially opposed the abuses of the hierarchy.

C. His greatest work -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English (1380).

And his greatest work which was hounded to devil's death was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English in the year 1380.

II. Tyndale (a martyr's death - 1536). English translation of the Bible

Long came Tyndale who made a martyr's death in 1536 and primarily because he too had been guilty of translating of the Bible into English.

III. Luther

A. A monk, sought peace of mind, visited Rome, determined to reform the church.



마르틴 루터(1483-1546)

그런 다음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언급한 교황 레오 10세(Leo X)와 면죄부 판매에 다다를 때, 교회 자체 내에서 이 혐오스러운 관행에 대한 격렬한 항의가 있었고, 그것은 주로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의 교수였기도 한 불안정한 로마 가톨릭 수도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엄청난 영적 내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종류의 고행을 행하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몸이 허약해질 때까지 극도로 엄격하기를 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성스러운 도시 로마를 방문하는 매우 드문 특권을 누리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열에 넘쳤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로마 시 외곽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 압도되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닥에 굽혀 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가면서 방탕 곧 거룩한 성의 죄악 됨을 보기 시작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는 바티칸의 사치함을 보기 시작했을 때 말 그대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왔을 때 맹세했습니다. 그는 “저는 ‘로마의 배교자 교회’(라고 그가 일컬은 것)를 개혁하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독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기어이 확보한 첫 번째 것은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년간 로마 (가톨릭) 대학교에 있는 한 수도사와 교수는 그런데 성경을 결코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경험일 수가 있고, 동시에 그것에서 업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Then when you come to Pope Leo X whom we've already alluded to and the sale of indulgences, within the church itself there was a violent protest against this repugnant practice and it was a body primarily in the person of an insecure Roman Catholic monk who was also a professor of University of Wittenberg. He himself was under going to tremendous spiritual inner turmoil. And he'd been doing all types of penances, but to no avail. Even he wanted to be the extreme until beginning the fragility his body, but to no avail. Then one day he was announced to him. Then he was going to have very rare privilege of visit to the holy city of Rome. And he was ecstatic. He thought this was to solve all of problems. And in fact it is recorded that he was so emotionally overcome as he approached outskirts of the city of Rome. Then he literally prostrated himself to the ground and kissed the earth. And as he got up and made an entrance into the city, he was horrified when he began to observe the profligacy, the sinfulness of the holy city. And then he was literally dumbfounded when he began to observe the extravagances of the Vatican. And rather than solving these problems only compounded these problems so much. So he did vow when he got back home. He said, "I'm going to set about the task of reforming, what he called, "The apostate church of Rome."

When he got back home to Germany, the first thing he insisted on securing was the copy of the Bible. Now here all these years, a monk and a professor in the Roman (Catholic) university then never had a Bible. He was warned. He couldn't understand it. That would be a dangerous experience and feat in that all at once.

그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더욱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로마 교회의 교리들과 관행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당화할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간의 수 세기 동안에 교황들과 공의회들의 교령들이 처리한 이후로 존재하게 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B. 그의 이신칭의 교리는 공로에 의한 구원제도에 대한 반작용(롬 5:1).
 참조: 야고보서와의 투쟁[B. His dogma of justification by faith a reaction to the system of salvation by meritorious works (Romans 5:1). Cf. His struggle with the book of James.]

그러나 그가 읽을 때, 더 많이 읽을수록 그는 성경의 위대한 중심 교리를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가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서 얻은 것에 충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들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는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인간은 공로, 고해성사, 성례전 등의 제도에 의해서 의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그들에게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할 것이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감동해서 펜을 들어 로마서 5장 1절을 가로지르는 그의 성경 여백에 라틴어로 S·O·L·A, ‘Sola’라고 쓰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물론 오늘 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라틴 학자들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 ‘Solo’를 파생시킨 그 단어입니다. 그것은 ‘혼자’ 또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모든 복음주의 그리스도교(개신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널리 알려진 교리,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But he took his Bible and began to study it. As the further he read, the more confused he became. The reason for his confusion was the fact that nowhere in the Bible couldn't he find any basis of justification for many in the doctrines and the practices in the Roman church. For many of these we've already seen what had come into existence since the decrees of popes and councils were coping with in intervening centuries.

B. His dogma of justification by faith a reaction to the system of salvation by meritorious works (Romans 5:1).

Cf. His struggle with the book of James.

But as he read, the further read, the more aware he became of the great central doctrine of the Scriptures. And here were full force what he got here the Book of Romans the fifth chapter and the first verse. And he read these words: "Therefore we are justified by faith, and a peace with God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He was astounded. Here all these years he had been taught and had been teaching them, "Man would be justified by system of meritorious works, penance, sacraments and such like." Here the Bible taught them, "Man would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a peace with God." He's even looking for to the Lord Jesus Christ. He was so moved that he lifted his pen and in the margin of his Bible across the Romans 5:1 he wrote in Latin word, S·O·L·A, 'Sola' and he underscored. Of course, all you Latin scholars here tonight know that the word means. It's the word from which we get out an English word, 'Solo.' It means 'alone' or 'only.' And thus came into existence what today is the most popular and prevalent doctrine in all of Evangelical Protestantism,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only.

C.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 교수[C. Professor of Theology, University of Wittenberg.]

이제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 그다지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크게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의 배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 말씀에 대해 처음으로 행한 연구가 있었고, 그 모순된 교리, 공로에 관한 체계, 공로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의 과잉 반응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개울 맞은편으로 헤엄쳤고, 압정으로 그 단어 ‘오직’(ONLY)을 고정시켰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야고보서로 되돌아간 성경말씀을 상상하고 읽는 것을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야고보서에 대해 충분히 친숙하고 또 그가 어디에서 우연히 만났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 비유를 읽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 그가 읽을 때 그의 눈에 확 들어온 것 하나는 야고보서 2장 24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휴.”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지푸라기 서신이야. 그건 여기에 속하지 않아!”(That is the Epistle of Straw. That doesn't belong here.) 그리고 적어도 이 시점에서 그는 야고보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쓴 것과 모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경 수집에서 야고보서를 제외시켰습니다.⁹⁾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다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말씀에 대해 처음으로 행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문맥에 따라 같은 단어를 다른 방식과 다른 처지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그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9) 역자 주: 마르틴 루터는 1522년 9월에 출판한 독일어 신약성경 초판 서문에서 야고보서를 “의심할 바 없는 지푸라기 서신”(eine recht stroherne Epistel, a right strawy epistle)라고 적었고, 야고보서를 제외시켰다. 하지만 재판(再版)부터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한다.

C. Professor of Theology, University of Wittenberg.

Now you have to understand where this man was coming from. I don't get too critical of him at all. I have a great admiration for him. But remember his background. And here is the first study of Scripture and in the overreaction began that repugnant doctrine, that system on meritorious works, the things that a man could do to earn a merited salvation. He swam the opposite stream and tacked down that word ONLY. Can you imagine and continue reading to the Scripture he'd got back to the Book of James? Now are you familiar enough for the Book of James and know where he ran into? He read this figure of speech, "Even as the body apart from the spirit is dead, so also faith apart from works is dead." Of the one that hit him between eyes was James 2:24 when he read, "Therefore we are justified by works, and not by faith only." "Hew," he said, "That is the Epistle of Straw. That doesn't belong here." And at this point in time at least he excluded the Book of James from his collection of the Scripture because he thought James contradicted what Paul had written back in the Book of Romans and Galatians and Ephesians.

But again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This is the first study of the Scripture. And he is not yet aware of the fact that the Bible uses the same word in different way and different place depended upon context. For instance, when the Apostle Paul here is talking about faith, he is not talking about the same faith that James is talking about.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는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과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가 율법의 행위에 대해 말한 행위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 구원의 획득된 공로입니다. 이제 사도는, 사람에게 의해 의롭다함을 입은 행위의 법 때문에(because of the law for works justified by man), 그는 이것들을 군더더기(이음매) 없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취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를 구원하는 대신 그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여기에서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는 율법의 행위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행위 혹은 믿음을 성취하는(make)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롭게 하는 믿음, 곧 야고보가 “여기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귀신들도 믿고 떠난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믿음은 야고보의 행위에 믿음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는(루터는)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명백한 모순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¹⁰⁾

D. 테젤과 면죄부 판매[D. Tetzal and the sale of indulgences.]

E. 95개 논제 - 1517년 10월 31일[E. The 95 theses - October 31, 1517.]

마침내 그는 자리에 앉아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들 면죄부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일요일의 어느 시점에 그는 비텐베르크 대성당

10) 역자 주: 여기서 하비 브림 목사는 야고보는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바울은 ‘믿음이 있는 행위’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nd when James says, "Man is saved by works," he is not talking about the same works that Paul was talking about over here. I just thought about works he talked about the works of the law. Any work that man does that he thinks work by he deserves are earned merits of salvation. Now Apostle, because of the law for works justified by man, he gets these seamlessly morally perfectly. Therefore the law instead saving him would condemn him. So you can't be saved by works. But when James over here says, "Man is saved by works," he's not talking about the works of the law. He's talking about the works of faith or works that makes faith. Paul's justifying faith. When James says, "Here man is not saved by faith only," he's not talking about the same faith with Paul's talking about. Remember James says, "The demons believe but tremble." So here Paul's faith is James's works plus faith. But at this point in time he thought he saw an apparent contradiction between James and Paul.

D. Tetzel and the sale of indulgences.

E. The 95 theses - October 31, 1517.

At last he sat down and he wrote 95 theses of propositions. Many of them were dealing with these problems of indulgences. And that a moment of Sunday October 31, 1517 AD, he tacked these '95 Theses' to the church door of the Cathedral of Wittenberg

교회 문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누구나에게 도전하면서 이 모든 95개조 명제들에 대해 누가 됐든 공개 플랫폼에서 그와 논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교(개신교)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론 마르틴 루터입니다.

F. (교황의) 파문 교서, 교서를 불태움 - 1520년[F. Bull of excommunication; Bull burned - 1520.]

이후 일련의 재판이 열렸고, 루터를 철회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520년에 절망에 빠진 로마 교황은 교서 또는 파문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오, 루터가 그 교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앉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성냥을 가져다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불태웠습니다. 오, 그것은 종교개혁의 불길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스위스 속으로 휩쓸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자들 두 사람은 올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¹¹⁾와 장 칼뱅(John Calvin)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길게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시작할 때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그러면 저는 우리가 오늘밤 할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기를 바라고, 내일 밤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여 내일 밤에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원운동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내일 밤에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츠빙글리와 칼뱅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칼뱅은 바로 현 시점까지도 그 어떤 사람보다 그리스도교(개신교) 종교개혁에

11) 역자 주: 여기에서 하비 브림 목사는 Ulrich Zwingli를 John Zwingli로 잘못 발음하였다.

challenging anyone of the entire Roman Catholic Church debating him on public platform on anyone of all 95 these propositions. Thus began, oh we refer to it as the Protestant Reformation. And that man is, of course, Martin Luther.

F. Bull of excommunication; Bull burned - 1520.

Series of trials were held subsequently and efforts to get Luther recant. But he refused. So at last in desperation in 1520 the Pope of Rome issued a bull or a pronouncement of excommunication. Oh Luther got that. He didn't take sitting down. He wanted out in public. And he put the match to it. And he burned it publicly. Oh that just fanned the flame to the Reformation and they swept down into Switzerland. And two men of reformers in Switzerland were Ulrich Zwingli and John Calvin.

I just want to pause right here and see how long we've been going. I didn't clock when I began. One hour. I think what we'll do tonight then, hopefully, what's your appetites, and you come back tomorrow night. And we'll take up here and then get on into a new beginning tomorrow night which is the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We'll be doing that tomorrow night. But we'll begin with Zwingli and Calvin. And I hope you'll be here because Calvin had the most pervasive influence upon the Protestant Reformation

가장 폭넓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더 다뤄야 할 것이 칼뱅주의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밤에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길(the Road Back)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내일 밤에 그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 곧 흥미진진한 이야기, 신약성경의 이상(理想)을 좇는 참 교회 운동에 대한 대본 읽기(rehearsal)라는 웅대한 주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 기도하실까요?

폐회기도[Closing Prayer]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는 수년에 걸쳐 극심한 역경들을 헤쳐나간 남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저희에게 계시하시고 아버지의 진리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진리가 저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사실과 우리가,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전파해야하는 전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죄지음으로부터의 자유, 미신으로부터의 자유,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권리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당신의 복을 저희의 논의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것들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빛나는 사람들처럼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G. 사제들에 의해 해석된 책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선포된 하나님의 책
[G. God's Book proclaimed for the people rather than as interpreted by the priests.]

H.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 1530[H. Augsburg Confession of Faith - 1530.]

than any man to this very present hour. I think what we'll have to deal with more than anything else today is Calvinistic theology. And we'll discuss this and more detail tomorrow night. So we'll conclude at this point with the road back and tomorrow night continue in that and get into the grand theme of a new beginning, exciting story and rehearsal of the movement of true church after New Testament ideal. Shall we bow our heads for prayer?

Closing Prayer

Gracious Father, we thank you for men and women of faith who had their lives across the years and the most adverse circumstances. We thank Father that you have revealed yourself to us and that your truth appeals to man's reason. We thank Father for the fact Jesus told us that the truth would set us free and our thrill we are Father to have preached to our hearts the Word of Truth. Help us to handle the right that man might know freedom from sin, freedom from superstition, freedom from guilt and know the joy of freedom in Christ. We pray for your blessing upon our discussion tonight. And Father may it cause us to be like those brilliance to search the Scriptures daily to see if these things so. And we asked in Jesus' name. Amen.

G. God's Book proclaimed for the people rather than as interpreted by the priests.

H. Augsburg Confession of Faith - 1530.

IV. 다른 개혁자들:[IV. Other Reformers:]

주일 저녁에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와 그 초기 역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려고 힘쓰고 있는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려고 힘쓰는 신약성경교회의 여섯 가지 주요 특징들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어젯밤에 “무엇이 교회에 잘못되었는가?”라는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세 세사에 관한 암흑시대와 중세시대의 대배도와 신약성경의 교리와 관행으로부터의 아주 많은 이탈과 그것들이 이후의 교회 공의회들과 교황들의 교령들과 그 같은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공부하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Leo X)의 면죄부 판매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반발(저주)하는 한편, 그 행위가 교회 자체 내에서 격렬한 반응, 곧 이 혐오스러운 면죄부 판매 관행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일제히 분기한 저항은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에게서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저녁에도 이 사람이 10월 31일에 끼친 엄청난 영향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모든 반대자들은 그가 비텐베르크 대성당의 교회 문에 “95개조의 의제”를 붙이고, 이 모든 95개조의 의제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개 강단에서 자신과 토론하자며 전체 로마가톨릭교회에 속한 누구에게나 도전했을 때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스위스까지 휩쓸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밤 “돌아가는 길”에서 다룰 내용이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A. 스위스-츠빙글리(1484-1531)[A. Switzerland-Zwingli (1484-1531).]

1. 성상 파괴[1. Crusade against images.]

스위스에서 두 주요 개혁자들은 율리히 츠빙글리와 장 칼뱅이란

IV. Other Reformers:

On Sunday evening we talked about how all began. And we looked at the church commencing on the Day of Pentecost and its early history and the church that we're endeavoring to restore today. And we studied the six primary characteristics of the New Testament Church that we endeavor to restore today. Then we came to the issue last night that "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 And we studied the great apostasy of the Dark Ages and Medieval Period about our world history and the many many departures from New Testament doctrine and practice and how they were brought into being by subsequent church councils and decrees of popes and such like. Communiting in the selling of indulgences by Pope Leo X and effort to complete the project the building St. Peter's of Rome, which act caused a violent reaction within the church itself, a protest against this repugnant practice of selling indulgences, that protest in a body was primarily in the person of Martin Luther. And we studied last evening also the tremendous impact that this man made as on at day of October 31. All these averse comminated when he tacked "95 Theses" to the church door of the Cathedral of Wittenberg and challenged anyone in the entire Roman Catholic Church debating him on public platform on anyone of all 95 these propositions. But the Reformation swept down into Switzerland. That's what we take up tonight in "The Road Back," which is the title of this current series that we are now in.

A. Switzerland-Zwingli (1484-1531).

1. Crusade against images.

The two main reformers in Switzerland were men by the names of John Zwingli and John Calvin.



울리히 츠빙글리(1484-1531)

이름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츠빙글리는 군인이었습니다.¹²⁾ 실제로 그는 결국 전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교회 건물들로 들어가 이들 아이콘들과 성상들을 집어 들고 건물 밖으로 끌어내어 거리들 한가운데와 교회 건물들 앞에서 부숴버린 인물은 츠빙글리였습니다. 물론 그 같은 행위는 츠빙글리를 그 특징한 시대에 매우 인기 있는 인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2.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성체를 위해 첫날에 모여야 함을 강조함[2. Emphasized that all Christians should meet on the first day for communion.]

그러나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주의 만찬이 주일마다 다시 거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람들이 빵뿐만 아니라 잔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츠빙글리였습니다. 그 이전의 특권은 몇 세기 전에 교회 공의회들과 교황들의 교령들에 의해 박탈되었습니다.¹³⁾

12) 하비 브림 목사는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의 이름을 '존'(John)으로 착각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이름은 '울리히'(Ulrich)이며, 군목이었다.

13) 츠빙글리에 관한 하비 브림 목사의 강연에 오류가 있는 듯싶어 바로 잡고자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사는 그 자체가 성만찬 예배였으나 신도들에게 잔이 주어지지 않았고, 고해성사를 받지 못한 신도들은 빵조차 받지 않았다. 츠빙글리는 미사에서 사라진 자국어(自國語) 예배와 설교를 복원시키고 예배순서를 간소화시켰다. 성당에서 아이콘, 성상, 악기들을 제거할 때 주의 만찬도 함께 주일예배에서 분리시켜 연중 4회(부활절/봄, 성령강림절/여름, 가을, 성탄절/겨울)로 제한시켰다. 대신에 빵과 잔을 함께 받게 하였다. 츠빙글리는 주일예배에서 설교를 복원한 대신에 주의 만찬을 빼냄으로써 주일예배를 기도회로 전락시켰다. 매주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은 사람은 칼뱅이었다. 그는 츠빙글리가 고착시킨 연중 4회의 주의 만

Now Zwingli was a soldier. In fact eventually he died in a battle. But it was Zwingli who with his men would march into the church buildings take hold of these icons and images, drag them out of buildings and smash them in the middle in the streets and front of the church buildings. Of course had it make Zwingli a very popular fellow in that particular day.

2. Emphasized that all Christians should meet on the first day for communion.

But Zwingli made a very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Reformation. It was Zwingli that insisted that the Lord's Supper be observed again every Lord's Day and the people should have accessed to the cup as well as to the loaf. That prior privilege has been taking away some centuries earlier by the decrees of church councils and popes.

찬을 매주로 바꾸려 하였으나 시의회가 허락하지 않아 실패하였다. 당시 취리히나 제네바의 그리스도교는 시의회(국가)종교였다.

츠빙글리가 행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침례를 공로와 최초로 동일시한 인물은 츠빙글리였습니다. 그 같은 그리스도교(개신교) 종교개혁에서의 강조는 바로 이 시간까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일종의 일 곧 공로와 동일시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례가 공로에 해당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이상(ideal)을 따라 교회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은 배경(맥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마가톨릭교회를 대항할 강한 믿음을 증명한 이 모든 위인들은 참회들과 성사들과 공로들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고 강하게 강조하는 이 배경에서 나온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반응에서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당한(공로에 따른)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침례를 이런 종류의 일과 동일시하였습니다.

B. 1536년 칼뱅이 제네바로[B. Calvin to Geneva in 1536.]



장 칼뱅(1509-1564)

그러나 칼뱅은 아마도 바로 현 시점까지 그리스도교(개신교) 종교개혁에서 가장 널리 영향을 끼친 인물일 것입니다. 이제 칼뱅이 실제로 믿었던 생각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젯밤 배도에서 논의했던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가 일찍이 가르치고 소개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교회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원죄교리 곧 아담의 죄의 결과뿐 아니라 부패와 유죄가 인류에게 유전되었다

One of the things that Zwingli did is not well known for this but it can be traced back to him. It was Zwingli that primarily equated baptism with a meritorious work which emphasis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is carried down to this very hour. Many people would equate baptism as a work, meritorious work which, of course, Bible does not say. We do not believe it in our effort to restore the church after New Testament ideal. But this again you have to understand the context which, all these great men who had attested a strong faith to withstand Rome, that they came out of this background of a strong emphasis upon salvation by penances and sacraments and meritorious works, and so in the reaction to anything that a man could do they construed anything that man can do as his effort to earn a merited salvation. Therefore, they equated baptism with this type of work.

B. Calvin to Geneva in 1536.

But Calvin perhaps is the man who had the most pervasive influence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up to this very present hour. Now most of the thinks, that Calvin believed in practice, had been earlier taught and introduced by Augustine whom we discussed last night in the apostacy, one of the early church Fathers who was one who began to teach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the fact that the taint and the guilt as well as the consequence of Adam's sin passed onto all men.

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아기가 필요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칼뱅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1. 예정(선택)[1. Predestination (election).]

또한 그는 원죄의 결과, 즉 인간의 전적인 유전적 타락을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너무 타락(부패)했기 때문에 바로 그 본질상 원죄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설교하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무능(incapability), 인간의 무력(inability)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은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사실 곧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거나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죄교리와 전적인 유전적 타락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루터처럼 칼뱅은 인간이 공로에 따른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다는 역겨운 공로에 의한(공로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자신의 과잉반응에서 마치 루터가 믿음에 의한(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오직’(ONLY)이란 단어를 붙임으로써 경도되었듯이 다른 극단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ONLY) 믿음에 의한 구원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칼뱅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런데 믿음이 그랬던 것처럼 오랫동안 무시당한 성경의 교리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과잉반응에서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부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절대적이다. 사람이 일찍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영원한 운명 곧 천국에 갈 사람들과 지옥에 갈 사람들이 정해져있고, 사람이 태어난 후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예정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칼뱅주의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만약 사람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유전된 것이라면, 그러면

They wanted the baby who was born of born in sin. Luther believed that. Calvin believed that.

1. Predestination (election).

Also he believed the result of original sin, the total hereditary depravity of man. He believed man, because he was so corrupted, because of original sin in his very nature, and he was incapable of his responding in faith through the Gospel to one who preached to his heart. We called that man's incapability, man's inability. And again you have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They're believing that nothing a man can do, a man can do anything to a fact his salvation. But because of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and Total Hereditary Depravity, it then was that which brought into existence the Doctrine of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Now Calvin like Luther in his overreaction against the repugnant doctrine of salvation by meritorious works man can do to earn a merited salvation swung to the other extreme like Luther in his swing tacked out a word ONLY to salvation by faith. And he came off salvation by faith ONLY. So now here comes Calvin. He begins to stress the sovereignty of God which by the way like faith is a great long neglected doctrine of Scripture. But in his overreaction he began to stress what he called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He said, "God's sovereignty is so absolute. There are men to eternal destiny, heaven or hell, predetermined by God before a man was ever born, and after a man was born, nothing he can do can alter God's predetermination." This is what we call Calvinistic Predestination. That, however, caused a problem. If because of man's original, because of Adam's original sin passed on all men,

사람들은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전파된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도 절대적이어서, 사람은 일찍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받을 것인지 버림을 당할 것인지가 예정되었고, 그러고 나면 사람은, 그가 태어난 후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지 버림받기로 예정되었는지를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된 자들 중에 있는지 저주 받은 자들 중에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여 그가 회개하도록 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을 자신의 마음에 받는 이 체험을 갖는다면, 그러면 그는 선택된 자들에 속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 경험을 한 번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저주받아 버림받은 자들에 속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예정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숙명론적인 교리입니다.

2. 성도의 견인[2. Perseverance of the saints.]

물론 그때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교리의 전파를 계속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찍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미리 정하신다면,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신다면, 그때는 분명히 ‘한번 은혜는 영원한 은혜’(Once in Grace Always in Grace)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잃은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인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Once Saved Always Saved)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른바 ‘성도의

then men became thus totally depraved and were incapable responding in faith to Gospel preached, and a God's sovereignty was so absolute that he predetermined before a man was ever born whether he is saved or lost, then a man, after he is born, could do nothing to alter God's predetermination. And then question is this. How can I know whether I've been predetermined by God to be saved or lost? How can I know whether I am among the elect or among the damned? So Calvin taught that He took the operation of the Holy Spirit of God upon the soul of the man to bring him to repentance. And thus in a position received, gifted faith is, what we called, Doctrine of God's Irresistible Grace. Therefore, if a man had this experience to receive this operation of the Holy Spirit upon his heart, then he knew he had been predetermined by God to be among the elect. But if he never received this experience, he knew that he'd been predetermined by God to be among the damned to be lost. And no other he could do could alter God's predetermination. It is very fatalistic doctrine.

2. Perseverance of the saints.

Of course then if this were true, that would sustain the propagation of another doctrine. If God in the absolute sovereignty predetermined your eternal destiny before you were ever born, then if you received this Irresistible Grace, then obviously 'Once in Grace Always in Grace.' You can never be the lost. 'Once Saved Always Saved' because God had predetermined and you received that seal through this operation of the Holy Spirit.

견인'이란 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잘못된 전제를 허용할 때, 그것에 논리적으로 적용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C. 헨리 8세[C. Henry VIII]

1. 캐서린(Catherine)과 이혼하고 앤 불린(Anne Boleyn)과 결혼함으로써 로마가톨릭교회와 갈라섬[1. Split with Rome over divorce of Catherine and marriage to Anne Boleyn.]



헨리 8세(1491-1547)

그런데 종교개혁은 이제 다른 방향에서 진전되었습니다. 그 진전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헨리 8세 왕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헨리 8세 왕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배회하는 눈(roaming eye)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아들을 낳아줄 여성들(women crop)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캐서린(Catherine)에게 (아들을 낳아주기를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캐서린은 또한 그에게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앤 불린(Anne Boleyn)에게 그의 눈이 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 왕은 로마가톨릭교회 교황에게 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캐서린과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오, 교황에게 있었던 일은 헨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헨리. 저는 그대측이 허튼소리를 하도록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앤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캐서린과 계속

So that's the doctrine, we called, Perseverance of the Saints. So you see, when you allow a false premise, how easy it is to go logically upon it.

C. Henry VIII

1. Split with Rome over divorce of Catherine and marriage to Anne Boley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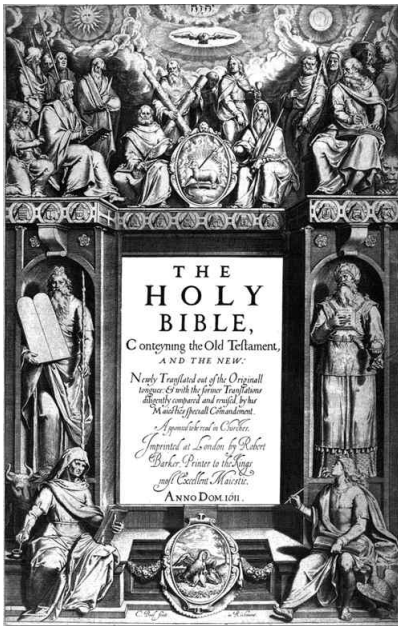
Well the Reformation now took a different twist. It comes upon in England. You all heard King Henry VIII. King Henry VIII had a problem. I refer to as an eye problem. I call it the roaming eye. What he was doing was looking over the women crop. And he was tired of Catherine. Catherine also had not given him an heir to the crown. And he had his eye on Anne Boleyn. And he wanted to divorce Catherine so he can marry Anne. But he was going to do a proper. So King Henry VIII petitioned the pope of Rome for permission to divorce Catherine so he can marry Anne. Oh what happened to the pope wrote back to Henry and in the fact he said, "I'm sorry, Henry. I'm not having your party your shenanigans. You might go to forget all about Anne. You're going to stay hitched to Catherine."

붙어있을 것입니다.” 오 헨리 그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지.”라고 하였습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하고 더 나아가 앤 불린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또한 영국교회를 로마가톨릭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국교회를 설립하였고 자기 자신이 영국국교회의 수장 곧 명목상의 수장 계승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국교회의 명목상의 수장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2. 영국국교회(성공회) 1530년(미국 - 감독교회)[2. Church of England (Anglican) 1530 (in America - Episcopal).]

물론 미국 독립 이후 미국에서는 영국국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고교회파 감독교회(the Episcopal Church for the High Church Episcopal)로 알고 계신 것은 영국국교회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오, 우리는 때때로 성공회(the Anglican Church)라고 말합니다.



1611년에 발행된 킹제임스흠정성경 타이틀 페이지. 성경의 주요 인물들인 바울, 베드로, 모세, 아론 등을 묘사하였다. 최상단에 히브리어로 야훼(여호와)라 적고, 그 밑에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묘사하였다.

3. 제임스 왕과 흠정(欽定) 영어 번역 - 1611년[3. King James and Authorized English translation - 1611.]

제임스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영국국교회가 로마가톨릭교회와 연합하여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후퇴(누수)에 대한 이유가 그들이

Oh Henry he got a backup. He said, "I'll just show you, who's who." Not only did Henry VIII proceeded to divorce Catherine and go ahead and marry Anne Boleyn but he then also proceeded to divorce the Church in England from the Church of Rome. And he established the Church of England and made himself all heirs to the crown, titular heads of the Church of England which to this very day Queen Elisabeth is the titular head of Church of England.

2. Church of England (Anglican) 1530 (In America - Episcop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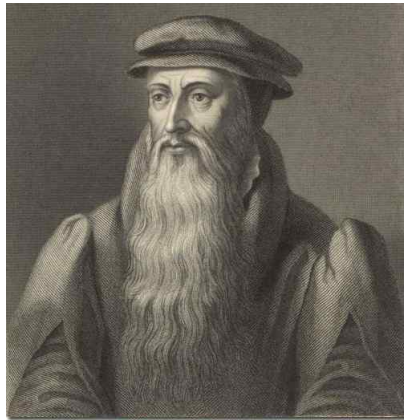
Of course, after the American Revolution, there is no way in America that it could refer to it as the Church of England. So today what you know as the Episcopal Church for the High Church Episcopal is the counterpart of the Church of England. Oh we sometimes refer to as the Anglican Church.

3. King James and Authorized English translation - 1611.

When King James came to the throne, he was alarmed because he saw the Church of England dripping back in the union with the Church of Rome. And he figured the reason for this drip was a fact that they

여전히 라틴어로 모든 미사를 읽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은 영국국교회의 학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을 존재케 하였으며, 영어번역성경을 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후 1611년에 흠정된 제임스 왕 번역이라는 사본들 중 하나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 스코틀랜드 - 존 녹스 - 노회에 대한 강조[D. Scotland - John Knox - emphasis on the presbytery.]



존 녹스(1514-1572)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은 계속 이동하여 스코틀랜드에 진입하여 휩쓸었습니다. 이제 여기 스코틀랜드의 주요 개혁자는 존 녹스(John Knox)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존 녹스는 사제직 계급제도의 독재적인 감독에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경을 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쇄기가 발명되었고, 인쇄기의 첫 번째 출판물이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개 교회에서 이런 유형의 권위나 통치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또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유형의 언급된 사제직을 그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개 교회들에서 발견한 것이 있다면, 유일한 사제직은 만인 사제직이었습니다. 신약성경말씀이 가르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사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were still reading all the Masses in Latin. So King James called together the scholars of the Church of England and had them bring into existence and authorized English translation of the Scripture. And I brought the copy with me tonight to show you folks. I've got it right here. I imagine you all have one of copies called the King James translation authorized in 1611 AD

D. Scotland - John Knox - emphasis on the presbytery.

Now, however, the Reformation kept down moving and swept up into the Scotland. Now the main reformer here in Scotland is a man by the name of John Knox. And John Knox was resisting and rebelling against dictatorial oversight of the religious hierarchy the priesthood. And he took his Scripture because now the printing press had been invented and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printing press was the Bible. And he took his Bible and began the study to see if he could find in the New Testament any justification of this type of authority or government in the local church. To his amazement he studied and studied and studied. And nowhere, nowhere in the New Testament couldn't he find this type of priesthood mentioned at all. If that only priesthood he found in the local churches was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taught that every Christian is a priest before God.

개 교회에서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통치는 그가 장로들이라고 불렀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장로라는 말을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πρεσβύτερος, presbyteros)란 말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 ‘presbyteros’를 ‘presbyter’(장로)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영어 쪽이나 앵글로(Anglo) 쪽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번역한 ‘장로’(elder)가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개 교회들에서 결코 기능하지 않았던 장로들의 (기능)회복에 대한 존 녹스의 강조 때문에 개 교회들에서 장로들과 그들의 기능 회복에 대한 강조에서 우리가 장로교 교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날 존재하게 된 경위입니다.¹⁴⁾

E. 존 웨슬리 - 1729[E. John Wesley - 1729.]

1. 체험중심의 종교, 집에서 모이는 구역기도회들, 부흥회들[1. Experience-centered religion, cottage prayer meetings, revivals.]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종교개혁에서 또 다른 이상한 방향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곧바로 후퇴합니다. 이제 개혁하려는 노력 곧 영국국교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전례를 통해서, 의식들을 통해서, 외적인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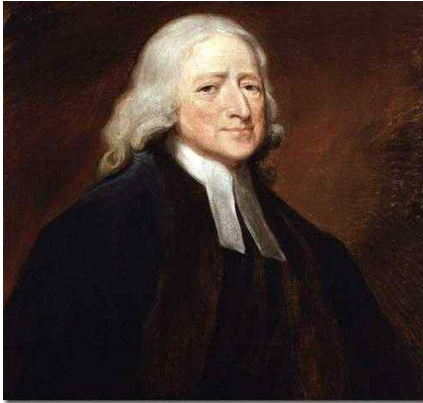
14)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개신교) 장로들은 16세기에 장 칼뱅과 존 녹스의 평신도 장로 대의제 도입에서 비롯되었다. 원칙은 회중에 의해 선출된 회중의 대표가 치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국가교회체제였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20인, 60인, 200인의 시의회들에서 전통에 따라 여성을 배제한 채 남성들만으로 배정된 인원수대로 치리 장로들을 선출하였고, 칼뱅은 이들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바가 있다. 존 녹스 역시 장 칼뱅이 제네바에 확립시킨 개혁교회 장로회 제도를 도입하여 스코틀랜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 정착시켰다. 스코틀랜드에서 회중이 선출한 치리 장로들과 사제(장로)들로 구성된 당회(session)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것은 1563년부터였다. 이때 치리 장로의 임기는 제네바에서와 마찬가지로 1년이었으나 인적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1578년부터는 종신직으로 바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교회체제 아래에서조차 16세기 이후 그리스도교(개신교)의 장로들은 임기가 제한된 평신도 선출직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원칙이 미국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와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연방수정헌법(1791년 12월 15일)이 채택된 이후에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And the only government he could find in the local church resided in it, what he called, the presbyters. Now he got that word presbyter from the Greek word, 'presbyteros.' And it was simply English side or Anglo side that Greek word, 'presbyteros,' came up the word presbyter. It's the word we translated, elder. And because of John Knox's emphasis upon a restoration of the presbyters never functioned in the local churches, that's how they came into existence today what we referred to as the Presbyterian denomination from the emphasis upon restoration of the presbyters and their function in the local churches.

E. John Wesley - 1729.

1. Experience-centered religion, cottage prayer meetings, revivals.

But now, lo and behold, another strange twist in the Reformation. It moves right on backdown in the England again. Now there was effort to reform, to reform Church of England. Because what they're beginning to say is this, "You don't worship God through liturgy, through ceremonies, through external forms. You have to worship God.



존 웨슬리(1703-1791)

축(실행)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존과 찰스 웨슬리(John and Charles Wesley)라는 두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존과 찰스 웨슬리는 이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그들이 집에서 모이는 구역기도회들(cottage prayer meetings)이라고 부른 것을 조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부흥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착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미 있게 예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른바 체험적 혹은 감동적인 신앙(종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추진력 즉 영국국교회의 종교개혁 추진력의 두 개의 주요

2. 감리교인들(방법론자들)[2. Methodists.]

그들은 또한 종교(신앙)의식을 형식(공식)화하였습니다. 그것들은 하루 내내 주기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고 매우 체계적(방법적)으로 개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닉네임(별명)이 신앙운동에 붙었고 그것이 그들(감리교인들)이 존재하게 된 경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날 우리가 감리교 교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체계(방법)적이고 이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존 웨슬리는 그 이름의 사용, 실은 그 행위들을 개탄하였습니다. 그 이름과 전례 사용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은 성경적인 이름 곧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이름을 단순히 사용하였습니다.¹⁵⁾ 그리고 오늘날 이 유산을 물려받은 교단들에서는 존 웨슬리가 영국국교회의 일원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If you're going to worship God meaningfully, you have to have a personal experience with Christ." They began to stress, what they called, an experiential or a heartfelt religion.

The two main implementals of this thrust, reformation thrust in the Church of England were two brothers that you all know well, John and Charles Wesley. And John and Charles Wesley in effort to implement this reform began to institute what they called cottage prayer meetings. They also then began to initiate what they refer to as revivals.

2. Methodists.

They also formulated religious exercises. They would be begun through throughout the day periodically. And because they used all these various methods and were very methodically their reform efforts, the nickname attached the movement and that's how they came into existence. You all heard me what we refer to today as the Methodist denomination because they were very methodical and used all these methods. And at this point in time John Wesley deplored the use of the name, in fact, the acts. Those who were in the movement to desist from using the name and precedent simply used name, Christian, the Bible name. And both in this heritage today a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John Wesley lived and died a member of the Church of England.

15) 오켈리-해가드 운동을 말한다.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ey)와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는 감리교 목회자들로서 감독 애즈버리(Asbury)의 독재에 반발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주 매나킨타운(Manakin Town)에서 1793년 공화감리교회를 조직하였으나 기존교단들에 또 하나의 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겨 1801년에 해체하였다. 그들은 회중정치를 표방하였고, 신약성경이외의 신조나 규율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또 그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1831년 12월 31일에 통합된 스톤-캠벨 연합에 동참하지 않았다. 성령의 은사(회심)체험, 연4회 주의 만찬 시행, 반(反)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그들의 신앙노선 때문이었다. 그들의 신앙은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니다. 다른 그룹(교단)을 시작하려는 시도는 전혀 존 웨슬리(John Wesley)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영국국교회를 개혁하려는 것이었습니다.¹⁶⁾

V. 종교개혁 직전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 1492년[V. Discovery of America just preceding the Reformation - 1492.]

A. 유럽을 휩쓴 종교재판에서 탈출[A. Escape from the Inquisition sweeping Europe.]

물론 바로 이 시점에 종교개혁운동이 산불처럼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또한 동시에 시대흐름을 저항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유럽 전역에서 유혈 종교재판이 휩쓸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성경사본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들이 이들 다양한 개혁운동들의 일원인 것이 밝혀지면, 그들은 체포되고, 투옥되고, 구타당하고, 심지어는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그리스도교(개신교) 종교개혁이 있기 불과 몇 년 전에 우리의 세계 역사의 전체 과정을 제공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유명한 연대 1492년에 대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인간사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속박과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신세계의 해안지방들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국가교회의 족쇄들이 풀려지고 있었습니다.¹⁷⁾

16) 이 점에 있어서는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다. 루터는 가톨릭교회의 잘못을 고치려고 시도했지, 완전히 부정하거나 등질 생각이 없었다.

17) 정치와 종교의 분리 및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연방수정헌법이 1791년 12월 15일에 채택 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교 즉 가톨릭교회, 정교회, 루터교

It was not John Wesley's effort at all trying to start another group. His effort was to try to reform the Church of England.

V. Discovery of America just preceding the Reformation - 1492.

A. Escape from the Inquisition sweeping Europe.

At just this juncture, of course, Reformation Movement was sweeping across Europe like wild forest fires. And then the desperate effort to withstand tide also then at the same time began to sweep across Europe the bloody inquisition. If anybody was found in possession of the copy of the Bible or they were found to be a part of any of these various reform movements, they can be arrested, imprisoned, beaten, even burned at stake. And at this very critical juncture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there had transpired not many years prior to the Protestant Reformation any event that offered the entire course of our world history. And you're all familiar with that famous date 1492.

Here you see the Holy Spirit at work. You cannot understand history If you don't acknowledge the hand of God in the affairs of man. And the new world had been discovered by Columbus. And now there was great emigration to the shores of new world by those who were seeking freedom from not only political but religious bondage and pressure. But a strange phenomenon took place. Now were the shackles of the state church having been stricken off.

회, 개혁교회, 영국교회 등이 모두 국가종교 또는 시의회 종교였다. 따라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고, 가톨릭교회는 물론 개신교회들 안에서도 종교탄압이 극심하였다.

B. 다른 사람들에게 경시당하는 특정한 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세워지고 있는 가리지색의 교단들. 우리가(자신들이) 장로회, 성공회(감독교회), 침례회, 회중교회, 감리회, 가톨릭교회, 개신교회 등이라는 의미이지만, 솔직히 유일한(ONLY)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장(호소)[B. The multiplicity of denominations being built around particular doctrinal emphases being neglected by others. The sense in which we are Presbyterian, Episcopal, Baptist, congregational, Methodist, catholic, protestant, etc., but with the plea to be simply and ONLY Christian.]

이제 수 세기, 수 세기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게 되면서 갑자기 가리지색의 종파들과 이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¹⁸⁾

C. 미국에서 지속된 분열:[C. The divisions perpetuated in America:]

1. 칼뱅주의의 영향[1. The influences of Calvinism.]

2. 신조들의 반포(각 교파들이 율타리 설치)[2. The propagation of creeds.]

3. 거의 극복할 수 없는 교파 벽들, 전쟁 캠프들, 당파심과 분열정신이 그 후로 세워짐[3. The subsequent erection of almost insurmountable sectarian walls, the warring camps, the party, divisive spirit.]

18) 종교개혁이전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불가타) 성경이외에는 불법이 었다. 가톨릭교회의 경우 1960대까지 자국어 성경을 가질 수 없었다.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고(1445년경) 종교개혁이 이뤄지고 나서야 비로소 유럽에서 여러 개신교회들이 자국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미연방수정헌법이 1791년 12월 15일 채택된 이후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여러 교파들이 탄생하였다.

B. The multiplicity of denominations being built around particular doctrinal emphases being neglected by others. The sense in which we are Presbyterian, Episcopal, Baptist, congregational, Methodist, catholic, protestant, etc., but with the plea to be simply and ONLY Christian.

Now having accessed to Word of God for the first time after centuries and centuries, suddenly a multiplicity of sects and cults began to spring up.

C. The divisions perpetuated in America:

1. The influences of Calvinism.

2. The propagation of creeds.

3. The subsequent erection of almost insurmountable sectarian walls, the warring camps, the party, divisive spirit.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등한히 여겨졌던 성경 교리들로부터 자신들을 세우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때때로 다른 성경 교리들을 배척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교파주의가 점점 더 높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그들이 거의 극복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4. 불신앙을 위한 기회와 산란 장소를 제공[4. Providing an occasion and spawning ground for infidelity.]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쓰라리고 신랄하고 경고하는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그리스도교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비극적인 분열의 황폐함은 불신앙의 씨앗들을 위한 완벽한 산란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8세기 중반에 교육계에서 우리가 프로이센 합리주의 즉 구 독일 합리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신세계의 해안들에 상륙하였기 때문에 이제 합리주의는 철학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미국의 모든 고등 교육기관에서 가장 우세한 철학이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철학입니다. 철학, 합리주의는 철학입니다. 그것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이성만은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며, 그것만이 껍질의 궁극적인 핵심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합리주의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 개념을 거부하거나 배격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념을 거부해야 할 것이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관념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정녀 탄생, 육체의 부활 등을 포함한 기적들의 가능성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주의자는 황폐화되고 있었던 분열된 그리스도교계에 이진술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이 모든 교파들이 여기 이 모든 종교단체들이고, 모두가 같은 성경을 갖고 있으며, 또 그들 모두가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그들 모두가 그들이 같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그러면 그들

Many of them were building themselves from long neglected Bible doctrines, but sometimes in the exclusion of other Bible doctrines until incredibly, as you watched, the worse of sectarianism began to be raised higher and higher and higher until they became almost insurmountable.

4. Providing an occasion and spawning ground for infidelity.

And an unbelievably bitter and vitriolic and warning spirit began to prevail among the professing believers in Jesus Christ. And this tragic blight of division that it now come on fast in some upon Christendom provided a perfect spawning ground for the seeds of infidelity.

Because also in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there came to the shores of new world what in educational circles we refer to as Prussian Rationalism, Old German Rationalism, now Rationalism is a philosophy. It is the most prevalent philosophy, the most pervasive philosophy in all ou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America today. Philosophy, Rationalism is the philosophy. It says, "The mind of man or human reason is the sole source of knowledge and it alone is the ultimate core of the peels." You see by the very nature Rationalism repudiates or rejects the idea of the supernatural. It would have to reject the idea of God, reject the idea of God's revelation in the man in His Word of Bible; it would have to reject the possibility of miracles including the virgin birth, the bodily resurrection and such like. And rationalist approached divided Christendom with this statement which was devastating. And this continued to be such to this very hour. They said this. If all these denominations are here all these religious groups, all had same Bible, and they all said that they believed in same Jesus, and they all tell you that they're preaching the same Gospel,

이 그토록 끔찍하게 분열되어 서로 간에 경고하며 바로 여기에서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적인 교리들을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길거리에서의 그 사람은 신학적인 억지이론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것에 잘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냉소주의와 회의론, 불가지론, 불신앙과 무신론이 만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서부 변방을 가로질러서 비극적으로 분열된 그리스도교계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¹⁹⁾ 저의 친구여러분, 오늘 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분열은 우리의 세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단일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한 적이 없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결론[CONCLUSION:]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교계에 닥친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배경이 있었기에 우리는, 왜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이 그 시대(현장)에 나타났는지, 왜 성경말씀의 근거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일치할 것을 호소(탄원)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A. 종교개혁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인이 아닌 증상만 치료함으로써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멀리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은 본래적인 것을 회복하기보다 부패한 것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²⁰⁾

19) 합리주의 사조로써 18세기에 초자연적인 기적들, 곧 계시, 기적, 예언,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등을 부정하는 계몽주의(독일)와 자연신론(영국)이 나왔고, 19세기에는 진화론과 무신론, 공리주의가 나왔으며, 20세기에 세속인문주의(실용주의, 상황주의)가 대두(擡頭)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크게 도전을 받게 되었다. 또 19세기 초 서부 변방은 미국 동부 오퀴오 강변을 따라 북남으로 형성되었던 개척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then how do you count the fact that they're so horribly divided, warning among themselves, and out here teaching and preaching mutually exclusive and contradictory doctrines? Oh the man in the street was not introducing the theological hairsplitting. And that just makes good sense to it. And so cynicism and skepticism, agnosticism, infidelity and atheism began to run rampant. Across our western frontier was the expanse of the tragically divided Christendom. Hear me tonight my friends. Division in the church today is the single biggest deterrent to success for soul winning evangelism in our world. And if you don't believe that, you have never tried to win many people and win many people to the Lord Jesus Christ.

CONCLUSION:

So this was sad thing that came upon Christendom.
So it is. There was all this background we begin to

20) 이 점에 있어서는 루터가 특히 그랬다. 그는 죄 용서, 죄의식에서의 자유, 하나님과의 화해, 은혜의 복음과 말씀의 회복에 주력한 반면, 잊힌 원시교회의 원형과 전통 회복(환원)에는 적극 반대하였고, 가톨릭 전통을 최대한 지켜내면서 타락한 교회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츠빙글리는 원시교회의 질서(신약성경교회의 의식, 형식, 구조)를 회복(환원)하고자 하였고, 신약성경의 침묵을 금지로 보았으며, 악기사용, 성화 및 성상 사용을 금하였다. 반면에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국교와 교구제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유아세례를 포기하지 못하였고, 성인 침례자들만을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또 주의 만찬의 횃수를 연 4회로 줄여놓았다.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하인리히 불링거 역시 “교회는 주님과 사도들에 의해 전수되고 확립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잡아선 안 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지 말고 잘 유지해야 한다.”며 환원을 주장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지인 알자스 지방 출신인 마르틴 부처(Martin Bucer)는 가톨릭 사제출신으로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를 만난 후 종교개혁가가 된 자로서 콘스탄티누스와 국교체제에서 그리스도인 황제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감독되던 시대의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는 칼뱅-츠빙글리와 루터의 중간쯤에서 모든 믿음과 실천을 성경적 원천 곧 본래적 순수함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였다. 이들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이 환원주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교에 반대하는 분리주의자들(환원주의자들)을 중형 또는 사형으로 다스렸다[C. 레오나르드 알렌, 리처드 T. 휴스, <환원 운동의 뿌리>, 백종구, 서요한 공역(서울: 쿤란출판사, 2010), 44-59].

B. 환원(회복)은 그리스도교(개신교)와 로마가톨릭교회 모두의 인위적 장애물을 지닌 교파주의를 넘어서 바로 그 원천(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 곧 신약성경의 이상을 따르는 교회로 되돌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1. 그것은 성경을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 완벽한 규범으로 삼아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것은 사도전통(사물의 옛 질서)의 탐구를 포함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옛 길들을 다시 걷는 것”을 포함합니다.

understand why a Restoration Movement appeared on the scene and why there was a desperate need for a plea for the unity of all believers in Christ upon scriptural ground.

A. The Reformation did much good. We will not deny that. Nobody would deny that. But it failed by just treating the symptoms and not the cause. It did not go back far enough. The endeavor was to reform the corrupt rather than to restore the original.

B. Restoration involves going back beyond denominationalism with all of its human encumbrances, both Protestant and Roman Catholic, back to the very fountainhead,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ideal.

1. It means taking the Bible as the only and all sufficient rules of both faith as well as practice and restoring the absolute authority and Lordship of Christ as head of the church.

2. It involves a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of things,” and “walking again in the old paths” of Christ and his disciples.

환원운동사(RESTORATION HISTORY) 신약성경교회로의 환원(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제4부 환원운동(1793-1900)(출범과 성장) [THE RESTORATION
MOVEMENT(1793-1900) (Beginnings and Growth)]: 하나의 새로운
시작(The Restoration Movement: A New Beginning).

서론[INTRODUCTION]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리즈 강연에서 다음 주제의 시리즈
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으로 방향을 틀어봅시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곧 신약성경의 이상을
따라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미 환원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그것에 대해 복습하겠습니다.

I. 정의[I. Definition]

환원이란 이전 또는 정상상태로 되돌리는 것, 손상되지 않은 상태
로 되돌리는 것, 원래의 형태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II. 점진적이면서 거의 동시적인 운동[II. A gradual but almost simultaneous movement]

이제 여기에서 다시 여러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환원의 과정은 점진적이면서 거의 동시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RESTORATION HISTORY 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PART IV THE RESTORATION MOVEMENT (1793-1900) (Beginnings and Growth): The Restoration Movement, A New Beginning

INTRODUCTION

And so we come now to the next series of theme in our series. And that is a new beginning. So let's turn to that, a new beginning, a movement to restore the church after New Testament ideal. We've already discussed the definition. We'll just quickly run over again.

I. Definition

Restoration means a bringing back to a former or normal condition; putting back into an unimpaired condition; putting back into the original form or state.

II. A gradual but almost simultaneous movement

Now here again you see the Holy Spirit work because, notice. this process of restoration was a gradual but almost simultaneous movement. Not one person and not in one place,

의 섭리 가운데 서로 알지 못하는 많은 동시대인들 사이에서, 여러 곳들에서, 여러 교단들에서, 다양한 배경들에서 신약성경의 이상을 따라 교회를 회복하려는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I. 독립적인 운동들: 스코틀랜드 - 1778년; 웨일즈 - 1795년; 아일랜드 - 1807년[I. Independent movements: Scotland - 1778; Wales - 1795; Ireland - 1807.]

자, 유럽(옛 나라 때)에서 이미 몇몇 독립적인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778년 스코틀랜드, 1795년 웨일즈, 1807년 아일랜드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대륙에 온 이른바 저 환원주의자들 또는 초기 개혁가들 중 일부는 유럽(옛 나라 때)에서 이들 운동들의 일부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환원의 행로(트랙)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토양은 신세계에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신세계에는 군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교(국가종교)의 족쇄들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토양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국 헌법은 어떤 종교의 제도(制定, establishment)도 없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교리 때문에, 경험이 이제 한때 믿음의 시금석이었던(as the test of once faith) 순종을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신세계에서도 토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믿음의 근거가 객관적인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된 믿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주의가 이 (신)세계에서 종교 분열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토양이 또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적절하였습니다. 본래적인 신약성경 기독교를 회복하려는 운동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II. 미국에서의 운동[II. American Mov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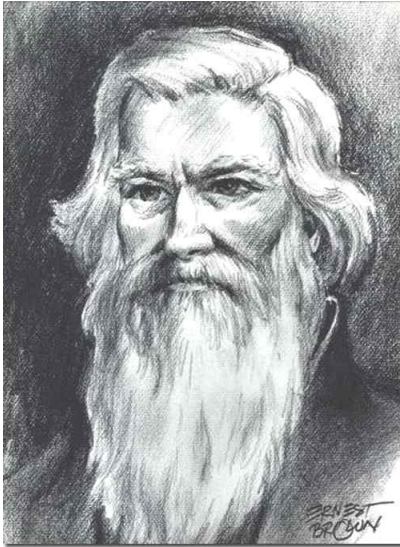
but in God's providence, among many contemporaries, unknown to one another, in various places, in various denominations, out of diverse backgrounds, came this movement to restore the church after New Testament ideal.

I. Independent movements: Scotland - 1778; Wales - 1795; Ireland - 1807.

Now there had already been some independent movements back over in the old country. This was evident in Scotland in 1778, Wales in 1795, in Ireland in 1807. And in fact some of those restorationists or early reformers, as they were called, who came to the new world, had been under the influence of some of these movements back in the old country that it started among this restoration track. The soil was ready in the new world. God had prepared it providentially. It was ready politically because in the new world there was no monarchy. And the shackles of the state church had been stricken off. So religiously the soil was ready. And our United States Constitution stated that there was to be no establishment of religion and in the same time that freedom of religion would be guaranteed. The soil was ready also in this new world because experience, because of doctrine of God's Irresistible Grace, experience was now substituted for obedience as the test of once faith. And subjective basis for faith had been substituted for the objective faith, for faith found in the Word of God. And also the soil was ready because the rationalism had exploited religious division in this world. That time was right. Everything was ready for a movement to restore the original New Testament Christianity

II. American Movements:

A. 제임스 오켈리, 라이스 해거드 - 감독 통치에 대한 반항[A. James O'Kelly, Rice Haggard - rebellion against Episcopal government.]



제임스 오켈리(1735-1826)

그러한 운동은 감리교인들 사이에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아래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 라이스 해거드(Rice Haggard) 등의 이름을 가진 위대한 감리교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애즈버리(Asbury) 감독의 독재적인 감독(감시)에 대해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독(제도) 형태의 교회 통치에 대해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1. 공화 감리교인들 - 노스캐롤라이나 주 매나킨타운 - 1793년; 해체 - 1801[1. Republican Methodists - Manakin Town, N.C. - 1793; dissolved - 1801.]
2. 원칙들 - 신조나 징계는 성경만으로; 신약성경으로 충분[2. Principles - no creed or discipline but the Bible; the New Testament sufficient.]
3. 회중 통치 형태[3. Congregational form of government.]
4.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만으로[4. No head over the church but Christ.]
5.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로 알려지다.”[5. “Henceforth the followers of Christ be known as Christians simply.”]

A. James O'Kelly, Rice Haggard - rebellion against Episcopal government.

The first such movement appeared in an American soil down in this State of North Carolina among the Methodists. There were great Methodist preachers by the names of James O'Kelly, Rice Haggard and others who were rebelling against the dictatorial oversight of bishop Asbury. They were rebelling against the Episcopal type of church government.

1. Republican Methodists - Manakin Town, N.C. - 1793; dissolved - 1801.
2. Principles - no creed or discipline but the Bible; the New Testament sufficient.
3. Congregational form of government.
4. No head over the church but Christ.
5. "Henceforth the followers of Christ be known as Christians simply."

그래서 그들은 탈퇴하였고, 1793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매나킨타 운십에서 그들이 공화 감리교회(Republican Methodist church)라는 것을 설립하였습니다. 그것은 1801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그들 자신이 분열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존의 많은 교단들에 또 다른 교단을 하나 더하거나 합성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1801년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해체하였고, 또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유일한 율법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일 것입니다. 그들은 통치 형태에 있어서 회중적일 것입니다.

B. 아브너 존스 - 침례교 - 버몬트 주(1800-1803)[B. Abner Jones - Baptist - Vermont (1800-1803).]

1. 이름은 '그리스도인'만으로, 법은 성경의 법만으로[1. Took no name but Christian and no law but that of the Bible.]



아브너 존스(1772-1841)

2. 엘리야스 스미스 - 침례교 - 뉴햄프셔 주[2. Elias Smith - Baptist - New Hampshire.]

그들과 동시에 똑 같은 일이 북쪽으로 뉴잉글랜드(신영국) 주들, 처음에는 버몬트 주와 뉴햄프셔 주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역동적인 두 명의 설교자들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침례교 설교자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버몬트 주의 아브너 존스였고, 다른 한 사람은 뉴햄프셔 주의 엘리야스 스미스였습니다.

And so they withdrew and in 1793 in the Manakin township, North Carolina, they formed what they called the Republican Methodist church. It lasted until the year, 1801. All on a sudden they realized they had not solved the problem of division at all. They only compounded and added another denomination to many already in existence. So 1801 they dissolved themselves and said that they would just refer themselves as simply a Christian. The Bible would be their only lawbook. And the Christ would be only the head of the church. They would be congregational in their form of government.

B. Abner Jones - Baptist - Vermont (1800-1803).

1. Took no name but Christian and no law but that of the Bible.

2. Elias Smith - Baptist - New Hampshire.



엘리아스 스미스(1767-1846)

On the nose to them, the same thing was going on way up north in the New England states, primarily in Vermont and in a New Hampshire. For two dynamic preachers were work. Baptist preachers: one was Abner Jones in Vermont, the other was Elias Smith in New Hampshire.

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던 이 설교자들은 그들의 인위적인 파당(派黨) 명칭을 제쳐두고 단순히 그들 자신들을 단지 '그리스도인들'로 기꺼이 부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유일한 율법서로 삼았습니다.

C. 발톤 스톤 - 장로교 - 켄터키(1801)[C. Barton Stone - Presbyterian - Kentucky (1801).]

1. 케인릿지 부흥회(1801년 8월)[1. Cane Ridge Revival (August, 1801).]

그들과 동시에 똑 같은 일이 남쪽으로 켄터키 주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립적이고 동시대적이었지만 서로 알지 못했던 모든 이 다양한 운동을 보십시오. 성령은 여기 아래 켄터키 주에 있는 장로교인들 사이에서 당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케인 리지 부흥회(1801.8.6-13)를 묘사한 그림. 은혜를 받은 자들의 다양한 행위들이 묘사되어 있다. 특히 앞부분에 입신한 자가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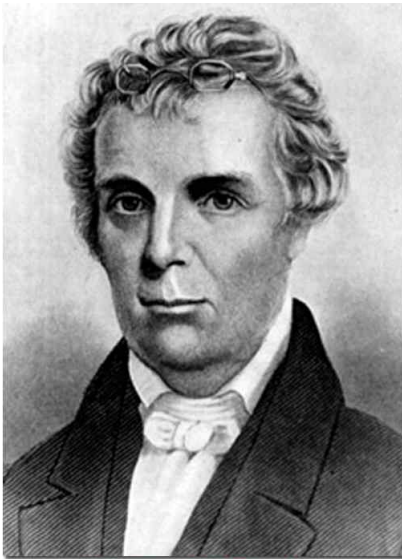
이제 다니엘 분(Daniel Boone)은 켄터키 주의 이 지역 곧 오늘날 우리가 켄터키 주 파리(Paris)에서 가까운 버번 카운티(Bourbon county)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14마일(22.5KM)의 능선을 찾았고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조릿대(갈대 비슷한 산죽,

canebrakes) 숲으로 덮여 있었고 사냥감은 풍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서쪽으로 이주하는 모든 정착민들에게 켄터키 주의 그 지역으로 가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작은 장로교 집회소가 케인릿지 집회소(Cane Ridge Meeting House)에 세

And these men who were calling upon their followers lay aside their human party name and simply be willing to call themselves just Christians. And again take the Bible as only lawbook.

C. Barton Stone - Presbyterian - Kentucky (1801).

1. Cane Ridge Revival (August, 1801).



발톤 W. 스톤(1772-1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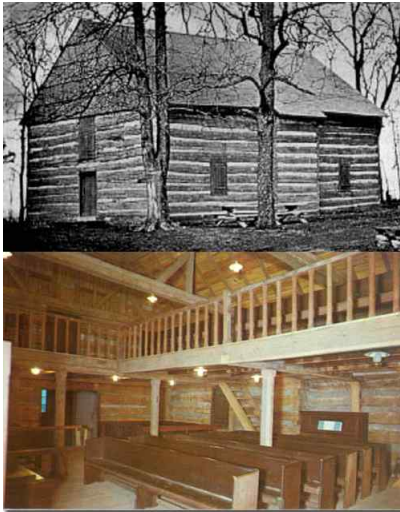
On the nose to them, the same thing was going on down in Kentucky. See all this diverse movement, independent, contemporaries, but unknown to one another. The Holy Spirit marvellously works through his Words down here in Kentucky among the Presbyterians. The same thing was going on.

Now Daniel Boone had come into this area of Kentucky, Bourbon county we refer to as today near Paris Kentucky. And he had found and discovered a fourteen mile ridge. And it was covered with canebrakes and game was plentiful on. So when he went back and he encouraged all the settlers moving west to go that area of Kentucky. And that's what this little Presbyterian meeting house got a stand at Cane Ridge Meeting House.

위였던 것입니다.²¹⁾ 그 교회의 설교자는 겨우 22세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막 결혼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이었습니다. 동시에 초기 미국의 부흥회들은 우리의 변방개척지들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부흥회는 천명, 이천 명, 오천 명으로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켄터키 주 케인릿지에서 이러한 부흥회들 중 하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위로 미시시피 강만큼 먼 서쪽에서, 테네시주에서, 캐럴라이나 주들에서, 버지니아 주에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오하이오 주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수마일 및 모든 방향의 도로들이 도보로, 승마로, 경마차(buggy)와 짐마차(wagon)로 집회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로 꽉 막혔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략 20,000명에서 30,000명 사이로 추정하였습니다. 초기 미국 부흥회들 가운데 가장 큰 집회가 여기 옛 케인릿지 집회소(Old Cane Ridge Meeting House) 앞 개활지에 친 캠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밤에는 조릿대들이 산불처럼 느껴졌고, 매우 많은 모닥불들이 불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음,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켄터키 주 케인릿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 오, 좋습니다. 몇몇 분이 가보셨군요. 그 작은 통나무집 집회소가 아직 건재합니다. 지금은 그 건축물을 보호하려고 길으로 세운 석조 건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들이 앉았던 발코니까지 밀착해 앉아도 최대 200명밖에 들어가지 못할 작은 통나무집 집회소에 20,000명 또는 30,000명이 들어가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21) 케인릿지 집회소(Cane Ridge Meeting House)는 발톤 스톤(Barton W. Stone)이 1796년부터 1812년까지 시무했던 장로교 예배당이다. 이 건물은 1791년에 건축되었으며, 230년이 넘는 지금도 전혀 훼손되지 않은 채 잘 보존되고 있다. 1922년까지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예식이나 특별집회 때만 사용되고 있다. 2층 발코니(예배에 참석한 흑인 노예들의 공간)를 가진 원룸 형식의 통나무집으로써 최대 200명이 앉을 수 있다한다.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많은 건축학도들이 찾는 명소이다. 참고로 1800년대 미국의 변방 개척지들에 지어진 예배당들은 대개가 ‘meeting house’로 불렸다.



케인 리지 예배당
발톤 스톤이 1796-1812년에 시무했던 예배
당이다. 1791년에 건축되었고, 온전히 보존
되고 있다. 원룸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큰
통나무집이다. 이중 발코니는 흑인노예들이
예배 드리던 곳이다.

Its preacher was a young fellow, just 22 years of age. He'd just got married. His name was Barton W. Stone. At this same time the early American revivals were sweeping our frontiers. Each one was getting larger, a thousand, two thousands, five thousands. And it was announced that they're going to hold one of these revivals at Cane Ridge, Kentucky. Well, this news spread. People started coming back from as far west as the Mississippi River up from Tennessee, from the

Carolinas, Virginia, Pennsylvania, Ohio until historians estimated that the roads from miles and every direction were literally clogged with people coming on foot, on horseback, horse-and-buggy and horse wagons. And they estimated somewhere between 20,000 and 30,000 people. The largest of the early American revivals held in camp here in the meeting grounds of the Old Cane Ridge Meeting House. They said, "At night the canebrakes felt like forest fire. There were so many campfires that were burning."

Well, have ever you here been at Cane Ridge, Kentucky? Oh, oh, great. Several of you. That little log cabin meeting house is still standing. It's now encased by a stone building to protect from the elements. And it's obvious that you're not going to get 20,000 or 30,000 people inside that little log cabin meeting house which maybe maximum you might squeeze in two hundreds included in balcony where the slaves sat.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설교자들은 밖으로 나가 즉석 강단에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침례교 설교자들, 감리교 설교자들, 장로교 설교자들, 독립교회 설교자들, 그들은 나무 그루터기나 짐마차 바닥(beds)에 올라섰고, 수천 명의 군중이 이 설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파와 특징과 신조들을 잊고 위대한 성경 중심적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부흥의 핵심은 회개, 즉 회개로의 부름이었습니다. 오, 우리는 옛 '유황불 지옥 설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인 군중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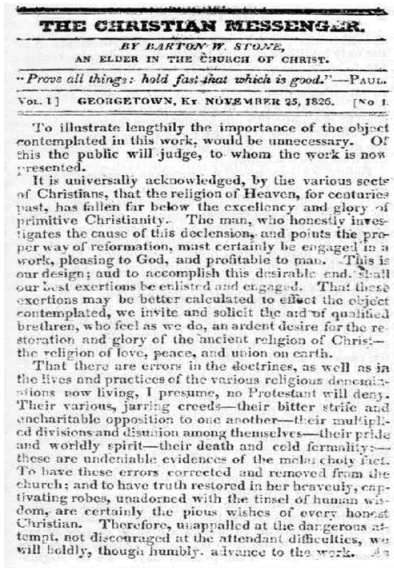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큰 해방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웃기 시작하거나 거의 우스꽝스럽게(hysterically) 깡충깡충 뛰거나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또는 20,000에서 30,000명의 군중은 그들이 시작할 때 항상 많은 야유자들과 조롱자들을 얻게 될(발견할) 것이고, 최초로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이것을 '웃는 행위'(laughing exercise)와 '춤추는 행위'(dancing exercise)라고 불렀습니다. 오,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막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우는 행위'(crying exercise)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죄를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마음에 두들기는 충격으로 경련을 일으키기(몸을 비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것을 '비트는 행위'(jerking exercise)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깨달음으로 경련을 일으키고(몸을 비틀고) 있었던 이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켜서(몸을 비틀어서) 그들이 '까루루'(킁킁 웃는) 소리를 내도록 내버려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것을 '짖는(미친 듯한) 행위'(barking exercise)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진 채로 한 시간 동안 거의 숨을 쉬지 않은 채로 거기에 누워있게 내버려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쓰러지는 행위'(falling exercise)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발톤 스톤(Barton Stone)은 이 모든 것을 의아해 하였고,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후의 환원운동 부흥들의 전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극적으

So what happened? Preachers began getting out on improvised pulpits. Baptist preachers, Methodist preachers, Presbyterian preachers, independent preachers, they would get up on tree stumps or wagon beds and the crowds by the thousands gathered around each one of these men. Forgetting their denominations, distinctions and creeds, they began to preach great central Bible doctrine, but the main thrust of that revival was repentance, a call to repentance. Oh we will refer to as old fashioned hell fire brimstone preaching. And it had a tremendous impact on the crowds that were assembled.

Some people feeling great release, all the sudden, began to laugh, almost is hysterically or began to skip and dance. Or a crowd of 20,000 to 30,000 was always going to find a lot of hecklers and mockers as they began and who originated called this the laughing exercise and the dancing exercise. Oh some people behaved just the opposite reaction. Under conviction, they would just begin to weep voluminously. Well they called that the crying exercise. Some people under this conviction as impact the Gospel hammered on the hearts began to jerk. Well they made hay out of that. They called that the jerking exercise. And some these people that were jerking under this conviction jerked so violently that they gave up what 'kkaruru'(giggled) sound. And they made hay out of that. They called that the barking exercise. Some people would give up what the shriek and fall over on the ground, lay there and stayed almost breathlessly for an hour. They called that the falling exercise.

Well Barton Stone looked askance at all of this, did not approve it. This was not typical of the revivals later on the Restoration Movement. But he did have to admit that a dramatic change



발톤 W. 스톤의 〈그리스도인 메신저〉(1826-1845) 신앙지.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살전 5:21)를 이 신앙지의 모토(motto) 성구로 삼았다.

로 변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죄를 깨우침에 다다랐다는 증거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부흥은 단 7일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이유로 시골은 식량이 고갈되었습니다. 이 시골 농업 사회가 20,000에서 30,000명의 엄청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어마어마한 인상(감상)을 갖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케인릿지 부흥’(Cane Ridge Revival)의 불은 다 타서 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항상 주관적인 신앙(종교)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신앙(종교)은 오로지(배타적으로) 느낌과 감정에 직면합니다. 그것들을 지속시키려면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케인릿지 부흥의 불길은 다 타고 꺼져버렸습니다.

2. 스프링필드 장로회 조직[2. Formation of Springfield Presbytery.]
3. 당파심-해체-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 작성에 기여[3. Contribution to party spirit-dissolved-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1804).]
4.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림; 규정은 성경만으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4. Called simply Christians; Bible only rule; Christian church.]

발톤 스톤이 자신과 비슷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곧 그리스도교계의 분열을 개탄하는 사람들이 장로교 교단에서 탈퇴하여 그들이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라고 부른 것을 조직한 것은

in the life style of many people was evidence by these people come under the conviction. That revival concluded after just 7 short days. You might wonder why. For very practical reason, the countryside was depleted foods. There was no way this rural agricultural society could sustain a strong of 20,000 to 30,000 people. So they had to go home astir. But as they left, they left with tremendous impression made upon them. However, after three so years the fires of Cane Ridge Revival had burned out. It always does the subjective religion. Religion thus faces upon feeling and emotion exclusively. That which win them with, you have to keep them with. And the fires of the Cane Ridge revival burned out.

2. Formation of Springfield Presbytery.

3. Contribution to party spirit-dissolved-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1804).

4. Called simply Christians; Bible only rule; Christian church.

It was 1803 that Barton Stone and those similar persuasion with him deploring division in Christendom withdrew from the Presbyterian denomination and formed what they called the Springfield Presbytery.

1803년이었습니다. 그것은 통틀어 9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그들이 창출한 실현된 이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 곧 당파심과 종파적 자부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들은 이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설립함으로써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많은 기존의 분열에 또 다른 분열을 추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804년 9월에 발톤 스톤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라고 불리는 것을 작성하고 해체하였습니다.²²⁾ 그러나 “우리 자신이 무엇이라고 불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름(Divine name)과 성경이 말하는 이름(Bible name)을 취하여 자신들을 단순히 ‘그리스도인들’(Christians)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의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 “우리의 교회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이라고 부르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징치(懲治)에 대한 규칙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다시 한 번 성경만을 믿음과 실천에 대한 우리의 유일하고 전적으로 충분한 규칙(the Bible alone as our only and all sufficient rule for both faith and as well as practice)으로 삼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D. 토마스 챔벨 - 옛빛, 안티버거, 스코틀랜드 분리파 장로교회 - 1807년 미국으로 이주[D. Thomas Campbell - Old Light, Anti-burgher, Scotch-Seceder branch of the Presbyterian Church - came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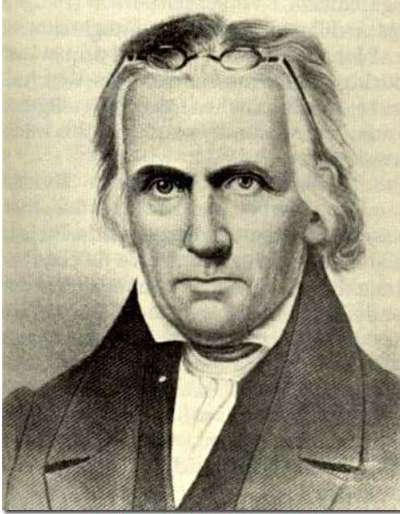
22)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가 작성되고 해체된 것은 1804년 6월 28일이 었다. 이날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요한 둔라비(John Dunlavy), 리차드 맥네 마르(Richard M’Nemar), 발톤 스톤(B. W. Stone), 요한 톰프슨(John Thompson), 다 윌 펄비안스(David Purviance)가 증인들(Witnesses)로 조인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하비 브림 목사는 그들이 1803년 9월 6일 렉싱턴에서 개최된 장로교 켄터키 주 총회(Synod of Kentucky)로부터 징계를 받고 총회를 탈퇴한 날짜인 1803년 9월 10일 과 혼돈한 것으로 보인다. 브림 목사가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가 통틀어 9개월간 지속되었다고 한 것은 장로교 총회에서 탈퇴한 1803년 9월부터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해체한 1804년 6월까지를 9개월로 본 것으로 추정된다. 번역 본: <http://kccs.pe.kr/rm03.htm>

It lasted all of nine months. The reason for that was a realized gain what they had created. They were afraid of, an end in itself, a party spirit and a sectarian pride. And then by their creating this Springfield Presbytery they had not solved the problem of division they had added another division to many already in existence. So on September of 1804 Barton Stone drew up what was referred to as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and was dissolved. But the question arose "What will be called ourselves?" It was consensus just to take the divine name and the Bible name and referred themselves simply is "Christians." Another question arose "What are going to call our churches?" Again it was agreed that just referred ourselves simply is "Christian Churches." "What will be our rulebook for our discipline?" Again it was agreed that let's just take the Bible alone as our only and all sufficient rule for both faith and as well as practice.

D. Thomas Campbell - Old Light, Anti-burgher, Scotch-Seceder branch of the Presbyterian Church - came to America in 1807.

America in 1807.]

1. 장로교 총회에서 탈퇴한 이유들[1. Reasons for withdrawal from Synod.]



토마스 캠벨(1763-1854)

음, 신세계의 해안에 상륙이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였습니다. 또 다른 한 장로교 설교자가 이제 주로 건강상의 이유들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가 미국에 정착할 때까지 고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당시 종교계가 어떻게 분열되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캠벨은 옛빛, 안티버거, 스코틀랜드 분리와 장로교회(Old

Light, Anti-burgher, Scotch-Seceder branch of the Presbyterian Church)에 소속된 목사였습니다.²³⁾ 그는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카

23) 환원운동가 토마스 캠벨은 아일랜드 출신의 옛빛, 안티버거, 스코틀랜드 분리와 장로교회에 소속된 목사였으나 분열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녹스(John Knox)는 스위스에서 장 칼뱅 밑에서 공부하였고, 1559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이듬해인 1560년에 첫 장정(Book of Discipline)이 기록되었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스코틀랜드 교회(평신도 장로 대의제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1712년에 분리파(Seceder)와 반분리파(Anti-Seceder)로 나뉘었다. 분리파 교회들에서는 목회자들을 교회가 직접 선택한 반면, 반분리파 교회들에서는 목회자들을 고교회 고문(High Church counsel)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1747년에는 추가 분열이 버거(Burgher) 운동으로 인해서 야기(惹起)되었다. 스코틀랜드 도시들의 행정장관들(burgesses) 곧 시장들이 (국가 혹은 도시 종교였으므로) 자기 도시의 종교를 분리파 교회로 정할지 혹은 반분리파 교회로 정할지를 맹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1749년에는 The General Associate Synod (Burgher)와 the Associate Synod (Anti-Burgher)로 총회가 나뉘었다. 또 대 각성운동(Great Awakening)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규정들을

1. Reasons for withdrawal from Synod.



토마스 캠벨의 강대상
1786년 제작되어 캠벨이 시무(1798-1807)
했던 북아일랜드 리치 힐 소재 아호리 교회
에서 150년 이상 쓰이다가 1986년 미국
아빌렌 기독 대학교에 기증되어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는 강대상이다.

Well it was three years after this that there came to the shores of the new world. Another Presbyterian preacher, now he came primarily for reasons of health his name was Thomas Campbell. And the rest of the family stayed back in old country until he got settled. Now just show you how divided the religious

world was at that then age. Thomas Campbell was a minister in the Old Light, Anti-burgher, Scotch-Seceder branch of the Presbyterian Church. He was assigned to a pulpit in Washington, Pennsylvania.

식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새빛'(new light)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쟁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또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새로운 경륜을 믿고 대각성운동에 합류했거나 그 운동으로 인해서 설립된 교회들인 새빛파와 기존 질서와 전통을 옹호했던 옛빛파로 나뉘지게 되었다.

운티에 있는 강단에(교회의 설교자로) 배속(配屬)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펜실베이니아 터파이크(Pennsylvania Turnpike)²⁴⁾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쪽 끝자락 워싱턴 카운티를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달 전에 거기(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웃 교회에 강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특정 청중 속에는 토마스 캠벨과 의견을 달리하는 다수의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캠벨은 이것을 착수하여 그의 청중을 아연실색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의 만찬 테이블의 성찬(빵과 포도주)을 진설케 하였고, 그런 다음 모든 참석자들에게 성찬을 받도록 초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음, 그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워싱턴 카운티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심의 장소에 불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를 파문하였습니다. 아,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시작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오,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교단들의 관행은 ‘닫힌 성찬식’(Closed Communion)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특정 교회의 회원(등록교인)들만이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 전 몇 주 동안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장로들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검사에 합격하면, 여러분은 금속 토큰을 받을 것이고,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에 여러분은 성찬을 받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합당한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는 증거(토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²⁵⁾

24) 펜실베이니아 터파이크(Pennsylvania Turnpike)는 펜실베이니아 주를 동서(필라델피아에서 피츠버그)로 잇는 580KM에 달하는 유료고속도로의 명칭이다. 워싱턴 카운티는 피츠버그 남서쪽 아래 펜실베이니아 주 서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가까운 곳에 알렉산더 캠벨의 주거지이자 활동무대였던 베다니(Bethany, West Virginia)와 웰스버그(Wellsburg, West Virginia)가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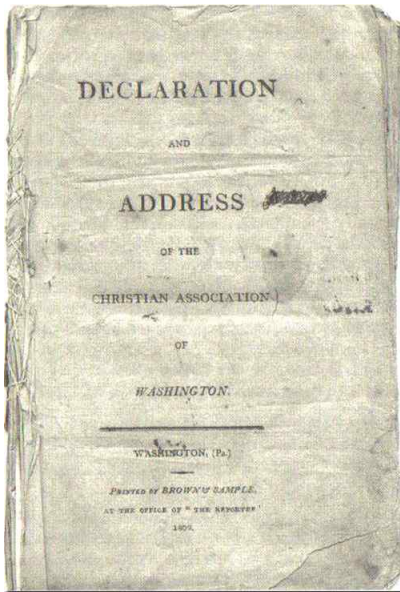
25)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여 ‘성찬 토큰’과 알렉산더 캠벨에 관한 비디오(‘하나님과의 씨름’)를 감상할 수 있다.

Now have you ever travelled Pennsylvania Turnpike, Washington at the western terminals. I was through there not many months ago. And early in his ministry, however, he was invited to speak to neighboring congregation. And present in that particular audience that day were a number of dissident members. Well Thomas Campbell proceeded this scandalized his audience because he had the emblems of the Lord's Table spread and then he proceeded to invite all the worshipers present, to partake. Well word bid him back home. When he got back to Washington, the presbyters were waiting for him. They called him on the carpet and they proceeded to hold a trial. At the end of which they excommunicated him. Ah how's that a way starting your ministry? Oh why? Well you see, the practice of the denominations at that time was what they called "Closed Communion." For only the members of that particular church could partake on Communion Sunday. But only if in the weeks prior to that Communion Sunday they had been examined in their homes by the presbyter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would be worthy to partake. If you passed the examination, you could be given a metal token which on Communion Sunday you presented yourself to receive the emblems. You could show proof you had been examined find worthy you could partake.

음, 토마스 캠벨은 북미주 장로교 총회(the synod of North America)에 이러한 지각(sense)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재판관을 열었고, 그들이 이번에는 그를 파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다시는 교단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행하지 마시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토마스 캠벨이 그 모임(심의회)을 떠날 때, 그는 교단에 남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것이 분명히 이해되는 한, 나는 성경에서 배타적으로 가르친 것이나 사도적 선행이 보증된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다시는 가르치지 않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2. <선언과 제언> (1809)[2. Declaration and Address (1809).]

홀로 남겨지기도 전에 대중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사한 확신(신념)은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탈퇴하였고,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토마스 캠벨이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1809년에 발행한 <선언과 제언>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캠벨은 그가 성명서를 작성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일치에 관한 말씀들에서 일치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교회 역사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서들 중 하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저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읽을 무언가 요약본(개요)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두드러지게 날카롭고 예리한 문서는 <선언과 제언>(the Declaration and Address)이라고 불립니다.²⁶⁾

Well Thomas Campbell appealed this sense to the synod of North America. They held another trial at the conclusion which they did not this time excommunicate him. But they warned him, "Never again teach, preach, or practice anything which was contrary to the usages, traditions or customs of the denomination." When Campbell left that meeting, he stated that he would stay with denomination. "As long," he said, "as this is clearly understood, never again I will teach anything which I can not find exclusively taught in Scriptures or warranted by Apostolic precedent."

2. Declaration and Address (1809).

Take mass stand on was obvious before lonely. He and many others' similar persuasion were incomparable. And they withdrew and they began to meet in a home. So was shortly thereafter that Campbell was asked if he could not draw up a statement. Words upon the unity of all believers in Christ could find a basis for unity. And he drew up one of the most remarkable documents in all of church histories. And if you have never read it, my friends, you ought to get a synopsis of something to read it. A remarkable keen sharp document is called "the Declaration and Address."

26) <선언과 제언> 요약 번역본: <http://kccs.pe.kr/rm04.htm>, http://kccs.info/rh13lessons_Teaching_Materials.pdf, 179-219쪽.

이제 캠벨이 전한 이 <선언과 제언>에서 그는 무엇보다 먼저 분열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라고 열렬히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의도적으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것은 구조적으로 하나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 됨의 일치를 찾을 수 있다고 그가 단언한 균등하게 적은 13가지 명제들은 옛 사도전통의 질서의 회복(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에 대한 열렬한 탄원으로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청중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옛 길을 다시 걷는 것과 그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고 말했을 때 그 진술이 있는 많은 성구들을 승인하였습니다. 그가 한 그 말들과 죽음과 같은 고요함이 그 청중을 감쌌는데, 한 남성이 말을 하려고 일어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캠벨 씨, 만약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삼으면 유아세레스 종식(終熄)됩니다.” 캠벨은 일어나 청중을 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 특정한 주제에 대해 어떤 결론에 도달할 만큼 그 자신이 충분히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가 말한 진리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유아 세레스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토마스 애치슨(Thomas Acheson)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향한 말들이 대화를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터트리며 극적으로 외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것을 내 마음이 포기해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도한 감정표현에 너무 당황해서 그 방을 나가려고 돌아 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기 전에 또 다른 남자가 벌떡 일어나 말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애치슨 씨. 당신이 방금 인용한 성경말씀에는 침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조치들도 그 회의에서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되짚어보았고, 이것을 환원운동으로 불리는 만남의

Now in this "Declaration and Address" that Campbell delivered it, he began first of all by fervently denouncing division as sinful as contrary to God's will for His church. He affirmed the church of Christ on earth is intentionally; it's essentially; it's constitutionally one. Evenly down 13 propositions upon which he affirmed that all believers in every place could find a restored unity of oneness in Christ even concluded with passionate plea for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A walking again the old path of Christ and disciples and many clauses with the statements ratified his audience when he said, "Where the Scriptures speak, we speak; and where the Scriptures are silent, we are silent." Those words he said down and death like stillness enveloped that audience until at last a man stood to speak. He said, "Why, Mr. Campbell, if we adopt that as a basis, then there is an end to infant baptism." Campbell stood up and faced to audience. And he had yet not himself studied the Scriptures far enough to come to any conclusion on that particular subject, but he knew that the truth he stated was right. And he affirmed, "Of course, if we can not find infant baptism in the Bible, then we can have nothing to do with it." Words upon a man by the name of Thomas Acheson led to speak. And he was so emotionally overcome and he bursted in the tears and he cried out dramatically, "God forbids my heart should ever renounce that blessed in saying in the Scriptures,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forbid them not: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heaven.'" And it was so embarrassed at his own displayable emotion that he returned to leave the room. But before he got out, another man jumped to speak. He said, "Hold, Mr. Acheson. That Scripture you have just quoted, has no reference whatsoever the baptism." And the no formal actions were taken at that meeting. And so historians looked back,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3. 워싱턴 카운티 그리스도인의 협의회 결성[3. Formation of Christian Assembly of Washington.]

아, 그 모임 직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워싱턴 카운티 그리스도인의 협의회”(Christian Association of Washington)²⁷⁾라고 부른 것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제도적 교회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회복된 교회 곧 신약성경교회와 그 속에 있는 이상(ideal)을 찾는 회복(환원)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E. 알렉산더 캠벨(아들) - 1809년 아버지의 견해에 동의하다.[E. Alexander Campbell (son) - 1809 concurs in views of father.]



알렉산더 캠벨(1788-1866)

이제 이 일이 있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캠벨 가족은 이제 신세계의 해안에 상륙하였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필라델피아와 뉴욕 사이의 그 길 어딘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가 인쇄소에서 막 찾아가지고 온 <선언과 제안>의 교정쇄를 꺼내 그것을 아들에게 건네며 그의 반응이 어떨지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다(북대서양)를

27) 하비 브림 목사는 여기서 결성된 협의회를 일컬어 “Christian Assembly of Washington.”라고 하였는데, 정확한 명칭은 “Christian Association of Washington”이었다.

referred to this as the beginning of what was come to meet, referred to as the Restoration Movement.

3. Formation of Christian Assembly of Washington.

Oh shortly after this they formed what they called "the Christian Assembly of Washington." They found out the institutional church would not change. And so was the day started a restoration of a search for that restored church, that is, New Testament church in its ideal.

E. Alexander Campbell (son) - 1809 concurs in views of fa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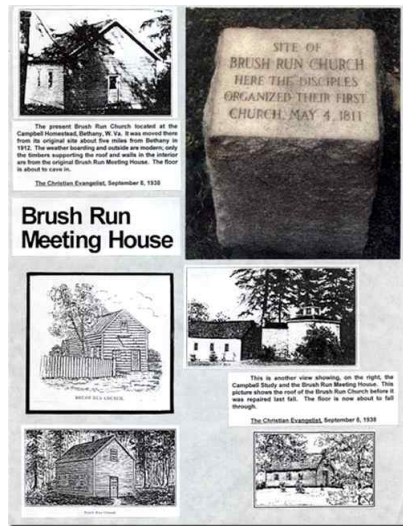


알렉산더 캠벨의 저택

Now shortly after this, the rest of Campbell family now came to the shores of new world. Tradition has it that father and son met somewhere on

that road between Philadelphia and New York. And it said that the father reached in his cloak pocket and pulled out the galley proofs of the "Declaration and Address" that he'd just picked up from the printer's office and handed it to his son to see what his reaction will be. And again here you see the Holy Spirit work.

사이에 두고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고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아일랜드)의 아들은 독립적으로 성경을 공부했고, 기본적으로 이곳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와 장로 교인들이었던 자들이 가졌고, 아래 켄터키 주에 있었던 발톤 스톤과 장로 교인들이었던 자들이 가졌으며, 저 멀리 뉴잉글랜드에 있었던 존스(Jones)와 스미스(Smith)와 침례 교인들이었던 자들이



브러쉬 런 예배당 모습과 표지석
(1811년 5월 4일 창립)

가졌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었던 오켈리(O'Kelly)와 해거드(Haggard)와 감리 교인들이었던 자들이 가졌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는 것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는 그의 말을 멈춰 세우고 자신의 여생에 대한 결심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단일성의 일치(the unity of oneness)를 위한 이 호소의 이러한 원칙들을 옹호하는 일에 헌신할 작정이라고 하였습니다.

1. 브러시런 교회 조직 - 1811년[1. Brush Run Church organized - 1811.]

곧이어 이 독실한 아버지가 배경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아들, 이 명민한 성경학자, 이 위대한 작가이자 강력한 토론가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1811년에 자신들이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라고 부른 것을 설립하였습니다.²⁸⁾

28)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인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가 알렉산더 캠벨에 의해서 1811년 5월 4일 베다니(Bethany, West Virginia)로부터 약 8KM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현재는 Brush Run Meeting House가 있던 자리에 돌비석만

The separated by thousands of miles and ocean, separated by space and time, the son in old country in his independent studied the Scriptures had come to basically the same conclusion as had his father and those who were Presbyterian persuasions here in Pennsylvania, as had Barton Stone and those who were Presbyterian persuasions down in Kentucky, had as Jones and Smith and those who were Baptist persuasions way up there New England, as O'Kelly and Haggard and those who were Methodist persuasions down in North Carolina. And it was so thrilled to what he was reading that he stopped his horse and announced the rest of his lives. He was going to dedicate to the espousal of these principles of this plea for the unity of oneness of the people of God.

1. Brush Run Church organized - 1811.

It soon became obvious that this devout father was the fade into the background. And this brilliant son, this keen Bible scholar, this great writer and powerful debater was to come to the fore. Well as time progressed, they organized what they called Brush Run Church in 1811 AD.

2. 약식세례 문제를 연구함 - 1812년[2. Question of sprinkling studied - 1812.]

그러나 약식세례에 관한 이 이슈가 마침내 해결된 것은 1811년이나 1812년이 된 다음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캠벨의 첫 아기의 출생이 그 계기(繼起)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이 아기에게 약식세례를 베풀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꺼내서 원어로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론으로써 그는 신약성경이 자신의 아기가 침례에 적합한 후보자가 아니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 연구 또한 그 자신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결론으로 자신을 이끌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약식세례)을 전혀 고집하지 않았던 독실한 아버지 토마스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기꺼이 침례를 베풀어주려는 침례교 설교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강독에서 지켜보았고, 알렉산더가 침례 받는 것을 끝냈을 때, 그런 다음 아버지가 그리스도어로 침례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3. 그들은 성경에서 배운 것만 가르치고 설교할 것을 이해함으로 1813년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 가입[3. Joining Redstone Baptist Association - 1813 - with understanding they would teach and preach only what they learned from scripture.]

침례교 교인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캠벨 부자(父子)는 매우 존경을 받았고, 그들의 성경에 대한 학식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언과 제언>(the Declaration and Address)이 출판되어 널리 회람되고 널리 읽혔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교인들은 캠벨 부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또 당신들이 성경을 연구하여 도달한 결론들처럼 또 <선언과 제언>에서 진술한 것처럼 일관성이 있으려면 당신들은 침례교 교인들과 합류해야 합니다.” 캠벨 부자는 “아닙니다. 아니에

2. Question of sprinkling studied - 1812.

But it was not until 1811 or 12 that this issue on sprinkling was finally resolved. The occasion was the birth of Alexander Campbell's first child. What was he going to do? Was he going to sprinkle this infant? So he got out of Scriptures and studied them in the original language. And as the conclusion of his study on this subject he became convinced that the New Testament taught not only was his infant child not a fit candidate for baptism, but the study of the Scriptures also led him conclusion then a fact he needed to be baptized. He discussed this with his devout father Thomas who's just not what adhered to it at all. He at last found out a Baptist preacher who was willing to baptize him. And his father watched from the bank and as the completion of Alexander's baptism, the father then presented himself to be baptized into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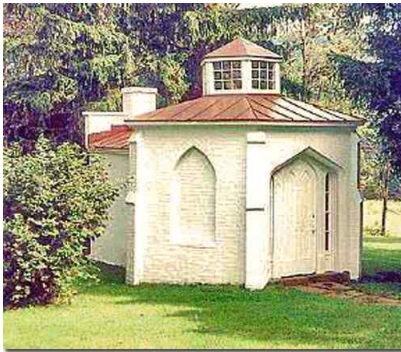
3. Joining Redstone Baptist Association - 1813 - with understanding they would teach and preach only what they learned from scripture.

The Baptists were ecstatic. The Campbells were highly respected, well-known for their biblical scholarship. And "the Declaration and Address" had been published and widely circulated and widely read. So the Baptists came to the Campbells and said, "Now and like of the conclusions which you come as you study the Scriptures and like of what you have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and Address" to be consistent, you have to join with the Baptists." The Campbells said, "No, no, we don't."

요. 우리는 않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침례교 교인들은 “오 예, 당신들은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캠벨 부자는 “아니요,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침례교 교인들은 “오 예, 당신들은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캠벨 부자는 합류하였습니다. 1813년에 그들은 가입하였습니다. 여기 브러시런 교회(Brush Run Church)는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배운 것만 가르치고 설교할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 ‘율법에 관한 설교’는 침례교 협의회와 불화를 야기함[4. Sermon on the Law results in breach with Baptist Association.]

이 관계가 매우 미약한 관계였음이 곧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긴장은 점점 더 분명해져서 마침내 알렉산더 캠벨이 1816년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 모임에 주요 연사로 초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명한 ‘율법에 관한 설교’(Sermon on the Law)였습니다.²⁹⁾



알렉산더 캠벨의 서재(1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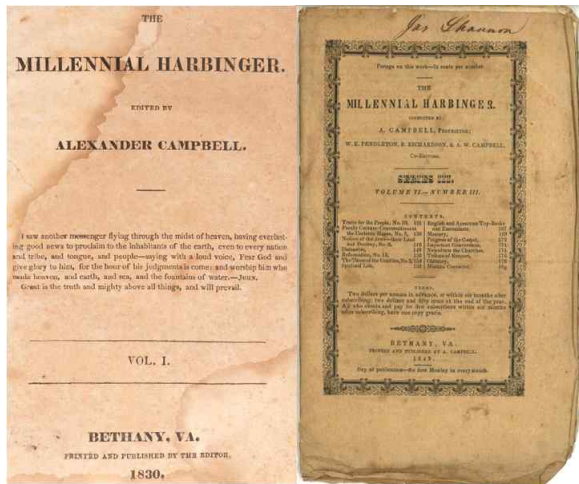
그리고 이 설교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시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 종교계가, 그들이 호칭한 것처럼, 성경을 하나의 ‘수준기(水準器/水平器) 서(書)’(a level book)로 간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구약성경이 신약성경과 동등하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29) 이 유명한 설교는 1816년 9월 1일 캠벨이 27세 때에 베다니에서 멀지 아니한 크로스 크릭(Cross Creek)에서 모인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서 행한 것이다. 후에 캠벨은 자신을 “지금의 개혁운동”에 뛰어들도록 힘을 실어준 것은 이 설교에 관해서 일어난 논쟁이었다고 말했다. 캠벨은 후에 이 설교를 팸플릿으로 출판하였고, 또 1846년 9월판 밀레니얼 하빈저<*The Millennial Harbinger*, Series III, Vol. III, September, 1846, 493쪽 이하>에도 실었다. 이 설교의 요약본이 <알렉산더 캠벨 독본>(조동호 번역) 39-46쪽에 실려 있다. <http://kccs.info/acreader.pdf>

The Baptists said, "Oh yes, you will." They said, "No, we won't." The Baptists said, "Oh yes, you will." And they did. In the year 1813 they joined themselves. Here the Brush Run Church joined themselves to the Redstone Baptist Association, but with this understanding that they would teach and preach only what they learned from the Scripture.

4. Sermon on the Law results in breach with Baptist Association.

It soon became obvious that this relationship was very tenuous one. And the tensions became more and more apparent until at last Alexander Campbell was invited to be one of the key speakers at the Redstone Baptist Association meeting in the year 1816. It was his famous "Sermon on the Law." And this sermon was the watershed. You see prior to this time, pretty much the



알렉산더 캠벨이 〈그리스도인 침례자〉(1823-1930) 신앙지를 접고 새로 발행을 시작한 〈새천년시대의 선구자〉(1830-1870) 신앙지. 1830년은 캠벨과 그를 따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제자)들의 교회'로 새롭게 출발한 해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천년시대를 여는 선구자들로 혹은 메신저들로 부르셨다고 확고히 믿고 헌신하였다.

entire religious world considered the Bible, as what they called, a level book. In other words, they considered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equally authoritative with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놀라운 ‘율법에 관한 설교’에서 알렉산더는 두 언약들 사이에 차이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계약들(covenants)이나 언약들(testaments) 개개아래 다른 요구 사항들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율법과 복음사이의 차이, 행위와 은혜 사이의 차이를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5. 브러시 런 교회는 동부 오하이오 주에 소재한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서부 보호구역 - 1823)에 가입. 해산 - 1830[5. Brush Run Church joins Mahoning Baptist Association of Eastern Ohio (the Western Reserve - 1823); disbanded - 1830.]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임에서 캠벨 부자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서 그 때 탈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그들은 동부 오하이오 주에 소재한 마호닝 침례교 협회(Mahoning Baptist Association)³⁰⁾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하이오 주의 그 지역이 서부 보호구역(the Western Reserve)으로 불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쪽 영스타운(Youngstown), 캔톤(Canton), 바버틴(Baberton), 아크론(Akron)으로 해서, 몇몇 오하이오 주 주민(Buckeyes) 여러분, 그 지역 위쪽으로부터 서부 보호구역과 그 지역을 주행(走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때 그들이 신약 성경(교회)을 시작하고 성경이 교회에 대해 말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확장되었을 뿐입니다.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는 1830년대에 막 확장되었습니다.³¹⁾ 많은 비슷한 협의회들이 단순한 신약성경의 근거를

30)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는 1820년에 설립되었다. 침례교의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가 그 협의회에의 법으로 간주되기는 하였지만, 그 협의회는 종교개혁의 이념들로 충만하였고, 공개토론과 교리적 다양성이 모두 수용되었다. 캠벨 부자는 브러시 런 교회와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를 떠난 후 웰스버그(Wellsburg, West Virginia)에 교회를 세웠고, 1823년에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정기간행물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를 창간하였다. 그 협의회는 1830년에 해산되었다. 그리고 동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 곧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출범하였다. 또 동년에 알렉산더 캠벨은 <그리스도인 침례자>를 폐간하고, 정기간행물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창간하였다.

31) 1820년대를 1830년대로 잘못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But in this remarkable "Sermon on the Law" Alexander pointed out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wo covenants, a difference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He pointed out that there were different requirements under each of these covenants or testaments. He pointed out strong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w and the Gospel, the difference between works and grace.

5. Brush Run Church joins Mahoning Baptist Association of Eastern Ohio (the Western Reserve - 1823); disbanded - 1830.

And it was shortly after that, in that meeting the Campbells and many others withdrew then from the Redstone Baptist Association. They, however, then, joined Mahoning Baptist Association of eastern Ohio. It was referred to as at then age that area of Ohio as the Western Reserve. Now you're up to run Youngstown, Canton, Baberton, Akron, some you Buckeyes, from up that area, the Western Reserve and that area. But that then was just expanded as they started the New Testament and came to the conclusions what the Scriptures talked about the church. The Mahoning Baptist Association was just expanded in 1830s. Many similar associations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F. 월터 스코트 - 장로교 - 1822년에 캠벨과 만남[F. Walter Scott - Presbyterian - met Campbell in 1822.]

1. 전도의 요지를 개발함[1. Struck the keynote of evangelism.]
2. ‘다섯 손가락 실행’을 고안함[2. Originated the “finger exercise.”]
3. 복음을 약속함(하나님 편에서 지적인 부름(호소), 인간 편에서 지적인 응답(반응))[3. Outlined the gospel (intelligent appeal on God’s part, intelligent response on man’s part).]



월터 스코트(1796-1861)

그러나 이 운동의 부흥사(횃불)는 월터 스코트(Walter Scott)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젊은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단지 젊은이로서 1822년 그는 캠벨을 처음 만났고, 캠벨 부자의 저술들과 본래적이고 원시적인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의 회복(환원)이라는 이들 원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마음으로 그것들을 기꺼이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월터 스코트가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가곤 하였는데, 학교가 막 파하려할 그 시각에 자신의 도착을 의도적으로 맞추곤 하

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 주변으로 모든 아이들을 모이게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거기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수가 우리가 옛 다섯 손가락 실행(old five finger exercise)이라고 부르는 것을 외우셨지만, 그것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모르셨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다섯 손가락

increasingly began to expand themselves as they began to adopt the simple New Testament ground.

F. Walter Scott - Presbyterian - met Campbell in 1822.

- 1. Struck the keynote of evangelism.**
- 2. Originated the "finger exercise."**
- 3. Outlined the gospel (intelligent appeal on God's part, intelligent response on man's part).**

But the firebrand of this movement was another young Presbyterian by the name of Walter Scott. Just as a youngman, in 1822, he first met Campbell became familiar with the writings of Campbells with these principles of Restoration of original primitive New Testament Christianity. And he embraced them with his whole heart. And it was here at this point then that Walter Scott would drive into the community on horseback and he would be deliberately in time his arrival just as school would be letting out. He would get all the youngsters around his horse. And then he had them hold up there. Many you folks here tonight have memorized what we called old five finger exercise and didn't know where it was originated. Well here we have the five finger exerc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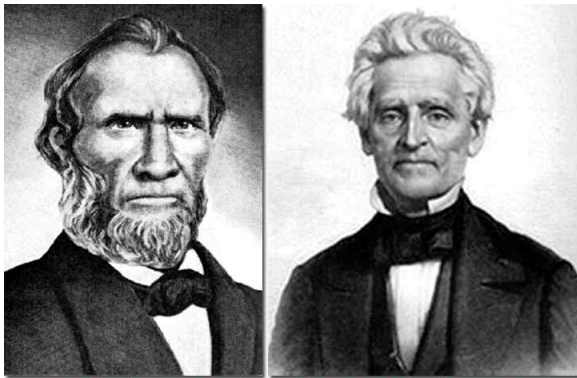
실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좋아요, 학생들(youngsters),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이것에 대한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버전은 제가 많이 들어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으로 시작하세요. ‘여기’라고 말하세요.” 그들은 모두 “여기”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세요.” 그들은 모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이제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에 이릅니다.” 그들은 모두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침례”, “침례”, “마지막으로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 “좋아요, 자 학생여러분, 갑니다. 더 빨리 큰 소리로 한목소리로 외칠 준비가 됐지요?” “여기”, “믿음”, “회개”, “침례”,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 “이제 학생여러분은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전하세요. 오늘 밤 바로 여기 학교건물에 설교자가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왼손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분의 설교개요를 그분이 설교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날 밤 모든 시골은 그리스도를 위한 이 젊은 부흥사(헛불)가 그의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을 전파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우리의 변경지방들을 휩쓸기 시작하였습니다. 위대한 성경 설교들이 끝날 때면 드물지 않게 교회가 그곳 예배당 앞에 안내문(a letter)을 붙여놓고 그들의 인위적인 교파 명칭(간판)을 떼어내곤 했으며, 스스로를 단순히 비교파적, 비분파적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 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명확한 성경 설교 후 축도가 끝나면 많은 교인들이 가까운 시냇가로 따라 내려가 그리스도어로 침례를 받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우리의 변경지방들을 가로질러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콧(Scott)이 특징을 분류한 복음의 하나로써 그가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믿어야 할 사실들(the Gospel consists of the FACTS to be believed.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COMMANDS to be obeyed. 예: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즐길 수 있는 약속(PROMISES

He said, "All right, youngsters, begin with your thumb." Now there are various editions of this. They all end up the same. But the one I prefer that I heard many times. He said, "All right, begin with your thumb. Say 'Here'." They all say, "Here". "It's all right, now, say 'Faith'." They all say, "Faith". "All right, now or we here come to 'Repentance'." They all say, "Repentance". "Now baptism." "Baptism". "Last one, 'Remission of sins an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y said, "Remission of sins an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ll right, now, youngsters, here we go. Are you ready in unison out loud faster. "Here", "Faith", "Repentance", "Baptism", "Remission of sins an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Now you youngsters go home and you tell your parents that tonight down here at the school house it's going to be a preacher and he's going to preach a sermon whose outline you hold right there on your left hands." And that night the whole countryside were turned out to hear this young firebrand for Christ preached the Gospel and his simple logical and Scriptural fashion as they'd never heard before. And this message began to sweep across our frontiers. It was said that, not infrequently at the close of great Bible sermons, church would put a letter in front of there church building and take down their human party name and referred to themselves simply as the Church of Christ or the Christian Church, non-denomination, non-sectarian. It was said that, after these clear Bible sermons, many of congregation at the end of the benediction would follow down near a stream and they'd be baptized into Christ. And the movement began rapidly spread across our frontiers. As Scott a kind of categorized Gospel, what he said is this: the Gospel consists of the FACTS to be believed (예: Jesus is the Son of God.); COMMANDS to be obeyed (예: Repent; be baptized; observe all things that Jesus commands.); PROMISES

to be enjoyed. 예: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및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경고(WARNINGS to be heeded.)로 구성됩니다. 그는 복음이 하나님 편에서는 지적인 부름(호소)이고, 인간 편에서는 지적인 응답(반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흥미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실천을 위한 유일한 규범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늘날의 주관주의와 신조들로 인한 혼란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G. 성장:[G. Growth:]

1. 1832년 켄터키 주 렉싱턴에서 스톤 운동과 캠벨 운동이 통합하다.[1. Stone and Campbell movements merge in Lexington, Kentucky - 1832.]



존 로저스(1800-1867)

라쿤 존 스미스(1784-1868)

스톤 운동과 캠벨 운동은 1832년에 켄터키 주 렉싱턴에서 마침내 통합하였습니다. 유명하고 강력한 켄터키 주 설교자요, 캠벨 운동을 대표한 라쿤 존 스미스("Raccoon"

John Smith)라는 이

름의 장로(목사)와 발톤 스톤이 자신의 운동을 대변하였습니다. 그 때 라쿤 존 스미스 장로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힘 있는 설교 중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발톤 스톤이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스미스 장로가 말한 모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단지 몇 가지 논평만 하였고, 자신의 손을 내밀었으며(악수를 청하였으며) 그리고 두 운동이 통합하였습니다.³²⁾

32) 1831년 12월 31일 켄터키 주 렉싱턴(Lexington)에서 스톤의 '그리스도인

to be enjoyed (예: You shall be saved.) and WARNINGS to be heeded. He said that Gospel is intelligent appeal on God's part; and intelligent response on man's part. It was attractive. It was the answer of the subjectivism and the confusion of the creeds today that return to the Scripture alone as the only rule for faith and practice.

G. Growth:

1. Stone and Campbell movements merge in Lexington, Kentucky - 1832.

The Stone and Campbell Movements finally merged in Lexington, Kentucky in 1832. A well known and powerful Kentucky preacher by the name of Elder Raccoon John Smith, a representative Campbell movement, Barton Stone spoke for his movement. It was said that on that occasion Elder Raccoon John Smith gave one of the most remarkable and powerful sermons of his life. So much so there, when came Barton Stone's turn to speak. He only made a few comments and full agreement with everything that Smith had said and put out of his hand and the two movements joined.

들'(Christians)과 캠프벨의 '개혁가들'(Reformers 혹은 Disciples)이 연합회동을 하였다. 거기서 캠프벨의 '제자들' 운동을 대표한 라쿤 존 스미스("Raccoon" John Smith, 1784-1868)는 '그리스도인들' 운동의 발톤 스톤과 '친교의 오른손'(Right Hand of Fellowship)을 뻗었다(약수하였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1832년 1월 1일 통합하였다. 곧바로 스미스는 스톤의 '그리스도인들' 운동을 대표한 존 로저스(John Rogers, 1800-1867)와 함께 말을 타고 전역을 순회하며 스톤/캠프벨운동의 통합을 전하였다. 켄터키 주에서만 통합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10,000명을 넘었다. 훗날 존 로저스는 <발톤 스톤의 생애>(전기)를 저술하였다.

2.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 결성 - 1849년.[2. Formation of the 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 1849.]

그래서 그런 다음 나중에 이 호소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가 조직되었고, 이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의 회복(환원)을 위한 호소의 영역들이 입증되었습니다. 처음에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은 지역 교회이외의 그 어떤 종류의 협회(society) 결성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1849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캠벨 자신은 발병으로 인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를 설립한 그 단체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그 영예를 받아드렸고,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3. 잇따른 편의기구들의 결성 - 지원 또는 비지원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친교[3. Formation of subsequent expediences - fellowship not contingent upon support or non-support.]

4. 협회들과 악기로 인한 불화 점증 - 1850년[4. Growing discord over societies and musical instrument - 1850.]

잇따른 편의기구들, 다른 선교회들 및 단체들의 결성이 있었고, 친교는 이들 중 어느 것도 지원 또는 비지원을 조건으로 결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회중(교회)은 이들 중 어느 것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의견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방법들에 불과했지만, 그것들은 1850년에 소문이 만들어지고 점증한 협회들의 용도들과 악기의 특별한 사용에 대한 불화와 불만과 논쟁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 Formation of the 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 1849.

So then came the formation later on of the 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in the effort to implement this plea and areas were attested of a plea for restoration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 now. At first Alexander Campbell opposed the formation of any kind of society outside the local church. Then meeting was held in Cincinnati, Ohio, 1849. Campbell himself was absent from that meeting because of illness. And he was elected by that group that brought the 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into existence. He was elected as the first president. And, of course, he accepted the honor and became the first president of the 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3. Formation of subsequent expediences - fellowship not contingent upon support or non-support.

4. Growing discord over societies and musical instrument - 1850.

There was a formation of subsequent expediences, other missionary societies and groups that fellowship was never made contingent upon the support or non-support to any of these. Every congregation was free to support or not support any of these. They were matters of opinion. They were simply methods of accomplishing God's work but they began to be growing discord and dissatisfaction and debate over the uses of societies and a special use of musical instrument which cropped up, built up hearsay, in the year 1850.

다.³³⁾

5.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오순절(AD 30)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앙(종교)운동[5. At turn of 20th century the fastest growing religious movement since Pentecost.]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금세기의 전환기에서, 친구 여러분. 불과 짧은 89년 전만 해도,³⁴⁾ 이 운동은 북미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앙(종교) 운동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미국의 인구 증가 속도보다 두 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89년 전 금세기의 전환기에 우리는 일 년에 일천 개씩 확장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를 떠받치는 설립된 하나의 올바른 것(a thing) 혹은 하나의 교회(a church)였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평균 거의 20개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중 비전(Double Vision)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2000년까지 5,000개의 교회들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들어 보십시오. 89년 전에는 그곳들이 그늘진 땅이었습니다.³⁵⁾ 그 이전의 모든 것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33) 예배 시에 악기사용에 관한 논쟁은 1850년대에 오르간(풍금)이 만들어져 판매되면서부터였다. 예배 시에 악기를 쓰는 전통은 서방(가톨릭)교회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 동방교회와 일부 개신교, 유대교 정통파에서는 지금도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동방교회의 경우 회람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모두에서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에 산재한 북미주 개혁주의 장로교 교단과 스코틀랜드의 일부 개혁(장로)교회들, 특히 장 칼뱅과 존 녹스 전통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에 의하면, 예배용 찬송으로 시편에 고유한 운율을 사용하여 불렀고, 악기의 사용은 금하고 있다. 개신교단들에서 악기를 쓰도록 허용한 것은 1850년대 논쟁 이후였다. 유대교는 성전파괴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성전파괴이전에는 시편에 나타난 대로 예배 시 악기사용이 허용되었으나 성전파괴이후 회당예배의 발전과 더불어 악기사용이 금지되었다. 오늘날에는 진보적인 유대교 교파들에서만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고 정통파에서는 아직도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악기사용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악기의 음을 맞추다든지 하는 것은 안식일 법에서 금하는 창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도 무악기 교회들이 있다. 보수성향이 강한 미국 남부지역들, 특히 텍사스 주와 테네시 주 등에 1만개 이상의 크고 작은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 산재해 있다.

34) 이 강연이 1989년에 있었기 때문에 AD 1900년, 즉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을 말한다.

35) 참조: 마태복음 4장 16절.

5. At turn of 20th century the fastest growing religious movement since Pentecost.

But still nonetheless at the turn of this century, friends. Just 89 short years ago, (이 강연이 1989년에 있었기 때문에) this movement was the fastest growing religious movement 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It literally was growing twice as fast as the population growth of the America. At the turn of this century 89 years ago, we were a thing established or a church as bracing New Testament Christianity extended one thousand a year. That's an average of almost twenty a week. Here we're talking about double vision and trying to start five thousand churches by the year 2000. Listen, 89 years ago they were land that was in the shade(참고: 마 4:16). It was sweeping everything before it.

6. 호소는 명백해짐[6. The Plea made clear.]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호소가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많은 교단들에 추가하려고 또 다른 하나의 교단을 조직하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원(水源)으로, 신약성경으로, 그리고 유일한 신조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과 실천을 위한 유일하고 더없이 충분한 규범인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 신성한(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유일한 메시지로써 복음과 그리고 그 일치의 수단을 가진 목표로서의 일치와 교리와 의식들(ordinances: 침례와 주의 만찬)과 생명의 열매에 있어서 신약성경의 이상(ideal)을 따르는 교회의 회복(환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소(the plea)였고, 매력(attractive)이었으며, 끌림(magnetic)이었습니다.

7. 현재 성장률로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 이 운동의 지지자가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7. Estimated that at present rate of growth, by mid-20th century, there would be 40-60 million adherents in this movement in America.]

금세기의 전환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순전한 등비수열에 의하면(기하급수적으로), 그 당시의 현성장률로 볼 때, 20세기 중반까지 이 운동에 대한 이 호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4천만에서 6천만 사이였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밤 그것에 더 충분히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그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CONCLUSION]

I. 성경뿐, 더하기 무(無), 빼기 무(無) = 그리스도인들뿐. 성경뿐이 그리스

6. The Plea made clear.

And why? The plea was made clear. we were not endeavoring to form another denomination to add to the many already in existence, but to go back to the fountainhead, the New Testament, and with Christ as the only Creed, the Bible as the only and all-sufficient rule for faith and practice, and the use of the term, Christian, as the divine name, and the gospel as the only message, and unity as the aim with the means of that unity, the restoration of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ideal in doctrine, ordinances, and fruit of life. That was the plea and was attractive and magnetic.

7. Estimated that at present rate of growth, by mid-20th century, there would be 40-60 million adherents in this movement in America.

It was estimated at the turn of this century that by the mid-20th century at present rate of growth of that time by sheer geometrical progression there would be between 40 and 60 million adherents to this plea to this movement by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Obviously something wants to arrive. We will get into that more fully tomorrow night.

CONCLUSION

I. The Bible only + nothing - nothing = Christians only.

도인들만을 만듭. 사람이 단순히 그리스도인 그 이상이 되려면 성경 그 이상의 것을 취해야 함[I. The Bible only + nothing - nothing = Christians only. The Bible only makes Christians only. One has to take more than the Bible to be more than simply a Christian.]

A. 실례[A. Illustration]

1. 성경 + 로마가톨릭교회 교리와 전통 = 로마가톨릭교회[1. Bible + Roman Catholic dogma and Tradition = Roman Catholic.]
2. 성경 + 감리교회 장정 = 감리교회[2. Bible + Methodist Book of Discipline = Methodist.]
3. 성경 + 과학건강서 = 크리스천사이언스[3. Bible + Book of Science and Health = Christian Scientist.]³⁶⁾
4. 성경 + 모르몬경 = 모르몬교회[4. Bible + Book of Mormon = Mormon.]
5. 성경 +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 장로교회[5. Bible +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 Presbyterian.]
6. 성경 + 아우크스부르크신앙고백서 = 루터교회[6. Bible + Augsburg Confession of Faith = Lutheran.]
7. 성경 + 필라델피아신앙고백서 = 침례교회[7. Bible + Philadelphia Confession of Faith = Baptist; etc., etc.]
8. 성경뿐 +0, -0, /0 = 그리스도인뿐[8. Bible only +0, -0, /0 = Christian only.]

환원 호소들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잘 예증(例證)된 대로 그것은 성경에 대한 논리적이고 그것의 합당함이며 강한 매력(appeal)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취

36) 메리 베이커 에디(Mary Baker Eddy, 1821-1910일)가 예수님의 병고침 기사들을 읽은 후, 이전에 얻었던 사고후유증에서 완쾌되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1875년에 <과학과 건강>(Science and Health with Key to the Scriptures)이란 책을 썼으며, 1879년에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회를 세웠다.

The Bible only makes Christians only. One has to take more than the Bible to be more than simply a Christian.

A. Illustration

1. Bible + Roman Catholic dogma and Tradition = Roman Catholic.
2. Bible + Methodist Book of Discipline = Methodist.
3. Bible + Book of Science and Health = Christian Scientist.
4. Bible + Book of Mormon = Mormon.
5. Bible +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 Presbyterian.
6. Bible + Augsburg Confession of Faith = Lutheran.
7. Bible + Philadelphia Confession of Faith = Baptist; etc., etc.
8. Bible only + 0, - 0, / 0 = Christian only.

Here is the thing that made the restoration pleas so attractive. It was a logic, its reasonableness and a strong appeal to the Scripture as well illustrated by this. If you take your Bible,

하여 그것에 로마가톨릭교회 교리와 전통을 더하시면, 그것은 감리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톨릭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과 함께 감리교회 장정을 취하시면, 그것은 로마가톨릭교회 신자가 아니라 감리교회 신자를 만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과 과학건강서를 취하시면, 그것은 침례교회 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천사이언스교회 교인을 만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과 모르몬경을 취하시면,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모르몬 교인을 만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취하시면, 그것은 장로교회 교인을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과 아우크스부르크신앙고백서를 취하시면, 그것은 루터교회 교인을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과 필라델피아신앙고백서를 취하시면, 그것은 침례교회 교인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취하시고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아무 것도 빼지 않으며, 그것을 아무 것으로도 나누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을 만듭니다. 성경뿐(단지 성경만)이 그리스도인들뿐(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리스도인 그 이상이 되려고 하면 성경 그 이상의 것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가까이하고, 성장하며 모든 것에 앞서 취하라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시할 때 이타적으로, 다툼으로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논쟁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설득력 있게 나눌 것이라는 동일한 호소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매력과 끌림을 찾고 있고 얻고 있으며 그것을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II. 신약성경의 이상을 따라 교회를 회복(환원)하려는 운동이 시대의 호소임[II. The movement to restore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ideal is the plea of the hour.]

신약성경의 이상을 따라 교회를 회복(환원)하려는 운동이 시대의 호소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성경적입니다. 또 그것은 보편적으로 옳다고 인정됩니다. 성경적 기초에 근거한 일치는 요한복음 17장 17-21절에 따라 죽음을 앞두신(in the shadow of Calvary)

and you add to it Roman Catholic dogma and Tradition. It would not make a Methodist, it will make a Roman Catholic. If you take your Bible and the Methodist Book of Discipline along with it, it would not make a Roman Catholic, it will make a Methodist. If you take your Bible and the Book of Science and Health, it won't make a Baptist, it will make a Christian Scientist. If you take your Bible and the Book of Mormon, it won't make a Jehovah's Witness, it will make a Mormon. If you take the Bible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t makes a Presbyterian. If you take the Bible and Augsburg Confession of Faith, it makes a Lutheran. If you take the Bible and Philadelphia Confession of Faith, it makes a Baptist. But you take the Bible, plus nothing, minus nothing and divided by nothing, it makes Christians only. The Bible only makes Christians only. You have to take more than your Bible to be more than simply a Christian. And that is the plea that neighbor it, grow and take everything before. And it's same plea which we will share unselfishly, not pugnaciously, not flagellantly, not argumentatively, but persuasively in love as we present the Scriptures. People are finding and getting increasingly attractive and magnetic and will embrace it.

II. The movement to restore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ideal is the plea of the hour.

The movement to restore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ideal is the plea of the hour. It is reasonable, practical, scriptural, and universally admitted to be right. Unity on a scriptural basis was the prayer of our Lord in the shadow of Calvary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호소는 쓸모없게(outgrown)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커졌습니다. 설교 되고 실천(구현)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공통의 만남의 장, 하나의 보편적인 신조 - 그리스도, 믿음과 실천을 위한 무류(無謬)한 규칙(규범) - 성경, 보편적으로 수용된 이름 - 그리스도인(Christian)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가지 목표 곧 복음 선포와 그에 따른 모든 신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의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대회(convention), 대학, 선교회, 출판사 등에서의 친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강령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 세상에 사랑으로 전파하고(막 16:15,16), 물려서서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성경) 속에서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행하실 수 있는 것에 경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오늘 밤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밤 우리는 모든 교회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장들(chapters) 중 하나이자 두 번째로 큰 배도인 20세기 배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문서로 증명할 것입니다. 음, 저는 여러분이 내일 밤에 돌아오시길(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슬픈 비망록(a sad note)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재기(부활), 재기에 대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긍정적인 비망록(a positive note)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배워왔고 당신의 말씀에서 읽어온 것들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을 전해서 심지어 오늘날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의 전율과 기쁨을 알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as accorded in John 17:17-21. This plea has not been outgrown. Its need is greater today than ever before. It needs to be preached and practiced (implemented). The world needs to know that there are people who advocate common meeting ground, the one universal creed - Christ, the one infallible rule for faith and practice - the Bible, the universally accepted name = Christian, which makes possible the fulfillment of the one divine aim - the salvation of all lost souls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the subsequent oneness of all believers. [That being a New Testament Christian is not contingent upon fellowship in one convention, college, missionary society, publishing house, etc.] This platform, brethren and friends, is not divisive. It is unifying. Let us be preaching it in love in all the world (Mark 16:15,16) and stand back and marvel at what God through his Holy Spirit in his Word can do now in hearts of men and women and young people.

With that we conclude tonight. Tomorrow night we will get into one of the blackest chapters of all church history, the second great apostasy, the 20th century of apostasy. And we will document it. Well, I hope you will be back tomorrow night. Oh, we're not going to end it with a sad note. We will end it with a positive note as we talk about again a resurgence, a resurgence, back again to the beginning.

Shall we pray?

We praise you, Father, for faithful men who were taking the things they had been taught and read in your Word and passed it down so that even we today might know the thrill and joy of saving grace to faith in Jesus Christ. We're so grateful, Father, then we're not saved by our works. But we're so grateful, Father,

죄 사함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운 조건들을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드셔서 어린아이조차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이유는 오늘날의 진실한 사람들의 많은 정직한 마음들이 일치 안에서 신약성경교회의 능력 안에서 하나됨을 갈망하여 진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교도 제국을 앞뒤좌우로 흔들 수 있고, 취하여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복음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재정비하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비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충실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동정심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안에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희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존중할 것이라는 것과 정직한 사람들이 여전히 축복받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그리고 오늘 밤 이 토론과 내일 밤에 우리가 다룰 토론을 축복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을 통하여, 심지어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you made so clear and simple your gracious conditions for pardon from sins that even a child can understand.

We thank you, Father, for the many honest hearts today of sincere people who are searching for truth to long for the oneness in the unity, in the power of the New Testament church, it can sway and swing and take and kept the pagan empire. And Lord, we see with that Gospel does today our changes of lives, rearranges homes, gives hope in the midst of despair, gives joy in the midst of sadness and sorrow and hopelessness. And so Father, help us to be faithful, help us to be loving, help us to be compassionate, help us to be so trained that we can give a reason for the hope that is within us, yet in the midst of despair, because we know you will honor your Word and the honest people are still in the blessed. To this and bless this discussion tonight and the one that we will get into tomorrow night. For we pray and ask all through the name of Him through whom all that we asked and prayed made possible, even Jesus Christ our Lord and our Savior. Amen.

환원운동사(RESTORATION HISTORY) 신약성경교회로의 환원(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제5부 환원운동(1900-1969) (배도) [THE RESTORATION
MOVEMENT(1900-1969) (Apostasy)]: 제20세기 배도, 또 다른
잘못된 회전(The 20th Century Apostasy: Another Wrong
Turn).

서론[INTRODUCTION]

I. 정의 - 이탈, 원칙들이나 믿음의 포기[I. Definition - the falling away, the abandonment of principle or faith.]

강의 시리즈의 제목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어디에서 설립되었는지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AD 30년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강의에서 우리가 오늘날 회복하려고 힘쓴 신약성경에서의 교회의 여섯 가지 주요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규범이나 기준의 배도 즉 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가가 세계사의 암흑기 또는 중세시대라고 부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돌아가는 길, 그리스도교(개신교) 개혁, 교회의 남용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운동이 많이 발생하게 된 방법과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 강의는 새로운 시작인 환원운동에 대해서 다뤘

RESTORATION HISTORY

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PART V THE RESTORATION MOVEMENT (1900-1969)
(Apostasy): The 20th Century Apostasy, Another Wrong
Turn.

INTRODUCTION

I. Definition - the falling away, the abandonment of principle
or faith.

The title of our lecture series is "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 In our first lecture, we studied how it all began, how the church was established, where it was established. In Jerusalem in A.D. 30. We also considered in that lecture the six primary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which we endeavored to restore for today. In the second lecture we talked about 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 We looked at the apostasy, that is, the falling away from the New Testament norm or standard. Here we talked about what historian referred to as the Dark Age or the Mediaeval Period of world history. Then in the third lecture we talked about the road back, the Protestant Reformation, endeavored to reform the abuses of the church and how and why many of these movements came into existence. Then the fourth lecture dealt with a new beginning, a Restoration Movement,

고, 부분적으로 여러 인물들과 여러 교단들에 관해서 신약성경의 이상과 그 교리들, 의식들(침례와 주의 만찬), 삶 그리고 후속적으로 이 운동의 역사를 채움에 따라 교회를 회복하려고 힘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강의, 잘못된 방향전환, 또 다른 하나의 잘못된 방향 전환에 다다릅니다. 그것은 20세기의 배도이며, 모든 교회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장(章)들 중 하나입니다. 배도라는 그 말의 정의는 다시 단순히 원칙들이나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II. 성경적 경고 – 사도행전 20:28-31; 로마서 16:17, 18[II. scriptural warning – Acts 20:28-31; Romans 16:17, 18.]

이제 그러한 배도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강론할 때 28절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16장 17-18절에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good) 말과 아첨(fair)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endeavored, on a part of various people and various denominations, to restore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ideal and its doctrines, ordinances and life and the subsequent filling history of this movement. Now we come to our fifth lecture, a wrong turn, another wrong turn. It's the 20th century apostasy, one of the darkest chapters in all of church history. The definition of that word, Apostasy, again is simply the falling away or the abandonment of principles or faith.

II. Scriptural warning - Acts 20:28-31; Romans 16:17, 18.

Now such apostasy had been predicted. In the 20th chapter of the Book of Acts, recalled the Apostle Paul in speaking to the elders of the great Ephesian Church had this to say beginning with 28th verse:

"Take heed therefore unto yourselves, and to all the flock, over the which the Holy Ghost hath made you overseers, to feed the church of God, which he hath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For I know this, that after my departing shall grievous wolves enter in among you, not sparing the flock. Also of your own selves shall men arise, speaking perverse things, to draw away disciples after them. Therefore watch, and remember, that by the space of three years I ceased not to warn everyone night and day with tears."

Over here in writing to the Roman Christians, Apostle Paul in the 16th chapter in the 17th and 18th verses had this to say:

"Now I beseech you, brethren, mark them which cause divisions and offences contrary to the doctrine which ye have learned; and avoid them. For they that are such serve not our Lord Jesus Christ, but their own belly; and by good words and fair speeches deceive the hearts of the simple."

III. 배경[III. Backgrounds:]

A. 선교회들의 결성[A. Formation of missionary societies.]

이 신약성경의 호소를 국내외에 전파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기하십시오. 그것들은 선교회들의 결성이었습니다.

1. 미국그리스도인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 1849.

첫 번째는 1849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대회에서 출범된 미국그리스도인선교회였습니다.

2. 그리스도인여성선교국(Christian Women's Board of Missions) - 1874.

1874년에 그리스도인여성선교국이 설립되었습니다.

3.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 1875.

바로 이듬해인 1875년에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곧이어 교회확장위원회(the Board of Church Extension), 전국자선협회(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목회자 구호위원회(the Board of Ministerial Relief)와 같은 다른 선교 기관들과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나 기구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B. 악기사용 문제 - 1850[B. Instrumental question - 1850.]

이러한 혼란의 복합 속에서 악기사용 문제가 1850년에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예배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III. Backgrounds:

A. Formation of missionary societies.

Recall it to implement to spread of this New Testament plea at home and abroad. They had been a formation of the missionary societies.

1. 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 1849.

The first was the 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started in 1849 in the convention in Cincinnati Ohio.

2. Christian Women's Board of Missions - 1874.

In 1874, the Christian Women's Board of Missions was established.

3.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 1875.

The very next year in 1875 the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was established. And then in quick sequence there came other missionary agencies and societies such as the Board of Church Extension, 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the Board of Ministerial Relief. But there began to be apparent a growing dissention over these various agencies or organizations.

B. Instrumental question - 1850.

In the compound of this confusion, the instrumental question arose in 1850. That is over the use or nonuse of the instrument in worship.

C. 캠벨학회(Campbell Institute)의 결성 - 1896. "신(新)학습 또는 지식" - 합리주의(모더니즘)[C. Formation of Campbell Institute - 1896. The "new learning or knowledge" - Rationalism (Modernism).]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극적인 전환기에 다다릅니다. 그것은 1896년에 결성된 캠벨학회(Campbell Institute)라고 불린 것의 결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스크리브너 애임즈(Edward Scribner Ames)는 1917년 이 캠벨학회의 <발전사: (20년사의 성취에 관한 캠벨학회의) 기념서>(Progress: Anniversary Volume of the Campbell Institute on the Completion of Twenty Years of History)를 쓰면서 35-43페이지에서 이 흥미롭고 중요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인용합니다.

"1892년 가을,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다섯 명의 제자들(Disciples)³⁷⁾이 그리스도의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의 대학들에서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의 조직결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 후 3년 동안 이 학생들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제자들과 연합하여 시카고대학교에서 그들의 학업을 계속하였다.³⁸⁾ 제자들신학원(Disciples' Divinity House)³⁹⁾이 1894년

37) 여기에서 "제자들"이란 그리스도의교회(Disciples of Christ)에 소속된 사람들을 말한다. 분열이 있기 이전에는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제자들"(알렉산더 캠벨 쪽에서 선호) 혹은 "그리스도인들"(발톤 스톤 쪽에서 선호)로 불렸고, "Disciples of Christ"는 널리 알려진 교단명칭의 하나였다. 1906년에 예배 때 악기사용을 거부한 미국 남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나가 "Churches of Christ"(근본주의)가 되었고, 이후 다시 진보성향의 지도부가 장악한 "Disciples of Christ"에서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탈퇴하기 시작하여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가 되었다. 그리고 원뿔리였던 "Disciples of Christ"는 1968년에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진보주의)로 교단을 재구성하였다. 영어 명칭에 쓰인 단수와 복수에 유의해야 한다.

38) 예일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밟던 제자들이 시카고대학교로 옮겨간 배경에는 예일대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윌리엄 레이니 하퍼(William Rainey Harper, 썸족어 권위자, 침례교 목사, 14세에 대학을 졸업한 천재)가 있다. 하퍼는 록펠러(John D. Rockefeller)가 1891년에 세운 시카고대학교 초대총장으로 1893년 35세의 나이에 발탁되어 갔는데, 베다니대학(알렉산더 캠벨이 세운 제자들 소속)을 나온 후 하퍼 밑에서 학업을 하던 허버트 락우드 윌렛(Herbert Lockwood Willett)가 하퍼를 따라 시카고대학교로 옮겨갔고, 하퍼는 그에게 시카고대학교 영내에 제자들 신학원을 세

C. Formation of Campbell Institute - 1896. The “new learning or knowledge” - Rationalism (Modernism).

But now we come to a dramatic transition. It began with the formation what was called the Campbell Institute which was formed in 1896. Edward Scribner Ames, writing on the history of this Campbell Institute in *Progress: Anniversary Volume (of the Campbell Institute on the Completion of Twenty Years of History)* 1917 on pages 35 to 43 gives this interesting and significant background. Quote:



시카고대학교 '제자들교회신학원'



밴더빌트대학교 '제자들교회신학원'

"In the autumn of 1892 five Disciples who were studying at Yale University began to talk of an organization of university trained men in the ministry and in the colleges of the Disciples of Christ.... In the three years which followed, most of these students continued their work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association with other likeminded Disciples. The Disciples' Divinity House was founded there in 1894.

우도록 권유하였다. 험버트 락우드 윌레트와 에드워드 스크리브너 에임즈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들이 되었고, 제자들신학원의 원장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39) 제자들신학원은 시카고대학교와 밴더빌트대학교 구내에 설치된 제자들 교육기관으로써 이들 대학교들에서 목회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석박사학위 과정의 제자들에게 숙식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별도로 교단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교과목들을 이들 대학교들과 연계하여 교육한다.

에 그곳에 설립되었다. 제자들의 역사(History of the Disciples)와 제자들의 교리사(History of Doctrine)에 있는 그것의 과정은 제자들에게 현대 학문에 비춰서 이 역사를 조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캠벨 학회는 1896년 10월 19일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전국 대회 회기들 중에 조직되었고 창립멤버는 14명이었다.... 이 사람들은 더 넓은 문화세계가 그들의 신앙(종교적)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느꼈던 공통 경험에 의해 뭉쳤다.... 그들은 신앙(종교) 활동의 재해석과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 글을 지속하면서 세 개의 목적들 가운데 세 번째는 학회의 결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제자들의 문헌과 사고(사상)에 항구적인 가치를 기여할 목적으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저술)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나중에 우리는 이것이 취한 방향과 형태를 주목할 것입니다. 1906년 <회보>에 실은 짧은 글에서 그 단체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이 개념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그 학회는 지난 25년간 훌륭한 대학교들을 특징지어온 신지식에 대한 의식의 산물이었다.”

여기에 18세기 기간에 신세계의 해안에 도달한 프로이센 합리주의(Prussian Rationalism)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물론 합리주의 공격의 중심점은 미국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초창기 대학들과 대학교들은 교회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들 대학교들과 대학들에서 그것들의 본래의 정관들에 담겼던 그것들 본래의 설립취지(헌장)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⁴⁰⁾

엘스워스 웨리스(Ellsworth Faris)는 1917년 <발전사 기념서>(Progress Volume)에서 캠벨학회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난(欄)을 가

40)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출발한 신학교들이 점차 진보신학에 경도되면서 갈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곤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버드대학교에 불만을 품은 보수신학자들이 프린스턴신학교를 세웠고, 프린스턴신학교에 불만을 품은 보수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세운 경우이다.

Its courses in the History of the Disciples and in the History of Doctrine among the Disciples gave opportunity to survey this history in the light of modern scholarship.... The Campbell Institute was organized at Springfield, Illinois, October 19, 1896, during the sessions of the national convention of the Disciples of Christ. There were fourteen charter members.... These men were drawn together by their common experience of having felt the impact of the larger world of culture upon their religious inheritance.... they had begun to realize that there was need for reinterpretation and for new methods of religious work...."

Continuing in this line the third of three purposes set forth for the Institute's formation and its significance. Listen. Quote:

"To encourage positive productive work with a view to making contributions of permanent value to the literature and thought of the Disciples of Christ."

Later on we will note the direction and form that this took. In its note in the *Bulletin* in 1906, the organization gave this conception of itself when it said. Quote:

"The Institute was the outgrowth of the consciousness of the new knowledge which has characterized the great universities in the past twenty-five years."

Here is in the illusion to Prussian Rationalism which had come to the shores of new world during the 18th century. Of course, the focal point of the attack of Rationalism was the educational institution of America. As you may be aware, almost all of the early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America were established by churches. And they were established to propagate and defend the Christian faith. Today those original charters in most these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their original constitutions would be almost unrecognizable.

Ellsworth Faris had a question and answer section concerning the Campbell Institute in the 1917 *Progress Volume*.

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질문번호 7로 게시하고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그들(즉 캠프학회)을 조직하게 만들었습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제자들의 사역과 교육 사업에서 길을 잃고 있거나 길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 교육이 형제지간에 단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엘스워스 웨리스(Ellsworth Faris)가 말하고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일, 하버드, 시카고대학교와 같은 이들 더 큰 대학원들에서 목회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던 또 이 합리주의를 소개받고 있었던 이들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목회를 중도 포기했거나, 또는 그들이 더 이상 환원운동의 원리들을 고수하지 않으면서 환원운동에 남아 위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또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회사역들을 위해 교파교단들로 옮겨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새로 발견한 지식과 훨씬 더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캠프학회는 이 신지식, 이 신학습, 이 합리주의를 환원운동의 원리들과 합리화시키려고 완전히 눈이 멀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우리는 향후 문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신학계에서 이 신학습 또는 신지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더니즘(modernism)으로 불렸고, 그런 다음 나중에는 자유주의 신학(liberal theology)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 신지식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합리화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을 때 그것이 여기서 다시 언급되었음을 발견합니다.

D. 미국종교인구조사국에 별개로 등록 - 1906년[D. Separate U.S. Religious Census listings - 1906.]

그러나 제가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저는 여기에 일종의 태도 혼란을 야기한 또 다른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1850년에 이 논쟁이 불거진 결과로 야기된 그 뒤에 분열이 뒤따른 것은 그 같은 악기사

He posted this as question number seven and gave the answer. Here was the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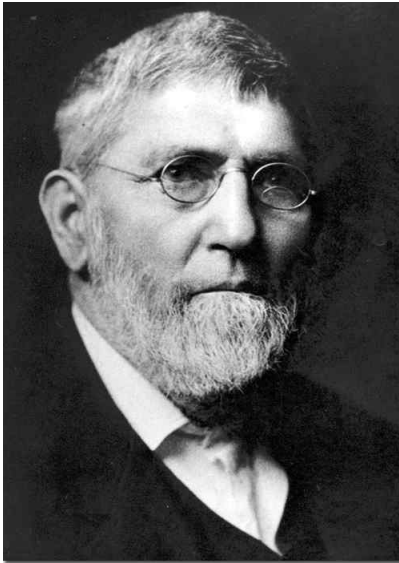
"What impelled them (that is, Campbell Institute) to organize?" Is answer: "Many young men were being lost, or were in danger of being lost, to the ministry and educational work of the Disciples because higher education seemed to mean a break with the brotherhood."

Now what Ellsworth Faris was saying is this. So many of these young men who were studying for the ministry in these larger graduate schools such as Yale, Harvard, University of Chicago, who were being introduced to this Rationalism, were dropping out of the ministry, or too they were not wanted to be hypocritical by remaining in the movement whose principles that they no longer adhere to, or too because many of them were going into denominations for their ministries where they found it much more consistent with their new found knowledge. And so their Campbell Institute was brought into existence with whole blind to try to rationalize this new knowledge, this new learning, this Rationalism, with principles of the restoration movement. Now how successful they have been we will see in our future documentation.

This new learning or knowledge in theological circles, first of all, was referred to as a modernism and then later on as liberal theology. And we find it here again referred to when there were many efforts to try to rationalize to get people to accept this new knowledge.

D. Separate U.S. Religious Census listings - 1906.

But before I come to that, I want to put in another thing here that transpired a kind of attitude confusion. It's such an instrumental issue that arose in 1850 and a subsequent division that came as a result of the intrusion of this issue.



데이비드 립스콤(1831-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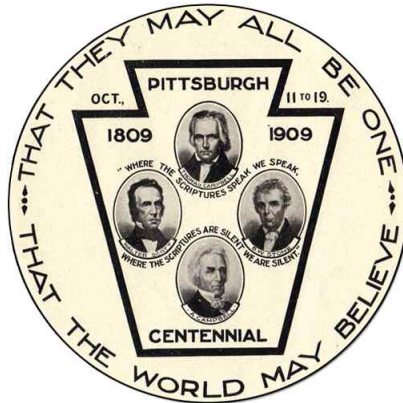
용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이 논쟁은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이란 이름의 저명한 인물인 무악기 설교자에 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종교인구조사국(the United States Religious Census Bureau)에 접촉하여 이들 무악기 교회들이 그리스도의교회들(the Churches of Christ)로 별개로 목록에 실리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때가 1906년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그리스도의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의 몇몇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때 미국종교인구조사국에 접촉하여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이 그리스도의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이란 이름(caption)으로 목록에 실리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 100주년 기념대회,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 1909년[E. Centennial Convention, Pittsburgh, Pennsylvania - 1909.]

그런 다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 환원운동 속으로 침입했다는 첫 번째 징후가 공개적으로 있었던 것은 이때로부터 3년 후인 1909년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대회 때였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은 그 특별한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유년 시절에 저의 어머니께서 이 대회기간에 피츠버그 시내 거리 모퉁이들에서 5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군중이 어떻게 그곳에 서서 웅장하고 오래된 시온의 노래들을 불렀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짜릿한 기분(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

But then this issue was primarily focused in the person of prominent non-instrumental preacher by the name of David Lipscomb. He approached the United States Religious Census Bureau and asked that these non-instrumental churches be listed separately as the Churches of Christ. This was in 1906.



백주년대회 포스터(피츠버그 1909.10.11-19)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모두 하나가 되어...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The same year several important leaders of Disciples of Christ then approached the United States Religious Census Bureau and asked that all the other Churches of Christ and Christian Churches be listed under the caption, the Disciples of Christ.

E. Centennial Convention, Pittsburgh, Pennsylvania - 1909.

It was in 1909, then, three years after this, at the Centennial Convention in Pittsburgh, Pennsylvania that that was a first indication publicly of the intrusion of this liberal theology into this Restoration Movement. My own parents were present at that particular convention. I can remember my mother in the days of my youth telling how that during this convention downtown in the street corners of Pittsburgh crowds numbering any that were from 50 to 500 would be standing there and singing grand old hymns of Zion. She said that it was thrilling.

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운동은 매우 괴롭힘을 당하였고 크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앙(종교)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한 첫 징후가 있었던 것은 이 대회였습니다. 주요 연사 중 일부는 동정녀 탄생 신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부활에 대한 신화를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커널 새뮤얼 하든 처치(Colonel Samuel Harden Church)라는 이름의 피츠버그 변호사가 행한 한 특정 연설은⁴¹⁾ 그의 신학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그 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청중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그의 연설문은 인쇄될 그 대회의 다른(후속) 연설문들에 끼지 못하고 출판물에 게재도 되지 않았습니다.

F.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의 결성[F. Formation of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 1919.]



로버트 엘모어(1878-1968)

그 직후인 1911년에 당시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 집행위원회의 통신 또는 기록 서기였던 로버트 엘모어(Robert E. Elmore)가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로부터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여기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아직 생기도 많았고 알려지지도 않은 소위 개방회원제(open membership)란 것을 선교사들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개방회원제란 것은 우리가

41) 커널 새뮤얼 하든 처치(Colonel Samuel Harden Church, 1858-1943)의 강연주제는 '일백년의 진보와 성취들'(Progress and Achievements of a Hundred Years)이었다.

You know this movement was so harassed and greatly maligned. It was still the fastest growing religious movement of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But it was this convention that that was the first indication of infiltration of the liberal theology. Some of the key speakers began to refer to the myth of the virgin birth, the myth of the bodily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one particular address (강연주제: "Progress and Achievements of a Hundred Years") delivered by Pittsburgh attorney by the name of Colonel Samuel Harden Church(1858-1943) was so radical in his theology that in unprecedented fashion that huge convention audience began to hiss and boo. It was so radical that his address was not even published among the subsequent addresses of that convention that would put into print.

F. Formation of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 1919.

It was shortly after that in 1911 Robert E. Elmore, who that time was the corresponding or recording secretary for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in correspondence with the missionaries which had been sent out by the Foreign Society overseas, discovered that they were practicing what was called open membership unborn unknown to the churches here in America.

Now open membership is the practice of receiving

경건한 미침수자들(pious unimmersed)⁴²⁾이라고 일컫는 자들을 교인(membership)으로 받아드리는 관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들에서 전도자들과 장로들과 또 다른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받아드려졌습니다. 엘모어 형제는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려야한다고 선 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도덕적 무결함을 누리기 위해서 마침내 자신의 직(職)에서 사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실들에 관한 이 모든 주고받은 서신들이 출판되었고, 형제들은 이 상황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소위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라는 하나의 형태(조직)가 된 것은 1919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거나 인용한 모든 전술한 여섯 개 기관들의 통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시 저는 저의 부모님께서 이 대회에 참석하셨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극도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슈)였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를 했을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반대(nays)가 우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찬성(ayes)이 통과됐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투표를 마쳤을 때 마침내 켄터키 주 조지타운에 있는 역사적인 제일그리스도인의교회(First Christian Church)의 목사인 빨간 머리칼의 설교자가 연설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기를 낳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만들 것입니까? 하나의 요람입니까? 또는 하나의 케이지(cage)입니까?” 그 만장일치의 질문은 곧바로 역사적 사실에서 지지를 받아 그들은 빠르게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IV. 환원운동의 고유(固有)의 원리들[IV. Original principles in the Restoration Movement:]

42) ‘경건한 미침수자들’(pious unimmersed)이란 표현은 1837년에 알렉산더 캠벨이 약식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경건한 미침수 그리스도인”이란 지위를 부여한데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서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 논쟁이 있었다. [http://kccs.info/rh13lessons Teaching Materials.pdf](http://kccs.info/rh13lessons_Teaching_Materials.pdf), 229-253쪽.

in the membership what we refer to as pious unimmersed. And they were been accepted in the use of as evangelists and elders and another leader in the churches. Brother Elmore asked the Society to reveal this fact to the brethren. But they refused. To enjoy his moral integrity he at last resigned from his position. And subsequently all these correspondences on these facts were published and the brethren were afire with this situation.

It was in 1919, then, again in Cincinnati Ohio that that was a form what was called the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This was comprised of the amalgamation of all the preceding six agencies which we before mentioned or cited. They're all brought into this one agency. Again my parents, I recalled, were present at this convention. They told when their vote was taken because of the extremely controversial issue. They said that the nays prevailed. However, the chair declared that the ayes had carried. At the end of that vote, finally red-haired preacher who's the minister of historic First Christian Church in Georgetown Kentucky stood to speak and he asked, "Now had we given birth to this baby, what shall we build for it, a cradle or a cage?" That unanimous question soon was born out in historical fact so that they rapidly began to proceed.

IV. Original principles in the Restoration Movement:

A. 성경 - 성령의 영감으로 된, 무류(無謬)한 -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도 전적으로 충분한 규범(성경의 백성, 성경책의 백성).[A. The Bible - Holy Spirit inspired, infallible - the authoritative Word of God - the only and all-sufficient rule of faith and practice (a Bible people; a people of the Book).]

이 시점에서 저는 여기서 다시 불쑥 끼어 넣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과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 믿어야만 했던 것들이 무엇이였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靈感)으로 된, 무류(無謬)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며, 믿음과 실천 모두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전적으로 충분한 규범이란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성경의 백성 또는 성경책의 백성으로 그들이 언급된 이유입니다.

B. 예수 그리스도 - 메시아와 죄에서 구원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심[B. Jesus the Christ - the Messiah and Savior from sin, “the only begotten Son of the living God” - Holy Spirit conceived, virgin born.]

둘째로 모두 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죄에서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죽으셨고 장사지낸바 되셨으며, 다시 사셨고, 시작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C. 교리와 의식들과 삶에서 신약성경의 모범을 따른 교회의 환원[C. The restoration of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pattern - in doctrine, ordinances, and life.]

셋째로 그들은 모두 교리와 의식들(침례와 주의 만찬)과 삶에서 신약성경의 이상을 따르는 교회의 환원을 주창하였습니다.

A. The Bible - Holy Spirit inspired, infallible - the authoritative Word of God - the only and all-sufficient rule of faith and practice (a Bible people; a people of the Book).

At this point in time, I want to here again interject. "What were those that all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had to believe at this point in time?" First of all, they believed that the Bible was Holy Spirit inspired, infallible, the authoritative Word of God, the only and in all-sufficient rule of both faith as well as practice. That's the reason they were referred to as they, a Bible people or a people of the Book.

B. Jesus the Christ - the Messiah and Savior from sin, "the only begotten Son of the living God" - Holy Spirit conceived, virgin born.

Secondly, all of them believed that Jesus was the Christ, the Messiah, the Savior from sin, the only begotten Son of the living God, the Holy Spirit conceived, virgin born Son of God who died, was buried, was raised, began, ascended and his returning.

C. The restoration of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pattern - in doctrine, ordinances, and life.

They all advocated the restoration of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ideal in its doctrine, ordinances, and life.

D. 신약성경 – 일치의 유일한 실제적인 기준[D. The New Testament – the only practical basis of unity.]

넷째로 그들은 모두 신약성경이 일치의 유일한 실천적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E. 인위적인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이 아니므로 교제의 시금석들이 되지 못함[E. Human expedients not permitted to become tests of fellowship, as they were not of divine origin.]

다섯째로 그들은 또한 인위적인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이 아니므로 결코 교제의 시금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F. 세기의 전환기에 이 기준 위에서 진행 – 오순절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앙 운동[F. Proceeding on this basis, at the turn of the century – fastest growing religious movement since Pentecost.]

여섯째로 세기의 전환기에 이 기준 위에서 진행되면서 이 운동은 북미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은 금세기가 오기 전까지 이 모든 전술한 것들을 믿었습니다.

I. 합리주의의 침투(불신앙)[I. Infiltration of Rationalism (Infidelity).]

그런 다음 합리주의 또는 불신앙과 불신의 심각한 침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D. The New Testament - the only practical basis of unity.

They all believed that the New Testament was the only practical basis of unity.

E. Human expedients not permitted to become tests of fellowship, as they were not of divine origin.

They also all believed that human expedients should never be allowed to become tests of fellowship, because they were not of divine origin.

F. Proceeding on this basis, at the turn of the century - fastest growing religious movement since Pentecost.

Proceeding on this basis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is movement was the fastest growing up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Now all Churches of Christ and Christian Churches believed all these foregoing things until the turn of this present century.

I. Infiltration of Rationalism (Infidelity).

Then began in the serious infiltration of Rationalism or infidelity and unbelief.

A. R. E. 오스본(R. E. Osborn)에 의해 인정됨 - 국제 대회 - 1958[A. Admitted by R. E. Osborn - International Convention - 1958.]

이것은 1958년 (세인트루이스에서 모임) 그리스도의제자들국제대회에서 로널드 E. 오스본(Ronald E. Osborn)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그의 연설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미래와 에큐메니칼 항해(航海)”(Future of the Disciples of Christ and Ecumenical Voyage)였습니다. 그 연설에서 그는 캠벨(Campbell), 밀리건(Milligan), 맥가비(McGarvey), 앨런(Allen?) 및 필립스(Phillips)의 교리적 개요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오늘날 이들 목소리들은 다른 세계에서 곧 대중정신에 현대과학이 영향을 미치기 전, 성경비평과 양식비평(Form Criticism)이 있기 전, 미개척영역이 지나가기 전, 우리의 비대해진 기관들의 오류가 있기 전, 우리의 전문 목사직이 발전하기 전, 에큐메니칼 펠로우십(ecumenical fellowship)이 출현하기 이전의 세계에서 울려 퍼졌다.”

그런 다음 그는 말할 때 이 탈선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인용합니다.

“이미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입장의 전통적인 공식은 일반적으로 현대사상과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흔들려왔다. 그러나 큰 초교파 대학원들에서 공부한 우리 남성들은”(여기서 그는 예일, 하버드, 시카고대학교와 같은 학교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금세기 초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는 신흥 에큐메니칼 운동에 신학적으로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중요한 리더십을 제공하였다.”

B. 교육자들과 학자들의 견해. 학자들의 패널의 저술들 - <교회 갱신> - 1963년에 출판됨[B. Views of educators and scholars. Published works of Panel of Scholars - The Renewal of Church - 1963.]

1956년에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와 그리스도의제자들 고등교육위원회(Board of Higher

A. Admitted by R. E. Osborn - International Convention - 1958.

This was admitted by Ronald E. Osborn 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Disciples of Christ in 1958 (assembled in St. Louis). His address was entitled of "Future of the Disciples of Christ and Ecumenical Voyage." In that address he said this, referring doctrinal synopsis of Campbell, Milligan, McGarvey, Allen(?) and Phillips. Quote:

"Today these voices sounded from another world, from the world before the impact the modern science in the popular mind, before biblical criticism and Form Criticism, before the passing of the frontier, before our error of massive institutions, before our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 ministry, before the emergence of the ecumenical fellowship."

Then he makes a candid public confession of this digression when he says. Quote:

"Already by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the traditional formulation of our position has been shaken by the impact of the modern thought in general and the liberal theology in particular. But our men who studied great nondenominational graduate schools" (Here he's alluding such schools as Yale, Harvard, University of Chicago.) "made convincing reconstruction of the Disciple position in terms of liberalism. And through the early decades of this century we furnished important leadership both theological and administrative to the emerging ecumenical movement."

B. Views of educators and scholars. Published works of Panel of Scholars - The Renewal of Church - 1963.

It was in 1956 that the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along with the Board of Higher

Education of Disciple of Christ)가 소위 학자들의 패널(Panel of Scholars)이란 것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학자들의 패널은 환원운동의 원리들을 재연구하고 그것들이 수정을 필요로 한 것들을 수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7년 후인 1963년에 이 학자들의 패널은 <교회갱신>(The Renewal of Church)이라는 세 권으로 엮은 한 질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권으로 엮은 한 질의 책에서 그들은 로널드 오스본(Ronald Osborn)이 여기 그의 연설에서 확인한 모든 것에 대한 확증을 밝혔습니다.

1. 성경의 영감과 무류성에 대한 부인[1. Repudiation of Bible's inspiration and infallibility.]

우선 이들 책들에서, 이들 책들은, 그런데, 주로 이전에 이미 여러 출판물에 실렸던 이들 학자들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리즈에서 그들은 성경의 영감과 무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언급된 것을 여기에서 저와 함께 주목해 주십시오. 랄프 G. 윌번(Ralph G. Wilburn)은 당시 켄터키 주 렉싱턴(Lexington Kentucky)에 소재한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College of the Bible. Lexington Theological Seminary로 변경됨)의 과장(dean)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59년 1월호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 계간지>(the College of the Bible Quarterly)에 실은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경험에 있어서 전통의 역할'(The Role of Tradition in the Experience of Jesus as Christ) 12쪽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용합니다.

“성경말씀의 난공불락의 바위는 성경비평학 덕분에 더 이상 난공불락이 아니다.”

같은 글에서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옛 그리스도교(개신교)의 무류(無謬)한 책은 지성을 위한 비평적 사고(思考)를 위해 영원히 사라졌다.”

그런 다음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최근의 성경비평에 의해 도달된 결론들에 비추어 볼 때, 신학적 정직(integrity)은 무류(無謬)한 책에 대한 이 잘못된 믿음, 선구자들

Education of Disciple of Christ selected what they called a Panel of Scholars. This Panel of Scholars was commissioned to restudy the principle of Restoration Movement and to modify them what they needed modification. Seven years later in 1963. This Panel of Scholars had published a three volume set, called *The Renewal of Church*. And in this three set volume they revealed a confirmation of all that Ronald Osborn here affirmed in his address.

1. Repudiation of Bible's inspiration and infallibility.

First of all, in these works, these works, by the way, were comprised primarily of writings of these scholars that had been put into various publications at previous dates. First of all, in the series they repudiated the Bible's inspiration and infallibility. Note with me here what was said about that. Ralph G. Wilburn was a dean of the College of the Bible (Lexington Theological Seminary) in Lexington Kentucky at this time. And he wrote, in "the Role of Tradition in the Experience of Jesus as Christ" that it was in the *College of the Bible Quarterly* (January 1959) on page 12, this. Quote:

"The impregnable rock of Scriptures is not so impregnable anymore thanks to the science of biblical criticism."

In the same article he says this again. Quote:

"The infallible book of Old Protestantism is gone forever for critical thought for mind."

Then he also says this. Quote:

"In view of the conclusions reached by recent biblical criticism, theological integrity caused upon the Disciplesdom the more force to write abandonment of this false belief in the infallible book, a belief which was a great degree of obscure from the view of the fathers,

(fathers)의 관점에서 대단히 모호한 믿음, 신약성경 문서의 틀리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성격의 포기를 작성하도록 더 많은 힘을 제자들 교단(Discipledom)에게 일으켰다.”

이것은 <인카운터>(Encounter) 1959년 여름호 342쪽에 실린 ‘환원 원리 비평’(A Critique of the Restoration Principle)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거부[2. Repudiation of Bible’s representation of Jesus.]

또한 이 시리즈 책에서 이 학자들의 패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켄터키 주 렉싱턴에 소재한 성경대학(College of the Bible)의 신약학 교수인 윌리엄 베어드(William Baird)가 말한 것과 그가 권위로 여겼던 것 그것에 관해서 저와 함께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용합니다.

“그러나 양식비평의 등장 이후로 예수의 생애에 대해 무엇이 밝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복음서들은 역사적 기록들이 아니라 작은 단위들(units 혹은 forms)의 구전을 편집한 것이다. 이들 단위들의 많은 부분이 역사성에서 의심스럽거나 문학적 관련성에서 후대의 편집가가 구성한 것이 확실하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⁴³⁾

43) 신약학에서의 양식비평(Formgeschichte)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카를 루트비히 슈미트(Karl Ludwig Schmidt, 1891~1956), 마르틴 디벨리우스(Martin Dibelius, 1883~1947),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 1884~1976) 등이었다. 슈미트는 <역사적 예수의 구성>(Der Rahmen der Geschichte Jesu, 1919)에서 복음서를 전승 자료들의 수집이라고 보았다. 디벨리우스는 <복음서 양식사>(Die Formgeschichte des Evangelium, 1919)에서 복음서의 내용을 예증들(Paradigms), 설화들(novellen or tales), 어록들(sayings), 전설들(legends), 신화들(myths)이란 다섯 개의 양식들(forms 혹은 units)로 구별하였으며, 이들 전승들은 선교적인 필요성에 따라 설정되었고, 설교 속에 존재하였으며, 후에 발전된 양식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볼트만은 <공관복음서 전승사>(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1921)에서 크게 두 개의 양식 곧 예수의 말의 전승과 설화자료의 전승으로 나눈 후 다시 아포프테그마(논쟁대화, 사제대화, 전기적 아포프테그마), 주의 말(로기온, 예언자의 묵시적 말, 율법의 말과 교회 규율, 나-말), 이적 설화 그리고 역사 설화와 전설이란 네 개의 양식들

the fallible historical character of the document of the New Testament."

This was found in "A Critique of the Restoration Principle" in *Encounter* in the summer of 1959 page 342.

2. Repudiation of Bible's representation of Jesus.

Also in this series of volume this Panel of Scholars repudiated the Bible's representation of Jesus Christ. Note with me in that regard to what William Baird, the professor of New Testament at College of the Bible in Lexington Kentucky, said, what he regarded to authority. Quote:

"Since the rise of Form Criticism, however, serious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at can be known about the life of Jesus. The Gospels are not historical records, but compilation of small units of oral tradition. Many of these units are doubtful historicity or the literary relationship as certainly the construction of later editor.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Jesus, it seemed to let astray into a blind alley."

로 구별하였으며, 이들 전승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창작(제작, 조작) 또는 신앙고백이라고 주장하였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옛 탐구(old quest)학과와 신 탐구(new quest)학과로 나뉜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옛 탐구학과에 속한다면, 신 탐구학과는 1950년대에 군터 보른캄(Gunther Bornkamm, 마태복음 연구), 빌리 마르크센(Willi Marxsen, 마가복음 연구), 한스 콘젤만(Hans Conzelmann, 누가복음 연구)과 같은 편집비평(Redaktionsgeschichte) 학자들을 말한다. 편집비평학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을 역사가로 보기보다는 신학자, 해석자, 편집자로 간주하였다.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 계간지>(the College of the Bible Quarterly) 1958년 7월호 17쪽의 '설교로써 종말론'(Christology as Sermon)에서 발견된 인용문 끝에서 과장 윌번(Wilburn)은 거의 같은 것을 실제로 말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인용합니다.

“요컨대, 성경이나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에서 권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 질문이 문제가 되어왔다. 오래된 정통적인 의미에서 이 믿음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환원 원리 비평’(A Critique) 339쪽에 있는 인용문 끝. 그런 다음 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자유주의(신학)자들의 투쟁에 관해 선교회의 임원들 중 한 명인 스티븐 J. 코리(Stephen J. Corey)는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그 결과는 교육 기관에 대한 우리 형제애의 흐름을 정말로 바꿔 놓았다. 오늘날 성경대학(College of the Bible)의 교수진이 그토록 무익하게 표명한 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고등교육위원회(Board of Higher Education of Disciple of Christ)의 회원 자격을 보유한 모든 학교들의 교수진의 신념과 작동 원리가 되었다.”

그것은 55쪽과 <공격과 논쟁의 50년사: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교회의 헌장으로써의 환원과 신약성경을 거부[3. Rejection of restoration and New Testament as church's constitution.]

또한 우리는 이 세 권의 책에서 이 학자들의 패널이 신약성경 교회의 환원개념을 거부하고, 교회의 헌장으로써의 신약성경 개념을 거부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우리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과장 오스본이 그의 연설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용합니다.

“그 슬로건 곧 환원주의자적 원시 그리스도교, 그것의 교리, 그것의 의식들(침례와 주의 만찬), 그것의 진리로 이 관심을 표명한 우리의 선구자들(fathers)은 환원주의(restorationism)가 사도성(apostolicity)에 대한 잘못된 시도였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

End of the quote found in "Christology As Sermon," *the College of the Bible Quarterly* (July 1958) page 17, dean Willburn says practically the same thing and concludes. Quote:

"In short, the entire question as to whether the Bible, or the teachings of Jesus.. . can, in any sense, be regarded as an authority has become problematical. This belief, in the old orthodox sense, is no longer possible."

End of quote found in "A Critique" page 339. Then concerning the struggle of the liberals to capture the school, Stephen J. Corey, one of the executives of the Society says. Quote:

"The outcome really turned the tide in our brotherhood for the educational institution. Today what the faculty of the College of the Bible stood for so barrenly had become mainly the conviction and the working principle of the faculty in all of our schools holding membership in the Board of Higher Education of the Disciples of Christ."

That's found page 55 and *Fifty Years of Attack and Controversy: (The Consequences among Disciples of Christ)*.

3. Rejection of restoration and New Testament as church's constitution.

Also we find it in this three volume, this *Panel of Scholars*, rejected the concept of restorati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and rejected the concept of the New Testament as the church's constitution.

Again we find dean Osborn in his address I earlier alluded to, saying this. Quote:

"Our fathers that expressed this concern in the slogan: the restorationist primitive Christianity, its doctrine, its ordinances, and its truth were announcing clear that restorationism has been a misguided attempt at apostolicity."

다.”

4. ‘개방회원제’(open membership)의 실천[4. Practice of “open membership.”]

5. 에큐메니칼 열망에 연여서 초교파적 지위를 거부[5. Rejection of undenominational status linked to ecumenical aspirations.]

6. 인위적인 수단을 기본적인 신앙이나 교리의 수준으로까지 높임. 참조: 13건의 법정소송들과 제자들의 주장[6. Elevating of human expedients to level of basic faith or doctrine. Cf. the 13 court cases and the allegations of Disciples.]

고대 교회에서 기록된 모든 관행은 아무리 우연한 것이라도 항상 일부를 철갑(鐵甲) 패턴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가정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제자들이 특히 중요한 에큐메니칼 미래로써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한 하나의 그리스도교 교단으로서 우리 자신이 기능하는 것을 존중한다.”

이것들은 형제애 구조와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들이 환원에 대한 거부를 에큐메니칼 열망과 연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언급하고 또 그가 시인한 오스본(Osborn)에서 더 지적됩니다. 인용합니다.

“제자들이 의식적으로 일하고 있고, 또 더 합리적이고, 더 내면에 만들어진 교회 구조는 건전하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헌장과 부칙에서 분명한 진술을 통한 각 회중, 형제애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의 확고한 원칙의 실질적 이행과 책임 있는 협력 구조에서 모든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 왜 이 모든 것이 이행되어야합니까? 과장 오스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대회를 통해 교회 협의회들(Councils of

4. Practice of "open membership."

5. Rejection of undenominational status linked to ecumenical aspirations.

6. Elevating of human expedients to level of basic faith or doctrine. Cf. the 13 court cases and the allegations of Disciples.

it is assumption that every recorded practices in ancient church, no matter how casual, constituted part of ironclad pattern for all time. Eventually says later this. Quote:

"We respect our own functioning as a Christian denomination to areas of our lives as the Disciples of Christ are particular important ecumenical future."

These are brotherhood structure and theology because now you see also they begin to link this rejection of restoration with ecumenical aspiration. This is pointed out further in Osborn who addressed and he admitted. Quote:

"It is wholesome that the Disciples are consciously working, and a more rational, more inner created ecclesiastical structure. We do well to recognize that such and to encourage every development, whereby each congregation through explicit statement in the constitution and bylaws and to practical performance of firm principle of commitment to the brotherhood program and to the responsible structure of cooperation."

Now why must all this be done? Dean Osborn tells us very clearly. Quote:

"Only thus do we have any effect to (having) a part in the ecumenical movement on membership in Councils of

Churches) 회원 자격을 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여하고 책임 있는 기관들을 통해 그 일에 참여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래야만 미래의 가능한 버전(version, 형태)으로의 성공적인 모험과 연합교회(United Church) 안에서 더 폭넓은 삶을 찾기 위해 (그리스도의)제자들과로서의 우리의 삶을 손해 볼 어떤 희망이 있는가?”

그런 다음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교회주의가 성장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단 위에 세워진다. 교단의 합병으로 진행되는 연합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제자들이 자신들을 하나의 교단으로 보게 하고, 언젠가 회복된 구조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회 제도를 추구하게 한다.”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이렇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의)제자들의 지도자들 곧 이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 우리나라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창립멤버가 되었습니다. 1906년 초에 미국연방교회협의회(Feder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가 공식화되었고,⁴⁴⁾ 차례대로 1950년에 전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NCC)로 알려진 더 큰 조직의 회원교단이 되었으며, 1948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WCC)의 회원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이렇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의)제자들의 지도자들은 이들 에큐메니칼 결합체들에 참석할 때 오히려 좌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합체는 교단에서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존경받는 대표가 그들의 전체 교단을 위해 공식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그리스도의)제자들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은 개교회가 자치권을 갖는 자치제도(locally autonomic self-governing)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만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전체 (환원)운동권을 위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또 그

44) FCC 곧 연방교회협의회는 2년 뒤인 1908년에 창립되었다.

Churches through our convention and our participation in that work through our responsible agencies? Only thus is there any hope of our successful adventure into our possible version in the future and the losing of our life as Disciples to find a larger life within the United Church?"

Then again he says this. Quote:

"Ecclesiasticism is growing. The ecumenical movement is built on denomination. Union, proceeded by denominational merger, (has) increasingly the Disciples see themselves as a denomination and seek a more rational and effect the ecclesiastical institution through the ever restored restructure."

What was happening is this. These Disciples' leaders, these liberal theologians, have become a part of the initial ecumenical movement here in our country. Early in 1906 formulated Feder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which in turn 1950 became a part of the larger body known as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which in 1948 had become a part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Nonetheless, what was happening is this. These Disciples' leaders, when they attend these ecumenical concretes, rather frustrated because this concrete was made upon denominational body and there respectable representative could speak officially and authoritatively for their entire denomination. But these Disciples' leaders found themselves no such position at all. Every Churches of Christ and Christian Churches were locally autonomic self-governing. They represent only themselves. They can not speak for the entire movement.

래서(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 재구성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의 진정한 교단이 될 수 있고, 결국 그런 다음 교단으로서 에큐메니칼 결합체에 참여하며, 공식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전체 (환원)운동권을 대변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발전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II. 교회들의 방침결정[II. Orientation of the Churches.]

A. 교육부(그리스도의제자들) 및 그것의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들 - 1945(베다니출판사 및 그리스도인출판부)[A. The Division of Education (Disciples of Christ) and materials prepared by its curriculum committee - 1945(Bethany Press and 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

글쎄요, 그들은 신학교에서 수학한 설교자들인 지도자들을 성공적으로 세뇌시켰습니다. 이들 교육받은 지도자들, 이들 학자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지역 교회들에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공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이 신학문과 지식 곧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교회들이 일정하게 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제자들교육부(the Division of Education of the Disciples of Christ)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자료들은 그것의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B. 성경학교들, 선교단체들, 청년회들 등을 위한 준비[B. Prepared for Bible schools, mission groups, young people's societies, etc.]

이 특별한 점에 있어서 매우 매우 솔직히 언급된 내용을 저와 함께 다시 한 번 주목해 주십시오. 1945년 9월 당시 켄터키 주 렉싱턴

And so (they) began this process of restructuring. So they can become a bonafide denomination and eventually then as denomination participate in the ecumenical concrete and speak officially and authoritatively for the entire movement. This was the rationale behind all of this development.

II. Orientation of the Churches.

A. The Division of Education (Disciples of Christ) and materials prepared by its curriculum committee - 1945(Bethany Press and 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

Well, they successfully had indoctrinated the leaders, the preachers who'd been taught in the seminary. These educational leaders, these scholars had now adopted officially liberal theology. But the question was how they're going to get the local churches to accept this. So, they began a program provided and endeavored to orient the churches to this new learning and knowledge, this liberal theology. It was done through the Division of Education of the Disciples of Christ and the materials would be prepared by its curriculum committee.

B. Prepared for Bible schools, mission groups, young people's societies, etc.

Note again with me what was stated in this particular regard very very candidly. It was in September of 1945

시에 소재한 성경대학(the College of the Bible)의 종교교육학 교수였던 마이런 T. 하퍼(Myron T. Harper)가 “제자들과 종교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성경대학회보(the College of the Bible Bulletin)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용합니다.

“제자들은 종교교육분야에서 연구자료 개발에 앞장서 왔다. 교과과정위원회는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이 위원회의 사역 범위는 확장되어 교회학교 수업들, 선교 스터디그룹들, 청년회들, 리더십 교육 및 삶을 위해 교단(brotherhood) 내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들을 포함하였다. 이 위원회의 사역은 최고의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표면적으로...”

이제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표면적으로 이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자들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이론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 내용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는 오래된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출발을 하였다. 제자들의 교육 지도자들은 연구에서 경험과 관련이 없는 책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의 유용성을 분명히 따짐으로써 보다 적절한 교육이론을 수용하였다. 제자들에 대한 상식적인 태도가 전면에 나서 성경내용 이론을 포기하게 하였다. 개 교회들...”

이제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개 교회들은 최상의 교육이론들과 절차들을 수용하는 (그리스도의)제자들의 교육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인도하기 위하여 그것과 경험한 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여전히 성경을 가르칠 것을 고집하였다." 인용 끝.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시에 있는 베다니출판사(Bethany Press)와 그리스도인출판부(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는 성경학교들, 선교단체들, 청년회들 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이 새로운 학습, 이 새로운 지식,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들을 세뇌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 중 일부의 표본 추출에서처럼, 예를 들면, 연합그리스도인 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산하 재일본 선교사들

in the *College of the Bible Bulletin* under the heading, "the Disciples and Religious Education" that Myron T. Harper, then, professor of religious education of the College of the Bible in Lexington Kentucky wrote this. Listen. Quote:

"The Disciples have been in the forefront in the development of study material in religious education. A curriculum committee was working for providing adequate material. The scope of this committee's work was expanded to include all the materials issued by the brotherhood for church school classes, mission study groups, young people's societies, leadership education and the life. The work of this committee went forward on the basis of the best educational theory. On the surface."

Now listen to this.

"On the surface this might seem surprising in view of the Disciples' traditional being a Bible people. For this theory men made a departure from the older idea of the direct teaching of the Bible contents. The Disciples' educational leaders embraced more adequate educational theory for when research made clear the utility of teaching the content of a book unrelated to experience. The common-sense attitude to the Disciples came to the fore and led to the abandonment of the Bible content theory. Local churches."

Now hear this.

"Local churches had not been as ready as the Disciples' education to accept the best educational theories and procedures. Many of them still insisted on teaching the Bible instead using it to guide and which experienced." End of the quote.

And so now this process began. The Bethany Press and the 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 in St. Louis Missouri began to prepare for the Bible schools, for the mission groups, young people's societies and so for. All of these materials were supposed to indoctrinate them in this new learning, this new knowledge, this liberal theology.

Just as the sampling of some of these, for instance,

가운데 한 사람인 제시 트라우트(Jessie Trout)⁴⁵⁾가 기사를 써서 UCMS(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에 보낸 것은 1939년이



제시 트라우트(1895-1990)

였습니다. 그 선교회는 그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것을 인쇄하여 이 운동권에 속한 모든 여선교회들에 발송하여 그들의 월례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그녀가 말해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사 일부 초록을 인용하고자합니다. 인용합니다:

“학계 비평가들이 해외선교에 대해 제기한 주요 비판들 중 하나는 선교가 선교사들이 와서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들과 신앙들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많은 현대 선교사들은 동양 종교들에서의 가치들을 인식하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더 이상 지금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들에 접근하지 않고 열린 지성들과 심정들로 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대들이 놓으신 좋은 기초 위에서 다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함께 온전하고 완전할 하나의 종교를 세웁시다.’고 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 기사에서 유교와 불교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확실히, 이들 종교들에서의 발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동양의 선지자들로부터 공통된 진리와 가르침을 확실히 찾을 수 있다.” 그녀는 말하기를, “만약 동양에서 변형사건이 일어난다면, 현대 선교들이 이것 곧 그리스도교가 이방

45) 제시 메리 트라우트(Jessie Mary Trout, 1895-1990)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거의 20여 년간 사역한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지도자로서 여성 최초로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 부총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리스도인여성친목회(Christian Women's Fellowship, 1950)와 국제그리스도인여성친목회(International Christian Women's Fellowship, 1953)의 공동 창립자였다. 1955년에 베다니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it was in 1939 that Jessie Trout, one of the missionaries in Japan under the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wrote an article and sent it back to UCMS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The Society was so impressed by it that they had it printed and mailed out to all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in this Movement for use in their monthly meeting. Now this is what she had to say. I want to quote some abstract from this article. Quote:

"One of the chief criticisms leveled at foreign mission by scholarly critics is that mission tear down the religions and beliefs of the people whom missionaries come to serve. Fortunately many modern missionaries have learned to recognize the values in the religions of the East. They are no longer approach their problems from the superior than now standpoint but as open minds and hearts. They say, 'Let us work on the good foundation which you have laid and together build a religion that will be perfect and complete.'"

Then she goes on this article to say this about Confucianism and Buddhism. Quote:

"Surely, the findings in these religions have been witnesses of the living God. Christianity today can, just as surely, find common truths and teachings of oriental prophets. I have thought." She said, "that if the transfiguration will take place in the orient,

종교들과 손을 잡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변형 산에서 부처와 공자와 담화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선교사는 변형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기보다는 예수님과 부처와 공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그 같은 운동권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외적인 것이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 소재한 <신시내티 신문>(the Cincinnati Newspaper)이 이렇게 말한 것은 194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인용합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거주하는 제시 M. 트라우트(Miss Jessie M. Trout)는 어제 그리스도의제자들의 국제대회총회에서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 부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시 트라우트가 선출된 그 직위는 (그리스도의)제자들 교단(brotherhood)에서 가장 높은 직위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의 교회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인지를 봅시다. 여기에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른 분야들에서 성인들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제대회의 전 회장이었던 레슬리 R. 스미스(Leslie R. Smith)는 ‘예수 이해’(Understanding Jesus)라는 제목의 <베다니 학년별 계간>(Bethany Graded Quarterly)에서 성경학교 교사들에게 W. D. 데니(W. D. Denny)의 책, <예수의 명확함과 중요성>(The Clear and Significance of Jesus)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셨는지를 더 잘 이해하려고 나쁜 상황을 고착시켰습니다. W. D. 데니가 신약성경에 관하여, 소위 예수의 신성에 대한 이론들에 관해 무엇을 말해야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그가 성경학교 교사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그들 중 일부, 아마도 전부, 우리는 분명히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학교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들 이야기들을 놀랄만한 불가사의한 이

we will find Jesus on the mount in conversation with the Buddha, and the Confucius because modern missions believe this: Christianity can and does join hand with non-Christian religions."

So this lady rather having Moses and Elijah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would have Jesus, Buddha, and Confucius. Now you would say, "Certainly this kind of teaching is out of place in such a movement." Was this teaching the exception? Listen. It was October 1949 that in Cincinnati Ohio, *the Cincinnati Newspaper* said this. And I quote them.

"Miss Jessie M. Trout in Indianapolis was electe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yesterday at the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Disciples of Christ. The post which Miss Trout was elected is one of the highest in the Disciples' brotherhood."

Now let us see how they're going to orient others in our churches. Here is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And now they focused specially upon adults in other areas. Leslie R. Smith, who was a past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 the *Bethany Graded Quarterly* entitled "Understanding Jesus," referred to the Bible school teachers to W. D. Denny's book, *The Clear and Significance of Jesus*, so they would nail of their bad situation to understand better who Jesus was. Listen what W. D. Denny has to say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so called, theories of the divinity of Jesus. Here is what he tells to the Bible school teachers. Quote:

"Some of them, perhaps, all of them, we have clearly outgrown."

Then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he tells the Bible school teachers this. Quote:

"Many people today feel these stories hard to be taken much as the wonder stories

이야기들로 받아드리기 어렵게 느낀다. 그 이야기들이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실제적이고 생생한 진리로 만들고 싶은 경건한 상상과 열망에서 자란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인용구절들에서 먼저 것은 그 특정한 책 335쪽에, 마지막 인용문은 320-321쪽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용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렇게 제한된 사람이 종교에 대한 자신의 중요성에서 영구적으로 최고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인용문 끝. 44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교회들의 젊은이들은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의 교과과정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리스도인출판위원회 편집자들은 1946년 초에 <그리스도인 청년 친목회 계간>(Christian Youth Fellowship Quarterly)과 <두 번째 계간>(the Second Quarterly)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읽는 것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태초에 관한 많은 이들 이야기들에서 허구가 언제 끝나고 진실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말하기란 정말 어렵다.”

그것은 66쪽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 메리 라이먼(Mary Ryman)이 쓴 청년 친목회의 책, <예수>(Jesus)에서 젊은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지식의 한계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날 어린이는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살았던 물리적 세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과학연구에 있어서 초보자라도 자연에 관한, 우주에 관한, 예수님이 결코 꿈꾸지 못했던 것에 관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

그 인용문은 그 책의 48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기에서 선택하십시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of the breathtaking that the stories grew out of the devout imagination and the desire to make real and vivid truth of Jesus invisible presence among his followers."

These clauses are found on page 335 the first one and the last quote on page 320 and 321 of that particular volume. And he then asks this question concerning Jesus. Quote:

"Can we say reasonably that a man thus limited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physically and mentally can be permanently supreme in his significance for religion?" End of quote. Found on page 447.

Then our young people in our churches became primary targets for this new indoctrina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curriculum committee of the United Society the 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 editors prepared *the Christian Youth Fellowship Quarterly* and *the Second Quarterly* early in 1946. Here is what we read concerning the Bible. Quote:

"Truly it is hard to tell when fiction ends and truth begins in many of these stories of the beginning of the world."

That's found on page 66. Then in the Christian Youth Fellowship book, *Jesus* by Mary Ryman, young people are told of this. Quote:

"We should face at the outset the necessity of knowledging the limitation of Jesus' knowledge. A child today has more information about the physical world which we lived than Jesus could have. The beginner in scientific study today is possessed of the facts about the nature, about the universe, about which Jesus never dreamed."

That quote is found on page 48 of that volume. So here take your choice. John, in the prologue of his Gospel, says thi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 thing made that hath been made."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서문을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나 이 여성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심지어 오늘의 어린이들에게조차 자연에 대해 우주에 대해 예수님이 가질 수 있었던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이 취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은, 그들이 이 배교와 환원운동의 역사적 위치와 교리적 입장에서 이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 선교단체들과 이들 대학들에 대한 그들의 지원을 모두 끊고 이들의 대회들에 참석하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직 생활을 신봉하는 저들이 제기한 무리한 소송들은 더 이상 금전이나 그들의 참석으로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개 교회들의 재산들의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애썼습니다. 약 14개 주들에서 개 교회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근거는 단체(firm)였던 이들 교회들이 그리스도의제자들 교단의 영속된 교리들과 관습들과 용법들에 대한 그들의 신뢰로 인해 감명을 받아왔다는 것과 그들의 실패로 인해 재정적으로 또 참석으로 이 교단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들 개 교회들의 단체(firm)였고, 그들은 뭔가 다른 것으로 갔고, 그들의 입장을 바꿨으며, 새로운 교단이 되었고, 따라서 재산들의 소유권을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 진실과 역사가 이겼습니다. 이들 사건들이 재판을 받은 모든 주(州)에서의 모든 항소 법원은 개 교회들의 입장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관의 후원여부가 그리스도의교회로서 및 그리스도인의교회로서의 교회 지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모든 개개 그리스도의교회 또는 개개 그리스도인의교회가 개 교회적으로 자치적이었고 그리스도인의교회로서 혹은 그리스도의교회로서의 그것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어

Listen to prologue of the Hebrew letter.

"God, having of old time spoken unto the fathers in the prophets by divers portions and divers manners, hath at the end of these days spoken unto us in 'his' Son, whom he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through whom also he made the worlds."

But this woman tells our young people, even a child today, have more knowledge about the nature and about universe than Jesus could have possibly had.

This is the direction that this liberal theology took. So, our churches, as they became aware of this apostasy, of this digression from the historical stance and doctrinal position of the Restoration Movement, began to cut off all their supports of these missionary agencies and these colleges and quit attending these conventions. And so as results, a rash of lawsuits instituted by those adherents to the organizational life endeavored to take away the title of the properties of the local churches that would be no longer supporting them with moneys or their presence. The basis of litigation that instituted in approximately fourteen different states against local churches was the fact that these churches that was the firm have been impressed by their trust to perpetuated doctrines and customs and usages of the Disciples of Christ denomination and, by their failure, discontinued the support of this financially and by presence. They had, in fact it was the firm of these local churches, had gone something different, had changed their position, had become a new denomination, and thus must forfeit the title of properties.

Thanks be to the Lord! Truth and history prevailed. Every appellate court in every state that these cases were tried upheld the position of the local churches. They affirmed that the support or non-support of any agency has nothing to do with the status of a church as a Church of Christ and a Christian Church. They pronounced that historically every local Church of Christ or Christian Church was locally autonomous

편 기관을 후원할 수도 있고, 후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들 발견들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다음 사실상 이 환원운동의 원래 교리들과 관행들에서 실제로 이탈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뇌시키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각 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힘써 법적으로 확립하려고 소송들에 나섰고, 그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침내 그들이 ‘재구성’(restructure)이라고 부른 것에 귀착하였습니다.

III. 재구성 - “60년대 - 결정의 10년”[III. Restructure - “The Sixties - A Decade of Decision.”]

A. 그것이 무엇인지 - “책임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교회 정부의 계획 - 위계(位階)[A. What it is - a plan of church government allowing “freedom with responsibility” - lines of authority.]

60년대는 “결정의 10년”(Decade of the Decision)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10년 곧 이 재구성이 계획한 것은 단순히 이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책임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교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위계(位階)를 약속하였고, 모든 개 교회가 그들의 정관과 그들의 세칙들을 수정하게 하여 그들이 개 교회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조직화된 구조와 사업에 묶는 방식으로 노력하였습니다.

B. 그것의 목적 - 오스본(Osborn)과 다른 사람들이 진술한 대로 교단 및 에큐메니칼 지위를 획득하는 데 필수적[B. Its purpose -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f denominational and ecumenical status as stated by Osborn and others.]

물론 그것의 목적은, 과장 로널드 오스본(Ronald Osborn)과 다른

and could support or not support any agency without affecting its status as a Christian Church or a Church of Christ.

These findings affect. Then in effect pointed out that there were the Disciples who had, in fact, departed from the original doctrines and practices of this Restoration Movement. And so was the failing to indoctrinate the churches. They went to the lawsuits to endeavor to try to legally establish their claim upon each church and failing in that. They now resulted at last to what they called 'restructure.'

III. Restructure - "The Sixties - A Decade of Decision."

A. What it is - a plan of church government allowing "freedom with responsibility" - lines of authority.

The sixties were referred to as 'Decade of the Decision.' And what this decade of decision, what this restructure planed was simply this. It was a plan of church government allowing, so called, "freedom with responsibility." It committed lines of authority and endeavored to get every local church to rewrite their constitution and their bylaws in such a way they would tie the local church officially and legally into the organized structure and work of the Disciples of Christ.

B. Its purpose -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f denominational and ecumenical status as stated by Osborn and others.

Its purpose, of course, as it has already been indicated by Dean Ronald Osborn

사람들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교단 및 에큐메니칼 지위를 얻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C. “그리스도인의교회”(그리스도의제자들)라는 새로운 교단이 1968년 9월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시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됨[C. A new denomination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voted into existence in Kansas City, Missouri, September, 1968.]

그래서 “그리스도인의교회”(The Christian Church), 괄호 속에 (그리스도의제자들, Disciples of Christ)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단이 1968년 9월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시에서 투표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⁴⁶⁾

결론[CONCLUSION]

이들 재구성자들(Restructurists)은 이제 그리스도교계를 분열시킨 바로 그 인위적인 신제도들을 수용하는 유권자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환원운동을 처음 발생시킨 발단이었던 바로 그 관행들과 존재인 바로 그 교단들에 그들을 합류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빠져나온 바로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재구성은 기본적으로 환원운동과 맞서는 이슈(issue)가 아니었습니다. 재구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46) 미국에는 환원운동의 배경을 가진 교단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교단은 네 개입니다: 그리스도의교회들(Churches of Christ, 근본주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및 그리스도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교회(제자들의교회)<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진보주의>; 연합그리스도의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진보주의). 이들 가운데 진보성향의 제자들의교회와 연합그리스도의교회는 한국에는 없는 교단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없는 제자들의교회와 연합그리스도의교회는 서로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의교회는 한국그리스도의교회들보다는 한국의 기독교장로회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and others, was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f denominational and ecumenical status.

C. A new denomination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voted into existence in Kansas City, Missouri, September, 1968.

And so a new denomination, called, “The Christian Church” in parenthesis (Disciples of Christ) was voted into existence in Kansas City, Missouri, in September of 1968.

CONCLUSION

These Restructurists now have their constituencies accepting the very human innovations that divided Christendom, and they have them joining the very denominations, the very practices and existence of which had caused the Restoration Movement to come into being in the first place. It was taking Christians back into the very thing out of which they came.

But you see Restructure was not basically the issue confronting the Restoration movement. Restructure was the result, and not the cause.

니다. 배도나 불신앙이 이슈이거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교계에서 야기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주요 교단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 무류하고 권위 있는 그분의 성경, 그리스도의 신성 등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의 각 지점, 그리고 본래적인 근본 교리들과 관행들의 각 지점에서 이들 자유주의 지도자들에 의한 급진적인 이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결정을 내리는 교회들과 개인들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태도에 근거해서 그들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이슈는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로 만족됩니다.

Apostasy or infidelity was the issue or the cause. And it, by the way, is the caused problem in all of the Christendom today. In our almost every mainline denomination it is unbelieved repudiation of the supernatural of God, His Bible as infallible and authoritative, the Deity of Christ, and such like. That is causing the problem.

At each point of original and fundamental faith, and each point of original fundamental doctrines and practices, there was a radical departure by these liberal leaders.

Churches and individuals who make decisions today must base their decisions upon their view of and attitude toward the Bible and Jesus Christ. The issue is settled for all of those who accept the Bible as the authoritative Word of God and who accept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and sole Head of His Church.

환원운동사(RESTORATION HISTORY) 신약성경교회로의 환원(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제6부 환원운동(1923-1974) (부활) [THE RESTORATION
MOVEMENT(1923-1974) (Resurgence)].

서론[INTRODUCTION]

이 강의 시리즈의 제목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그것(신약성경교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How It All Began)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주후 30년 예루살렘 도시에 교회를 설립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이 교회의 여섯 가지 주요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무엇이 교회에 잘못되었는가?'(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배도, 믿음으로부터 타락, 신약성경 규범으로부터 이탈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역사가가 세계 역사의 암흑시대 또는 중세시대라고 부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돌아가는 길'(The Road Back) 즉 그리스도교(개신교) 개혁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많은 이러한 그리스도교(개신교) 운동들이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가를 밝혀드렸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하나의 새로운 시작'(A New Beginning)을 다루었습니다. 다양한 교단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성경 곧 그것의 교리들과 의식들(침례와 주의 만찬)과 공통의 만남의 장을 찾는 삶을 좇는 교회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섯 번째 강의인 '또 다른 잘못된 방향전환'(Another Wrong Turn)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세기의 배도, 이 위대한 운동을 거의 황폐화시

RESTORATION HISTORY RESTORATION TO THE NEW TESTAMENT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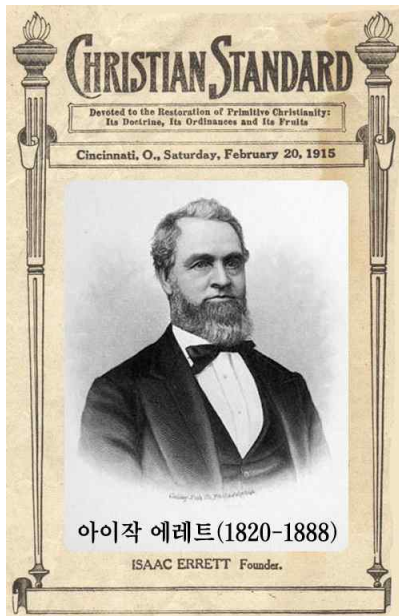
PART VI THE RESTORATION MOVEMENT (1923-1974) (Resurgence)

INTRODUCTION

The title of this lecture series is "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 The first lecture dealt with "How It All Began." We star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in AD 30 in the city of Jerusalem. And we considered six primary characteristics of this church that was to be restored. The second lecture dealt with "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 We looked at the apostasy, the falling away from the faith, the departure from the New Testament norm which resulted in what eventually historian referred to as the Dark Age or the Mediaeval Period of world history. The third lecture dealt with "The Road Back," the Protestant Reformation, endeavored to correct the abuses of the church and we also then revealed how and why many of these Protestant movements began. The fourth lecture dealt with "A New Beginning." The efforts were being made by people from various denominational background to restore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in its doctrines, ordinances and life to find a common meeting ground. And then we come to the fifth lecture, "Another Wrong Turn" in which we dealt with the 20th century apostasy, the tragic intrusion of liberal theology upon the religious scene that almost devastated this great movement.

킬 뻔한 종교계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의 비극적인 침입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운동의 부활인 여섯 번째 강의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Getting Back on the Track)에 다듭니다.

I. 로버트 E. 엘모어가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 내(內)의 “개방 회원제”를 폭로. 스탠더드 출판사가 폭로들을 출판[I. Exposure of “open membership” in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by Robert E. Elmore. Publishing of revelations by Standard Publishing.]



1911년에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의 집행위원회의 통신서기이자 사무총장이었던 로버트 E. 엘모어(Robert E. Elmore)가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 내(內)의 “개방 회원제”를 폭로한 것을 우리가 인용했던 것을 상기하십시오. 로버트 E. 엘모어는 이러한 사실들을 형제들에게 공개하고 그것들을 알리는 것을 거부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도덕적 무결함을 향유(享有)하기 위해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를 사직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모든 사실들과 폭로들이 스탠더드 출판

사(Standard Publishing Company)에 의해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II. 신실한 남은 자들의 집결[II. Rallying of faithful remnant.]

그런 다음 신실한 남은 자들의 집결에 전념하였습니다.

And now last of all we come to the sixth lecture, "Getting Back on the Track," a resurgence in this movement.

I. Exposure of "open membership" in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by Robert E. Elmore. Publishing of revelations by Standard Publishing.

Recall we had cited the exposure of "open membership" in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by Robert E. Elmore, the corresponding secretary, the executive secretary,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back in 1911. When, to enjoy his moral integrity, Robert E. Elmore resigned from the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because there was refusal to publish these facts and then inform them to brethren, he then had all of these facts and revelations published by Standard Publishing Company to the pages of the *Christian Stand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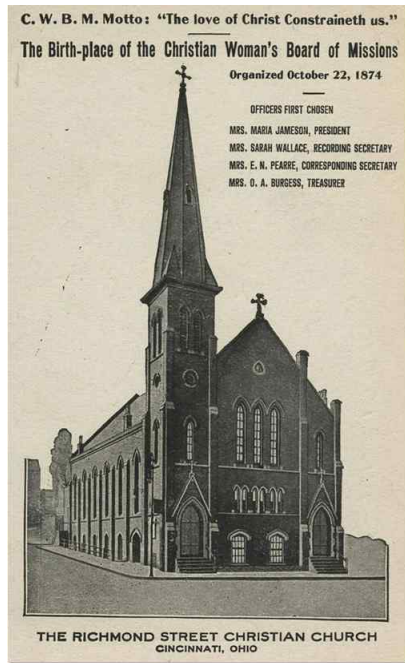
II. Rallying of faithful remnant.

Thus committed a rallying of the faithful remnant.

I. 클라크 기금의 설립(1923)[I. Formation of Clarke Fund (1923)]

A. 단체를 조직함 -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 소재한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 - 초창기 “독립” 선교사 단체들에서 이사들로 활동하는 장로들[A. Organizing body - Richmond Street Christian Church, Cincinnati, Ohio - elders acting as trustees, among the earliest “free” missionary agencies.]

B. 목적들 - 신약성경의 탄원이 없는 지역들에서의 복음화; 신약성경 패턴을 따른 교회들 개척하기, 문을 닫은 교회들 다시 열기 등[B. Purposes - evangelizing in areas destitute of the New Testament plea; establishing churches after the New Testament pattern, reopening closed churches, etc.]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 그리스도인여성선교국의 탄생지(1874.10.22) 및 선교국의 모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4) 및 선교국의 초대 임원 명단을 적은 엽서.

우리가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면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력가인 시드니 S. 클라크(Sidney S. Clarke)라는 이름의 한 그리스도인 신사가 자신이 작성한 유언장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수탁자를 세워 수입으로 미국 전역에 나가 이 신약성경의 탄원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지역들에서 신약성경의 이상을 좇아 교회들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전도자들의 봉급을 지불하는 데 쓰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결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 있는 다운타운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의 장로들이 이 특정

I. Formation of Clarke Fund (1923)

A. Organizing body - Richmond Street Christian Church, Cincinnati, Ohio - elders acting as trustees, among the earliest “free” missionary agencies.

B. Purposes - evangelizing in areas destitute of the New Testament plea; establishing churches after the New Testament pattern, reopening closed churches, etc.

As we go back a little bit, there was an interesting event that took place in latter part of the 19th century. A Christian gentleman by the name of Sidney S. Clarke, a man of means had provided in his will that after his death a trustee will be established with the income from which he indicated that should be used to pay the salaries of the evangelists who go across America and try to establish churches after the New Testament ideal in various areas destitute of this New Testament plea.

It happened that eventually the elders of the downtown Richmond Street Christian Church in Cincinnati Ohio

클라크 재산(Clarke Estate)의 수탁자(이사)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과 형제들이 이 클라크 재산의 이 존재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에 선교 기부금들과 헌금들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법적 전문적 방법으로 인해 이 기금이 유효하게 작용하거나 클라크 재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의 장로들은 그들이 클라크 기금(Clarke Fund)이라고 부른 것(재단)을 설립하여 미국 전역의 교회들과 형제들로부터 이들 선교 헌금들과 기부금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이 기금은 클라크 재산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함께 유효하게 작용하였고 이들 전도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미국 전역에 파송하였습니다.

C. 한 달에 거의 한 개의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었고, 거의 같은 수의 문 닫은 교회들이 초기에 연간 1,000명 이상의 침례로 다시 문을 열었음[C. Almost one new church a month established and about the same number of closed churches reopened with over 1,000 additions a year in the early years.]

이 노력의 결과로 매달 거의 한 개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수의 문 닫은 교회들이 클라크 기금의 초창기 이 수년간 고용된 5-8명의 전도자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년 거의 1,000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감동적인 결과로 다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II. 2개의 새로운 학교들의 설립[II. Formation of two new schools.]

A. 맥가비성경대학과 신시내티성경학교 - 1923. 목적 - 불신앙의 물결을 막고 신실한 복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함[A. McGarvey Bible College and Cincinnati Bible Institute - 1923. Purpose - to stem the tide

became the trustees to this particular Clarke Estate. And when some of the churches and brethren heard of this existence of this Clarke Estate, they, (who were endeavoring to do this), began to send missionary contributions or offerings to the Richmond Street Christian Church. To this legal technicality it was not possible for this fund to work or become a part of Clarke Estate. So the elders of the Richmond Street Christian Church brought into existence, what they called, the Clarke Fund which received these missionary offerings or contributions from the churches and brethren across the America. And then this fund worked in conjunction with the income from the Clarke Estate to employ these evangelists to send them out across America.

C. Almost one new church a month established and about the same number of closed churches reopened with over 1,000 additions a year in the early years.

Almost one new church was being established each month as result of this effort. About almost the same number of closed churches was being reopened in the thrilling result of almost 1,000 baptisms into Christ annually as result of this effort from 5 to 8 evangelists who were employed these early years of the Clarke Fund.

II. Formation of two new schools.

A. McGarvey Bible College and Cincinnati Bible Institute - 1923. Purpose - to stem the tide of infidelity and to prepare a faithful gospel ministry.

of infidelity and to prepare a faithful gospel ministry.]

그러나 그 운동이 자유주의 신학의 침투로 한때 도합 33개가량의 훌륭한 학교들에서 겪었던 쟁탈전에서 연이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복음 성경 설교사역을 준비해야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B. 클라크 기금의 후원 하에 합병. 신시내티성경신학교 - 1924[B. Merger under auspices of Clarke Fund. The Cincinnati Bible Seminary - 1924.]

초기에 설립되어 자유주의 신학에 굴복당한 훌륭한 학교는 켄터키주 렉싱턴 시 트란실바니아에 소재한 유서 깊고 권위 있는 성경대학(College of the Bible)이었습니다. J. W. 맥가비(McGarvey)는 크게 존경받는 성경학자이자 설교자였으며, 수년간 그 학교의 학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자유주의자들이 치고 들어왔고 모조리⁴⁷⁾ 접수하였으며 도미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훌륭한 학교들을 속속 빼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기독교신학교(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로 알려진 버틀러대학교(Butler University)에 있는 유서 깊은 종교학교(School of Religion);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소재한 텍사스기독교대학교(Texas Christian University)에 있는 유서 깊은 브라이트신학교(Brite Divinity School);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오와주 디모인에 소재한 드레이크대학교(Drake University)에 있었던 드레이크신학교(Drake Divinity School); 신학교(Divinity School, Philip Theological Seminary) 즉 오클라호마주 이니드(Enid)에 소재한 필립대학교(Philip University);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유레카대학(Eureka College); 오하이오주에 소재한 하이라ם대학(Hiram College), 오, 저의 부친께서 졸업하셨습니다; 베다니

47) lock, stock, and barrel. 이것은 구식총의 방아쇠, 개머리판, 총열을 가리키는 말로써 몽땅 혹은 모조리를 뜻하는 상투 문구이다.

But because the movement to the infiltration of liberal theology had begun in the sprint the loss in a row as once great schools about thirty-three in all, the concern came as what we wanted to prepare for faithful Gospel Bible preaching ministry.

B. Merger under auspices of Clarke Fund. The Cincinnati Bible Seminary - 1924.

The first built great school that was capitulated to the liberal theology was the old grand College of the Bible at Transylvania in Lexington Kentucky. J. W. McGarvey had been the highly respected Bible scholar and preacher and president of that school for many years. But when he died, the liberal moved in and took it over lock, stock, and barrel and came the domino effect. And rapidly one after another we began to lose our great schools such as the old School of Religion at Butler University, now known as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the old Brite Divinity School in the Texas Christian University in Fort Worth, Texas; the Drake Divinity School in the Drake University in Des Moines, Iowa, which is now non-existent; the Divinity School (Philip Theological Seminary), that is, Philip University in Enid, Oklahoma; Eureka College in Illinois; Hiram College in Ohio, oh my own father had graduated;

대학(Bethany College), 오, 저의 모친께서 다니셨습니다. 그 학교는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에 굴복한 고등교육에서 33개의 학교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23년 켄터키 주 루이빌 시에서 유서 깊은 성경대학의 J. W. 맥가비(McGarvey) 밑에서 수학했던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맥가비성경대학(McGarvey Bible College)이라고 칭한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서 주로 스탠더드 출판사(Standard Publishing Company)의 후원 하에 다수의 편집자들이 교수로 봉사하고 있었던 신시내티성경학교(Cincinnati Bible Institute)라고 불린 것을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둘 다 매우 작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두 학교들 모두의 주요 재정지원은 인디애나 주 콜럼버스 시에 소재한 현재 제일그리스도인의교회(First Christian Church)로 불리는 영향력이 큰 태버내클그리스도인의교회(Tabernacle Christian Church)였습니다. 그 매우 유명한 설교자는 W. H. 북(Book), 곧 윌리엄 헨리 북(William Henry Book)이었습니다. 북(Book) 형제는 이들 작은 두 학교들 모두에 접촉하여 그들 두 학교들이 지근거리에 붙어있고, 재학생들도 소수에 불과하며, 존립의 귀로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청지기직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들 두 학교들이 합병할 것을 제안하였고, 만일 그들이 합병하지 않으면, 태버내클교회는 필시 그들 모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이것은 미국 전역의 다른 형제들과의 경쟁에서 꽤 훌륭한 자극이었습니다.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 소재한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의 클라크 기금의 초청 때 이들 두 학교들은 1924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서 그들의 후원 하에 합병되었고 알려지게 된 대로 신시내티성경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로 개편하였습니다. 이 합병의 결과로 신시내티성경신학교는 재학생 수 66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해에 첫 졸업반에 다섯 명이 있었고, 그들은 문학사(BA) 학위들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크 기금의 사업이 성장하기 시

Bethany College, oh my mother attended. The school hadn't been to satisfy Alexander Campbell. Eventually we lost thirty-three schools in higher education which capitulated to liberal theology. And so as an effort to rectify it, some of men who sat at the feet of J. W. McGarvey of old College of the Bible along with others in 1923 in Louisville Kentucky started what they called, McGarvey Bible College. The same year in Cincinnati, Ohio primarily under the auspices of Standard Publishing Company with many of editors serving as faculty, there was establishing, what was called, Cincinnati Bible Institute. Both of these schools were very small and struggling. And at that time the primary financial support of both of these schools was the very influential Tabernacle Christian Church, now referred to as First Christian Church in Columbus, Indiana. The very well-known preacher was W. H. Book, William Henry Book. Brother Book approached both of these little schools and stated that it was really poor stewardship that two of them were in existence being located so closely together, with such small student bodies, and struggling for survival. And he proposed these two schools were merged and suggested that if they didn't merge, the Tabernacle Church would probably discontinue to support to both of them. Oh, this was pretty good motivation and in competition with other brethren across America. That was done. At the invitation of the Clarke Fund of the Richmond Christian Church in Cincinnati, Ohio, these two schools merged under their auspices in 1924 in Cincinnati, Ohio and reformed what was to be known as the Cincinnati Bible Seminary. As a result of this merger, it began with a student body of sixty-six. Next year there were five in the first graduating class that received their Bachelor of Arts degrees. The school began to grow. And the work of the Clarke Fund began to grow.

작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주로 불신앙의 물결을 막고 신실한 복음 사역을 준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III. 클라크 기금의 성장.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로부터 분리 - 1925[III. Growth of Clarke Fund. Separation from Richmond Street Christian Church - 1925.]

A. 새 이름 - 그리스도인환원협회[A. New name -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나. 목적 - 교육, 자선, 선교사역 등 이전과 동일[B. Purposes - same as predecessor including educational, benevolent and mission work.]

C. 간행물 - 이름이 <사실들>에서 <환원헤럴드>로 변경[C. Publication - name changed from *Facts* to *Restoration Herald*.]



그리스도인환원협회의 모토
“일어나 건축하자”(느 2:18)

Herald)의 편집자로 섬긴 지난 10년간은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클라크 기금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장로들이 제안하기를 이 조직이 개 교회 곧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자체 이사회가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름을 클라크 기금에서 그리스도인 환원 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에 소재한 이 특정 단체를 위해서 전도자로 섬긴 18년과 월간지 <환원헤럴드>(Restoration Herald)의 편집자로 섬긴 지난 10년간은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IV. 그리스도인봉사캠프운동(1927). 그리스도인환원협회가 마련한 12개 주

This school had been brought into existence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stemming the tide of infidelity and preparing a faithful Gospel ministry.

III. Growth of Clarke Fund. Separation from Richmond Street Christian Church - 1925.

A. New name -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B. Purposes - same as predecessor including educational, benevolent and mission work.

C. Publication - name changed from Facts to Restoration Herald.

That was that Clarke Fund began to grow that lastly elders suggested that this organizatio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local church, Richmond Street Church, and had their own Board of Trustees to direct and changed the name from the Clarke Fund to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which name it bears to this day. It had been my privilege in it 18 years span of time to serve for this particular organization in Cincinnati as an evangelist and the last 10 years as an editor of monthly publication, the *Restoration Herald*.

IV. Christian Service Camp Movement (1927). Twelve camps in 12 states arranged by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들에 12개 캠프들[IV. Christian Service Camp Movement (1927). Twelve camps in 12 states arranged by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그러나 그 일은 그리스도인환원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아래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자들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대학을 위한 신학생들을 어디서 모집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환원협회의 이사들 중 한 분이 O. A. 트린클(Trinkle) 형제였습니다. 그는 인디애나주에 소재한 대형 그리스도인의교회인 인디애나폴리스 시에 있는 앵글우드그리스도인의교회(Englewood Christian Church)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협회의 모임들 중의 한 모임에서 제안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인청년회의들(Christian Youth Conferences)로 호칭한 12개를 12개의 다른 주들에 설립시켜야 하며, 그들은 우리 지역 교회들의 젊은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미개척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관장(管掌)할 교수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1927년에 이러한 추진력은 그리스도인봉사캠프운동(Christian Service Camp Movement)으로 알려지게 된 것에 주어졌습니다. 몇몇 다른 캠프들은 주로 지방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 이미 독립적으로 세워졌습니다.

A. 숫자가 1928년에 14개로 늘어남[A. Number increased to 14 in 1928.]

B. 그리스도교 사역과 리더십을 위해 개 교회들에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B. Taps tremendous potential lying dormant in local churches for the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 개 교회들이 감독할 것을 촉구[C. Local churches urged to give oversight.]

But the work continued to grow under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They were starting new churches. But the question came, "Where were we going to get the preachers? Where were we going to get the students for the Bible college?" At that time one of the trustees of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was brother O. A. Trinkle who was the minister of larger Christian church in the State of Indiana, the Englewood Christian Church in Indianapolis. In one of the meetings of the Association he proposed that 12 Christian Youth Conferences, he called them, should be established from 12 different states and they should secure the faculty to reign curriculum to tap the great untapped dormant potential in our local churches' young people. And so in 1927 this impetus was given to what came to be known as Christian Service Camp Movement. Several others had been independently already established sponsored primarily by local churches.

A. Number increased to 14 in 1928.

B. Taps tremendous potential lying dormant in local churches for the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 Local churches urged to give oversight.

이듬해 캠프들의 숫자는 14개 캠프와 14개 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원협회는 중앙집권적 또는 공식적 권위기관으로 여겨졌던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가 빠졌던 것과 동일한 함정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새로운 캠프들이 위치한 이러한 다양한 지역에 소재한 개 교회들에 눈을 돌렸고 개 교회들이 이 캠프 프로그램을 그들의 지역구로 가져가 관리하고 감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운동은 눈에 띄게 성장하였습니다.

V. 직접후원선교의 계기[V. Momentum of Direct-Support Missions:]

A.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가 예양(타국의 법률, 습관 등을 존중)과 “개방회원제”에 협력할 것을 거부한 레슬리 울프 선교사를 필리핀에서 소환[A. U.C.M.S. recall of Leslie Wolfe from Philippines for refusal to co-operate in comity and “open membership.”]

1. 궁지에 몰린 울프 선교사에게 그리스도인환원협회가 전신환으로 자금을 조달[1. Funds cabled by C.R.A. in response to Wolfe dilemma (1927).]

이 동시대에 지금 우리는 오래된 해외선교회(Foreign Missionary Society)와 그리스도인여성선교국(Christian Women Board of Mission)을 떠난 몇몇 베테랑 선교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교리적 입장이 그들의 선교회가 현재 채택해온 자유주의 신학과 양립할 수 없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선교회가 마련하고 있었던 예양협정(禮讓協定, comity agreements)에 협력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들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소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첫 번째 경우는 필리핀 제도의 베테랑 선교사인 레슬리 울프(Leslie Wolfe)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배도 프로그

The next year the number of camps were increased to 14 camps and 14 states. Then the Restoration Association, not wanting to fall into the same pitfall of the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what was regarded as a centralized or official authoritative body, looked to the local churches in these various areas of new camps located suggesting that they take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this camp program into their constituency. And so it was. That movement had grown remarkably.

V. Momentum of Direct-Support Missions:

A. U.C.M.S. recall of Leslie Wolfe from Philippines for refusal to co-operate in comity and "open membership."

1. Funds cabled by C.R.A. in response to Wolfe dilemma (1927).

At this same period of time now we find some of the veteran missionaries who had gone out of old Foreign Missionary Society and Christian Women Board of Mission. Now we're finding that their doctrinal stance was incompatible with a liberal theology that had now been adopted by their Missionary Society. Because of their refusal to co-operate in the comity agreements there were being arranged by the United Society, these missionaries were being called back home. The first such instance was that of Leslie Wolfe, the veteran missionary of the Philippine Islands,

램에 협력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소환 당할 때, 그런 까닭에 그가 받던 선교후원금도 끊겼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 일궈온 사역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환원협회에 전보를 보내 그것이 발생한 진퇴양난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리스도인환원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는 레슬리 울프(Leslie Wolfe)에게 전신환으로 자금을 보냈고, 그에게 선교지에 남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그를 후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2. 일본의 Cunningham과 Madden의 지원에 대한 계속적인 항소; 남아프리카 연합의 C. B. Titus; 멕시코의 E. T. Westrup; 중국과 티베트의 Russell Morse[2. Ensuing appeals for assistance from Cunningham and Madden in Japan; C. B. Titus in Union of South Africa; E. T. Westrup in Mexico; Russell Morse in China and Tibet.]

몇 명의 충실한 선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호소들이 잇따라 빠르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일본 도쿄에서 사역하는 W. D. 커닝햄(Cunningham)과 M. B. 매든(Madden) 형제에게서 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C. B. 티투스(Titus) 형제에게서 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사역하는 E. T. 웨스트럽(Westrup) 형제에게서 왔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지는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에 의해서 감리교단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도, 중국, 티베트, 버마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계의 지붕을 섬기던 러셀 몰스(Russell Morse)로부터 호소가 왔습니다.

3. 그리스도인환원협회가 교회들에 호소 - 생활연계후원을 확보하고 개 교회들이 직접후원프로그램을 책임짐[3. Appeal to churches by C.R.A. - living-link support secured and local churches underwrite a direct-support program.]

who, when he was called back because of his refusal to co-operate in the program of apostasy, had his support thus drawn from him. He did not want to abandon the work which he had given his life that was in the Philippines. He sent a cablegram to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citing the dilemma that it happened. And immediately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cabled Leslie Wolfe fund and told him to stay in the fields. They were making appeal to the brethren to come to his support.

2. Ensuing appeals for assistance from Cunningham and Madden in Japan; C. B. Titus in Union of South Africa; E. T. Westrup in Mexico; Russell Morse in China and Tibet.

In rapid succession there came other appeals for assistance from some faithful missionaries. One came from W. D. Cunningham and from brother M. B. Madden in Tokyo, Japan; another came from brother C. B. Titus in the mission work in the Union of South Africa; another came from brother E. T. Westrup in Monterrey, Mexico whose mission work had been sold out to the Methodist denomination by the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then came an appeal from Russell Morse who served the rooftop of world worked in India, China and Tibet and Burma meet.

3. Appeal to churches by C.R.A. - living-link support secured and local churches underwrite a direct-support program.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처음 몇 년 동안 여덟에서 열하나의 신실한 선교사 가족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환원협회의 해외 전도자들이 동반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환원협회는 중앙집중식 권위 있는 공식 기구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내의 많은 수의 대형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그들의 생활연계선교사(living-linked missionary)로 이들 선교사들을 맡아(고용해)줄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응답한 첫 번째 교회는 오하이오 주 캔턴 시에 소재한 대형교회인 제일그리스도인의교회(First Christian Church)였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P. H. 웰시머(Welshimer)였습니다.⁴⁸⁾ 그들은 그들의 생활연계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레슬리 울프(Leslie Wolfe)를 맡았습니다. 다음 응답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시에 소재한 대형교회인 인디아놀라교회(Indianola Church)에서 왔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W. R. 워커(Walker)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시에 소재한 웨스트사이드그리스도의교회(West Side Church of Christ)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 다음은 캔자스 주 닷지 시티에 소재한 교회로부터 또 다른 응답이 왔고, 우리가 열하나의 신실한 선교사 가족들을 확보할 때까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접후원선교운동(direct-support mission movement) 곧 믿음으로 지지한 선교운동(faith-supported mission movement)으로 일궈진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B.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의 출범(1927).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모임; 교회들의 대회가 아님; 공식적이거나 권위 있는 조직체가 아님[B. Start of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1927). A

48) P. H. 웰시머(Welshimer)는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facts_welshimer_track.pdf \(kccs.info\)](https://www.kccs.info/facts_welshimer_track.pdf)의 저자로써 채이스 선교사가 1937년에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년간 전도용으로 사용하였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용 최초의 전도책자이다. 이 책으로 1937년에 김요한 목사, 최상현 목사(최윤권 목사 부친), 성낙소 목사, 김문화 목사, 박판조 목사, 백낙중 목사 등이 그리스도의교회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And thus we see, for the first several years, about 8 to 11 faithful missionary families who were carried by the CRA's overseas evangelists. And again not wanting to be construed as a centralized authoritative official body the Restoration Association wrote a number of larger churches in America and challenged them to take on these missionaries as their living-linked missionary. The first church responded was the great First Christian Church in Canton, Ohio where P. H. Welshimer was the minister. They took on Leslie Wolfe in the Philippians in their living-link. The next response came from the great Indianola Church in Columbus, Ohio where W. R. Walker (was the) minister. Then came a response from the West Side Church of Christ in Springfield, Illinois. Then another from the church in Dodge City, Kansas until the last we had 11 faithful missionary families. And thus began what came to be referred to as direct-support mission movement, the faith-supported mission movement.

B. Start of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1927). A fellowship of free Christians; not a convention of churches; not representative, official or authoritative.

fellowship of free Christians; not a convention of churches; not representative, official or authoritative.]

우리의 역사에서 이 같은 중대한 시기에 전국대회가 있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 전국대회에서 가결된 결의(決議)들은 사실상 무효화되고 없었던 일이 되는 데까지 거듭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망하여 1927년에 이들 형제들 중 많은 수가 탈퇴하였고, 그들은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로 알려지게 된 대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는 바로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모임이었습니다.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가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들의 대회가 아니었고, 한 번도 교회들의 대회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식적 또는 권위 있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제들의 모임일 뿐이며, 복음을 전하고 친교하며 동기를 부여하여 국내와 세계 각국에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C. 신시내티신학교 그리스도인환원협회에서 분리(1928).[C. The Cincinnati Bible Seminary set apart from C.R.A. (1928).]

그런 다음 1928년에 성경대학 및 신시내티성경신학교가 급성장하자 그리스도인환원협회의 이사들은 그것을 환원협회와 분리시켜 자체 이사회를 가진 별도의 교육기관이 되도록 추구하였습니다.⁴⁹⁾

49) Cincinnati Bible College 및 Cincinnati Bible Seminary는 같은 신학교 내의 학부와 원부를 말한다. 그리스도의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의 연합그리스도인 선교회와 대학(교)들 및 신학대학원들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자, 그리스도의제자들에서 탈퇴한 독립교회들이 성경신학의 보수를 위해서 세운 대부분의 대학들의 명칭이 'Bible College' 및 'Bible Seminary'였다. 그러다가 학생모집의 수월성과 생존을 위해서 'Bible'을 'Christian'으로 바꾸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는 'College'에서 'University'로 개편이 시작되었다.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대학(교)들은 폐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같은 이유로 1924년에 개교한 교단의 명문(名門)이었던 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 및 Cincinnati Bible Seminary는 2019년 말에 폐교가 결정되었다.

At this same juncture in our history due to the fact that there was the national convention, the resolutions that were passed by the convention were repeatedly reinterpreted to the expanses they were practically nullifying, made null and void. And at last in frustration in 1927 many of these brethren withdrew and they formed what came to be known as the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The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was a fellowship of free Christians which it is to this very hour. It was not or hasn't ever been a convention of churches because the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is not a representative. It is not an official or authoritative body. It's simply a gathering of the brethren for preaching of the Gospel and for fellowship and motivation to do the work of our Lord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C. The Cincinnati Bible Seminary set apart from C.R.A. (1928).

In 1928 then, because the Bible college, Cincinnati Bible Seminary was growing so rapidly, the trustees of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sought to separate it from the Restoration Association as a separate educational institution with its own board of trustees.

VI. 65년간의 믿음으로 공동노력[VI. Sixty-five Years of Cooperative Endeavor in Faith:]

A. 지역 및 지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도 협회들 및 남성 친목회들. 결과 - 현재 매년 수십 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설립[A. Multiplicity of evangelistic associations and men's fellowships both local and area wide. Results - scores of new churches now established annually.]

그리고 이제 하나의 결과, 일어난 것으로써 우리는 이 재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65년간의 공동노력, 조직구조의 응집력이 아닌 믿음 안에서의 공동노력 끝에 우리는 지역 및 지역 전반에서 다양한 전도 협회들과 남성 친목회들이 미국 전역의 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결과 신약성경의 이상을 좇아 수십 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전국의 지역사회들에서 다시 확실히 재건되었습니다.

B. 36개의 성경 대학[B. Thirty-sixty Bible Colleges.]

1. 4,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1. Enrollment over 4,000.]
2. 급성장으로 인한 시설과 교수진 확충의 압박을 받음[2. Burgeoning growth exerting pressure on facilities and faculties.]

또한 우리는 그 사이에 36개의 성경 대학들이 생겨났고 오늘날 약 4,000명의 학생들이 등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급성장함으로써 시설과 교수진 확충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C. 그리스도인봉사캠프들에서 약 800주간의 집회 개최[C. Approximately 800 weeks of Christian Service Camps.]

VI. Sixty-five Years of Cooperative Endeavor in Faith:

A. Multiplicity of evangelistic associations and men's fellowships both local and area wide. Results - scores of new churches now established annually.

And so now as a result what it happened we see this resurgence now beginning to take place. God was working with our faithful remnants. After 65 years of cooperative endeavor, a cooperative endeavor that had been in faith and not to the cohes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we find a multiplicity of evangelistic associations and men's fellowships both local and area wide springing up in states all across the America. Result of this was that the scores now of new churches after the New Testament ideal again certainly reestablished in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B. Thirty-six Bible Colleges.

1. Enrollment over 4,000.

2. Burgeoning growth exerting pressure on facilities and faculties.

Also we see the result across intervening years 36 Bible Colleges has sprung up with their enrollment today of approximately 4,000 students. And there was burgeoning growth of these schools (exerting) pressure on the facilities and the faculties.

C. Approximately 800 weeks of Christian Service Camps.

1. 약 100,000명이 등록[1. About 100,000 enrollments.]
2. 매년 1,500명 이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침례를 받음[2. Over 1,500 baptized into Christ annually.]
3. 목회자 수급(전문 그리스도인 사역)을 위해 매년 700명 모집[3. About 700 recruits for specialized Christian service annually.]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봉사캠프운동도 역시 성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봉사캠프들에서 매년 여름마다 현재 약 800주간의 집회들이 개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100,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이들 캠프들에 참여합니다. 평균적으로 약 1,5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약 700명의 이 젊은이들이 전문적인 그리스도인 사역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도록 도전을 받았고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D. 선교사 수는 약 2,000명[D. Missionaries number about 2,000.]

1. 해외 선교사 약 1,000명[1. About 1,000 missionaries overseas.]
2. 60개국에서[2. In 60 countries.]
3. 82개 선교지에서[3. On 82 mission fields.]
4. 500개의 다른 선교 기지들에서[4. On 500 different mission stations.]
5. 현재 성경 대학 등록학생의 5% 이상이 선교지에 헌신[5. Over 5 per cent of present Bible college enrollment committed to the mission field.]

또한 우리는 선교지가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은 현재 약 2,000명입니다. 그 중 거의 1,000명이 해외 선교사들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약 60개국 약 82개 다른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500개 선교기지들

1. About 100,000 enrollments.
2. Over 1,500 baptized into Christ annually.
3. About 700 recruits for specialized Christian service annually.

And then another growing story is the fact that the Christian Service Camp Movement has grown also. Today stands that every summer now approximately 800 weeks of camps are held. Sum of over 100,000 of our young people attend these camps every summer. On average over about 1,500 of these young people are baptized into the Lord Jesus Christ. And on every summer the latest statistic has been about 700 of these young people were challenged and motivated to prepare themselves for specialized Christian service.

D. Missionaries number about 2,000.

1. About 1,000 missionaries overseas.
2. In 60 countries.
3. On 82 mission fields.
4. On 500 different mission stations.
5. Over 5 per cent of present Bible college enrollment committed to the mission field.

Also we find that the mission field has been growing. Our missionaries today now are number of approximately 2,000. Almost 1,000 of them are serving as overseas missionaries. These missionaries are serving in about 60 different countries in about 82 different mission fields and are found out about 500 different mission stations around the world.

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체 성경 대학 등록학생의 약 5%가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E. 약 5500개의 교회. 1,200,000명 이상의 출석교인[E. About 5500 congregations. Over 1,200,000 members.]

또한 오늘날 우리는 미국 전역에 약 5,500개의 회중들(교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5,500개 교회들에는 약 1,200,000명의 출석교인들이 있습니다.

F. 무악기와 형제들[F. Non-instrument brethren.]

1. 약 12,000개의 교회[1. About 12,000 congregations.]
2. 약 2,500,000명의 등록교인[2. About 2,500,000 members.]
3. 공통의 신앙을 고수하고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는 것에 기초한 일치 협의들[3. Unity consultations based upon adherence to the common faith and recognition of each other as brethren.]

아, 무악기와 형제들은 약 12,000개의 회중들(교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500,000명의 출석교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드러난 고무적이었던 것은 이들 두 그룹 사이에 일치 협의들이 있어왔고 공통의 신앙을 고수하고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는 것에 기초하여 유지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더 개최되고 있으며 이들 형제들 사이에서 고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CONCLUSION]

I. 교인수, 신학교, 목회자, 선교사, 교회가 자유주의 진영들에서 쇠퇴하는 시대에 환원운동은 각 분야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있음[I. In a day of

Approximately 5 percent of total Bible college enrollment today is committed to the mission field.

E. About 5500 congregations. Over 1,200,000 members.

Also today we have about 5,500 congregations across the America. These 5,500 congregations have approximately 1,200,000 members.

F. Non-instrument brethren.

- 1. About 12,000 congregations.**
- 2. About 2,500,000 members.**
- 3. Unity consultations based upon adherence to the common faith and recognition of each other as brethren.**

Ah, non-instrument brethren have about 12,000 congregations. And that has 2,500,000 members. And what had been encouraging thing that had appeared in recent years have been the unity consultations between these two groups and stayed in based upon their adherence to the common faith and recognition of each other as brethren. And so these are being held increasingly and encouraging headway is being made among these brethren.

CONCLUSION

I. In a day of membership, seminary, ministerial, missionary, and church decline in liberal circles, the Restoration Movement is experiencing growth in every area.

membership, seminary, ministerial, missionary, and church decline in liberal circles, the Restoration Movement is experiencing growth in every area.]

교인수, 신학교, 목회자, 선교사, 교회가 자유주의 교단들에서 쇠퇴하는 시대에 환원운동은 이들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II. 교단들의 배도에 지친 모든 교단들의 신자들이 다시 공통의 만남의 장을 찾고 있음[II. Believers in all the denominations, wearied of apostasy in denominational circles, are looking again for common meeting ground.]

오늘날 모든 교단들의 신자들은 교단들의 배도에 싫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수천 명씩 이탈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들 주요 교단들의 상당수가 교인수의 25%, 30%, 37%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공통의 만남의 장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III. 환원운동에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수(固守)가 발견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초교파적 맥락에서 발견됨[III. In the Restoration movement is found not only an adherence to the historical Biblical Christian faith, but it is found in an undenominational context.]

환원운동에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수(固守)가 발견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초교파적 맥락에서도 발견됩니다.

IV. 세계 인구는 1850년에서 1950년까지 3배(3,000,000,000) 증가[IV. The world's population tripled from 1850 to 1950 (3,000,000,000).]

In a day of membership, seminary, ministerial, missionary, and church decline in liberal church circles, the Restoration Movement is experiencing growth in every one of these areas.

II. Believers in all the denominations, wearied of apostasy in denominational circles, are looking again for common meeting ground.

Believers in all the denominations today have been wearied of the apostasy in denominational circles. They are literally defecting by the thousands. In a recent 10 years span of time many of these mainline denominations have been decreased in the membership, 25 percent, 30 percent, 37 percent, because these people again are looking for common meeting ground.

III. In the Restoration movement is found not only an adherence to the historical Biblical Christian faith, but it is found in an undenominational context.

In the Restoration movement is found not only an adherence to the historical Biblical Christian faith, but it is also found in an undenominational context.

IV. The world's population tripled from 1850 to 1950 (3,000,000,000).

A. A.D. 2000년까지 다시 두 배로 증가[A. To double again by 2000 A.D.]

B. 1950년에 세계 인구의 33/30퍼센트가 그리스도인[B. In 1950 33/3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as Christian.]

C. 1960년까지 30퍼센트로 떨어짐[C. By 1960 it had dropped to 30 percent.]

D. 주후 2000년에는 20퍼센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D. It is projected that by 2000 A.D. it would be less than 20 percent.]

1850년에 우리의 세계 인구가 단지 10억 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3배로 증가시키는 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1950년에 인구는 30억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이 수치가 다시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는 52억 명의 지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주장한 바에 의하면, 1950년에는 세계 인구의 33퍼센트와 30퍼센트가 적어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인 1960년에는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이 수치가 20퍼센트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V. 영혼 인도자로서 곧 만인사제직의 성경적 교리를 새롭게 한 강조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미완의 큰 과업이 있음[V. There is a great-unfinished task that necessitates the involvement of every Christian as a soul-winner, a renewed emphasis upon the scriptural doctrine of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아시다시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혼 인도자로서 참여하게 하는 명령 곧 미완의 엄청난 과업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만인사제직을 새롭게 강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 A. To double again by 2000 A.D.
- B. In 1950 33/3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as Christian.
- C. By 1960 it had dropped to 30 percent.
- D. It is projected that by 2000 A.D. it would be less than 20 percent.

It's significant to note that in 1850 our world's population was just one billion. It took one hundred years for this in triple. In 1950 the population became 3 billion. And it is projected that by the year 2000 this will double again. Already we have passed the 5 billion 2 hundred million mark. In 1950 33 and 30 percent of our world's population was at least allegedly Christians. But it was in 10 years of time by 1960 it dropped to below 30 percent. And it is projected that by the year 2000 this figure will drop to below 20 percent.

V. There is a great-unfinished task that necessitates the involvement of every Christian as a soul-winner, a renewed emphasis upon the scriptural doctrine of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You see, this concern in listening imperative, the tremendous unfinished task, that necessitates the involvement of every Christian as a soul-winner never seemed to necessitate a renewed emphasis upon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in Jesus Christ.

VI. 지금은 초교파적 그리스도교에 증인을 위한 또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조로, 성경을 믿음과 실천에 대한 유일하고 모든 충분한 규범으로 또 그리스도인 뿐(Christian only)을 내용으로 신약성경의 패턴에 따라 교회회복을 위한 갱신된 호소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대[VI. This is an era of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a witness to undenominational Christianity and for renewed plea for a restoration of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pattern with Christ as the only creed, the Bible as the only and all-sufficient rule for faith and practice, and content to Christian only.]

우리는 전례 없는 기회의 시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2000년의 존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메시지를 우리의 세상에 전할 미디어의 모든 기술에 대한 예술적 공개를 접해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운송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먼 곳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내 집 앞 계단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것은 복음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적인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초교파적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에 증인을 위한 또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조로, 믿음은 물론 실천을 위한 유일하고 모든 충분한 규범으로의 성경을 위한 호소로,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조로, 성경을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으로 또 단지 단순히 다시 기꺼이 알려진 그리스도인 뿐(Christian only)으로 신약성경의 이상을 좇아 교회의 회복을 위한 갱신된 호소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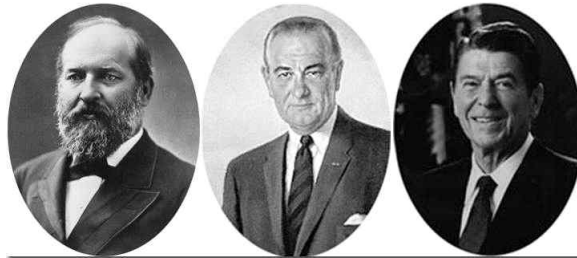
그리고 오, 복음을 전파하기에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모든 신자들이 단순히 성경의 백성, 그 책의 백성으로 다시 알려지게 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왜 그것을 믿는지 다시 알게 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들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힘쓰도록”(딤후 2:15)하게 합시다!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은 무

VI. This is an era of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a witness to undenominational Christianity and for renewed plea for a restoration of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pattern with Christ as the only creed, the Bible as the only and all-sufficient rule for faith and practice, and content to Christian only.

We are concerned with an era of unprecedented opportunity. The church today is the most affluent church in the 2000 year history of the existence. We have had artistic exposure to all the technology of the media to get the Gospel message out to our world. We have also the technology in transportation and make the furthest access to our world see my very front doorstep. Ours is a fantastic stewardship that God has given us to get the Gospel message out to our all the world. So this is an era of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a witness to undenominational New Testament Christianity and for renewed plea for a restoration of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ideal, with Christ as the only creed, with the plea for the Bible as the only and all-sufficient rule for both faith as well as for practice, with Christ as the only creed, the Bible as the only rule of faith and practice and just simply again willing to be known as Christian only.

And oh what a time to preach the Gospel! Let all believers again be known simply as a Bible people, a people of the Book! Let all Christians again know what they believe and why they believe it! Let them so "study to shew themselves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or handling rightly the word of truth"(2Tim. 2:15)!

엇이든 책, 장, 구절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할 수 있게 합시다! 그것을 설교자에게가 아닌, 교파 교회에게가 아닌, 호소(plea)에게가 아닌 어필(appeal)을 하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어필하게 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한 그들의 소망을 갖게 합시다! 우리가 거룩한 임무를 갖기에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이며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심지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9:4).



제임스 가필드
제20대 대통령

린든 존슨
제36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제40대 대통령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 미국 대통령들

Let us again be able to tell people book, chapter and verse whatever we believe and teach and practice! Let us make it appeal not to a preacher, not to a denominational church, not to a plea, but let's make appeal again to the Word of God so the man might have their hope based on what God had spoken! What an hour we have a holy task! It is an unfinished task and it, Jesus said it, even to us today, "We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us while it is day, for the night cometh, when no man can work"(John 9:4).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재구성: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강연듣기:** <http://kccs.info> 그리스도의 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게
시판 46-54번

*****Favorite Recipe: 좋아하는 조리법**

1.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독교 본래의 참맛(행 20:7)

〈The Lost But Found Recipe: To Restore the True Flavor of Christianity〉

가족의 입맛을 살리기 위해서 즐겨 조리했던 어느 주부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부인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그 조리법을 적은 쪽지를 찾아보았지만,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전에 사용했던 재료들과 혼합했던 재료의 양을 기억을 더듬어 조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이전만 못하였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먼지가 쌓인 벽에 기대어 세워뒀던 그녀의 작업 캐비닛을 옮기게 되었고, 벽과 캐비닛 사이에서 조리법을 적은 쪽지를 발견하였다. 캐비닛 위에 올려놓았던 조리법이 캐비닛 뒤로 넘어갔던 것이다. 쪽지를 발견한 그녀는 물론 기뻐고, 그것을 주어서 먼지를 털 후에 탁자에 올려놓았다. 청소를 마친 후에 그녀는 조리법에 적힌 대로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양과 동일한 방법을 써서 조리를 하였고, 예전의 맛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펼치는 환원운동은 기독교가 잃어버렸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과 순수성을 기독교 본래의 참맛을 기록한 신약성서에서 되찾는 운동이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독교 본래의 참맛 가운데 한 가지이다.

***How to Recognize Counterfeit: 위폐 구별법

2. 신약성서는 모든 교단들의 진위(眞僞)를 구별하는 잣대이다(딤후 3:14-17)

〈New Testament Is the Canon How to Recognize Counterfeits among Various Denominations〉

전 세계에 개신교 교단의 숫자가 2-3만개라고 한다. 굵직한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 만약 우리가 이들 교단의 진위를 파악하려한다면, 평생토록 연구해도 다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진위는 고사하고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참과 거짓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많은 교단들을 다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위조지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한 젊은 사업가에 관한 이야기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다.

젊은 사업가가 은행에 들어와서는 점객원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지점장과 접견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약속을 잡지 못한 그는 점객원에게 5달러짜리 지폐를 건네면서 말하였다. “내가 그 평범한 지폐로 모든 위폐를 어떻게 구별해낼지를 가르쳐드릴 수 있다고 지점장에게 말해 주시오.” 점객원은 명함과 지폐를 지점장의 호사스런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으며 그의 말을 전하였다. 지점장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였다. “음, 정말 평범한 지폐로군. 이런 5달러짜리 지폐가 이 은행에 수천달러는 족히 있을 텐데.” 그는 젊은이를 들어오게 해서 책상 앞에 세웠다. 지점장은 그 젊은이가 가방에서 온갖 종류의 위폐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젊은이는 그냥 호주머니 속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낸 후 퍼서 책상 위에 놓으며 말하였다. “지점장님, 저한테 이 진짜 돈의 특징

을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지점장님은 단순히 대조해 보시는 것만으로 모든 위폐를 자동으로 구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펼치는 환원운동은 지상의 모든 교단을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평범하지만 진짜인 신약성서의 특징들에 대조함으로써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과 순수성을 되찾는 운동이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은 진짜인 신약성서의 특징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Efficacy of Aspirin: 아스피린의 효능

3. 신약성서는 증상완화를 위한 책이 아니라 근원치유를 위한 책이다 (막 5:29)

〈New Testament Is Not for Relieving Symptoms Like Aspirin But for Curing Causes〉

아스피린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고 있다. 요즘 아스피린은 만병통치약처럼 취급된다. 아스피린은 두통, 관절염, 당뇨, 티눈, 소화불량, 치통의 개선 또는 완화에 쓰이고, 해열과 심장마비, 뇌졸중 및 암 예방에 두루 쓰인다. 이처럼 뛰어난 약도 증상을 완화하거나 개선할 뿐, 병의 근원을 치유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종교개혁과 환원운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16세기 초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그동안 기독교의 질병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아스피린이 병의 근원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가 앓고 있는 질병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일찍이 하나님은 유대교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기독교를 택하셨고, 가톨릭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개신교를 택하셨다. 그러나 개신교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교적 기독교로 변질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수만 개의 교단으로 분열되었다. 이 고질병은 고쳐졌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운동이 18세기 말에 시작된 신약성서교회운동이다. 이 운동은 신약성서에 나타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과 순수성을 되찾음으로써 교회가 앓고 있는 고질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자

는 운동이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순수한 원형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A Geometry Formula: 기하학 공식

4. 예수님의 공생애 재현으로써의 기독교 예배(행 2:42)

〈Things That Are Equal to the Same Thing Are Equal to Each Other〉

기독교 예배는 예수님의 전 생애, 즉 가장 위대한 예배의 삶이었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재현이다.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말씀의 예배로 표현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주의 만찬 예배로 표현된다. 마르틴 켈러(Martin Kähler)가 복음서를 “긴 서론을 가진 수난사”라고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 선행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살아나며, 갈릴리 사역은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연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기독교 예배가 어떠한지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말씀이 나온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들이 헌신했던 일은 이 네 가지였고, 서로 동일하게 중요한 동등한 요소들이다(Things That Are Equal to the Same Thing Are Equal to Each Other) 사도들이 어느 것을 더 힘쓰고 어느 것은 덜 힘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동일하고 동등하게 힘썼던 예배의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의 예배가 먼저 나오고, “떡 떼” 즉 주의 만찬 예배가 나중에 나온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순수한 원형이자 예배의 핵심이었다는 증거이다.

***Too common: 너무 흔한

5. 주의 만찬을 매주하면 너무 흔한 일인가?(딤후 4:7-8)

〈Weekly Observance of the Lord's Supper Is Too Common?〉

우리가 주의 만찬을 매주 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순수한 원형이자 예배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만찬을 자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주 하니까 경건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주의 만찬을 매주하면 너무 흔해빠진 일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되묻는다. 매주일 예배드리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이 되는가? 매주일 설교하면, 매주일 헌금하면, 매주일 찬양하면, 매주일 기도하면, 매주일 봉사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일들은 자주 할수록 성도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된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딤후 4:7-8)고 하였다.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이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를 완성시킨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이 예배에서 소홀히 되면, 그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Five Finger Exercise As A Salvation Process: 다섯 손가락 구원과정

6. 침례를 받은 자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전 10:1-4)

〈Only Christian Who Believed in Jesus, Repented, Confessed and Was Baptized Can Partake in Lord's Supper〉

주의 만찬은 종말론적인 식사 즉 구원받은 자들이 참여할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는 의식이다.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입교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은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며

만나와 반식의 샘플을 마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수 있다. 히브리인들의 홍해 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침례에 대한 그림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다섯 손가락 설교를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었다.

다섯 손가락 설교란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섯 가지 과정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진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바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인 것이다.

***Three Legged Stool: 세 다리 걸상

7. 예배에서는 설교만이, 구원에서는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가?(행 2:42)

〈Sermon Only in the Worship and Faith Only in the Salvation Are the Most Important?〉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전설의 새인 세 발 까마귀 즉 삼족오(三足鳥, three-legged bird)를 태양의 신으로 널리 숭배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지의 배꼽(Omphalos)이라 여겼던 델포이(Delphi)에 아폴론 신전을 짓고, 그가 맡긴 사람들의 운명 즉 신탁(神託, oracle)을 여사제(祭尼) 휘티아가 세 다리 걸상(tripod)에 앉아서 풀어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녀의 세 다리 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는 어떤 것일까? 세 다리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 다리 한 개나 두 개로는 의자가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의 만찬과 침례의 중요성을 말할 때 세 다리 걸상을 인용하여왔다.

신약성서교회는 예배 때 사도의 가르침(설교), 교제, 떡 떼(주의 만찬), 기도(찬양)에 헌신하였고, 이것들을 서로 동일하게 중요한, 동등한 요소들로 인정하였다. 또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섯 가지를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 다섯 가지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지며 행위와 무관하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바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인 것이다.

***Scaffolding: 비계(가설발판)

8. 그리스도인들이 서야할 유일한 공동장소는 신약성경이다(딤후 3:15-17)

〈The New Testament Bible Is the Only Common Meeting Ground upon Which All Believers Can Stand〉

가톨릭은 1950년대까지 과거 1400년간 예배에서 설교를 빼버린 채 주의 만찬(Lord's Supper)을 제사예배(Eucharist)로 왜곡시켜 중시해왔다. 이것에 반발한 개신교는 과거 500년간 주의 만찬을 무시한 채 말만 풍성한 기도회를 중시해왔다. 이런 왜곡은 초기 500년간 지속된 균형예배, 즉 설교와 주의 만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했던 사도전통을 심각하게 왜곡시켜왔다. 이에 세계교회는 1960년대 이후부터 예배갱신에 노력하여왔으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한편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1700년대 말부터 문제의 핵심을 깨닫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야할 유일한 공동장소가 성경임을 주장하였고, 특히 신약성경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신약성경은 기독교를 완성시킬 최종 전경으로써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집과 같아서 빼거나 더할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 집주인이 집을 완성한 후에도 사용했던 비계(가설발판)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완성된 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약성경(사도전통)의 중요성을 말할 때 비계를 인용하여왔다. 현대화란 변명으로 신약성경에 사람이 뭔가를 빼거나 더하는 것은 마치 건축을 마친 집주인이 비계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환원운동의 원칙'

책은 성경만(No Book but the Bible)
신조는 그리스도만(No Creed but the Christ)
명칭은 하나님의 것으로만(No Name but the Divine)
주장은 복음만(Our Plea Only the Gospel)
일치의 근거는 성경(신약)으로만(The Basis for Unity
the Bible Alone)
기본교리에는 통일을(In Essentials Unity)
의견에는 자유를(In Opinions Liberty)
매사에는 사랑으로(In All Things Charity)



백주년대회 포스터(피츠버그 1909.10.11-19.)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모두 하나가 되어...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그리스도인환원협회의 모토
"일어나 건축하자"(느 2:18)